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지혜는 교만 속에 묻혀만 가고
무명은 아상(我相)위에 자라만 가서
제 잘난체 안 배우고 늙어진 외에
법들어 신운속에 환단만 외네.
-제초심학인문-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4월 26일 수요일(주간) 제 268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컴퓨터가 인류의 삶에 가져올 미래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보다 빨리 보다 사용하기 쉽게 보다 새롭게 보다 많이 보다 다채롭게 개선돼 호환성과 통합성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이 시대의 문화풍속도를 하루가 다르게 바꿔놓고 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시간과 공간을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극복할 것인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과 함께 열린 21세기는 바야흐로 직관과 창의의 시대이다. 정보화시대 특징지어지는 현실에서 성공논법은 아이디어와 감수성이다. 즉 창의성과 직관력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초스피드 디지털시대에는 엉뚱한 생각 역설적인 사고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최고 히트를 누려 성공한 광고카피 "잘 자~ 내 꿈꿔~", 무수한 회의와 거듭된 고민을 통해 결정됐던 "사랑해~"가 진부하다는 지적에 일순간 떠올라 급조된 아이디어였다고 한다. 무한한 창의력과 상상력의 나래를 펴기엔 이성이나 합리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디지털시대 성공법
직관과 창의성 활용

지금까지는 직관 또는 감(感)에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주먹구구'라는 평가가 따랐다. 의사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는 산업시대의 이성과 논리에 밀려 간과돼왔던 직관이나 감성이 각광받고 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속도가 승부를 결정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이성에 의한 결정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선학연구원 이은윤원장은 "디지털 시대 주목받는 사람들은 직관과 창의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직관은 분별이나 이성적 사고를 거치지 않은 비합리적 사유체계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정신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직관력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선수행과 일치합니다"고 진단한다.

불교적 사고와 통하는 디지털 사고의 실용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회원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20-94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점자 대장경 만든다

천리안 보은회, 3년계획 입력작업…"종단차원 지원 절실"



천진항이 부처입니다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목탁을 치고 있는 조계사의 동자승들. 19일 석발 수계식을 치른 동자승들이 출가체험 프로그램의 하나인 집탁을 배우고 있다. 동자승들은 한달 동안 아침예불, 등만들기, 반야심경 등을 배운다. 또 각종 봉축행사에도 참여해 천진동자승의 모습으로 분위기를 북돋는 역할을 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천리안 불교동호회의 보은회(회장 박희준)와 마포점자도서실 이연주 실장이 점자불경 제작에 발벗고 나섰다.

보은회와 마포점자도서실은 5월부터 한글대장경 〈장아함경〉을 입력하는 것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한글대장경 전권을 순서대로 입력시키고, 전권 입력이 끝나면 권당 3천부 정도를 인쇄해 시각 장애인이 있는 사찰에 보급할 예정이다.

보은회는 매달 1권씩 불경을 컴퓨터디스켓에 입력하는 점역작업을 실시하며, 마포점자도서실에서는 점자불서 출간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점역작업은 1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각자 사비로 같은 책을 구입하거나 보시를 받아 진행해 왔다. 점자불경 1권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를 빼고도 1만원에서 1만5천원이 든다. 그러나 종단의 후원은 물론 경전을 펴내는 출판사에서 디스켓 복사를 꺼려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점자불경 제작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인식부족이란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점자불경 제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입력작업. 출판사에서 디스켓을 제공해 준다면 입력 작업이 줄어 재정적·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쉽게 불경을 제작할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교관련 도서는 모두 169종. 이 가운데 불서는 11종뿐이다.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디지털 토킹 북(Digital Talking Book)은 1종 뿐이다. 전국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점자불서를 다 합해도 100여종밖에 안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불경은 조계사 원심회에서 발간한 〈묘법연화경〉과 마포점자도서실에서 발간한 〈천지팔양신주경〉〈지장경〉〈금강경〉〈한글 화엄경〉 등 5종뿐이어서 2천여 시각장애인 불자들은 불경 읽기가 쉽지 않다.

이연주 실장은 "종단과 사찰등이 일회성 행사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목말라 하는 점자불경 제작에 적극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조불련, 한국WFB에 "북경서 만나자" 제안

조선불교도연맹이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지부에 접촉을 제안했다.

'WFB 부회장 양장훈선생 앞'으로 13일 보낸 팩스에서 박태화 위원장은 "빠른 시일내 제3국(베이징)에서 만나 호상관심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조불련의 제안에 대해 양 부회장은 "조계종 국제불교교류위원회와 WFB 한국지부 회원 모임에서 논의한 후 접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불련에서 WFB 한국지부에 접촉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운 기자

"사랑과 정의 넘치는 땅 만드는데 협력하자"
천주교, 초파일 경축메시지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천주교에서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보내왔다.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종교간 대화위, 위원장 최기산 신부)는 18일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에 '2000년 부처님 오신날에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메시지'를 통해 "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다가오는 세대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종교간대화위는 또 "두 종교 사이의 우호관계를 토대로 더욱 긴밀히 연대하여 이 땅을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진각종 심벌-캐릭터 선보여



불교계 최초로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종단 이미지 통일화 작업(CI)을 완료, 19일 서울하월곡동 총인원에서 CI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등 종단의 전 스승들과 신교도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제정한 종단 심벌과 캐릭터 등을 선보였다.

진각종이 그리고디자인(대표 박상현)에 의뢰해 1년여의 작업기간을 거쳐 완성한 심벌마크는 전체적으로 '금강'을 뜻하는 4개의 작은 다이어몬드가 합쳐져 만든 사각의 다이어몬드형에 범어 '옴'자를 새기고 밀교의 오방색(백·청·황·적·흑)을 조화시켜 형상화했다. 진각종은 이 심벌과 한글로고타입, 해외홍보를 위한 영문표기 JOGOJIN-GAK BUDDHIST ORDER) 등을 기본요소로 다양하게 응용해 종단의 모든 행사와 각종 양식에 적용, 종단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촉구 타종교와 연대 가능성

정부의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7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달라이 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공동대표 법장스님등 7인) 대표단(성관·박광서 공동대표, 정웅기 사무국장)은 17일 청와대에서 차연 문화관광비서관을 면담하고, "문화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찾고 국민의 종교·인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차 비서관은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범불교대책위는 5일2일 오후 4시30분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 주제 세미나를 여는 한편 아셈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를 중심으로 달라이 라마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타종교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동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달라이 라마 방한이 잘 성사돼 민족과 이념, 종교와 체제간의 갈등으로 점철됐던 폭력의 역사가 종식되고 인류공동체가 하나되는데 우리 민족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타종교와의 연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티베트인권독립회의 네띠앙불교인동호회 등국대불교학생회 등 10개 불교모임으로 구성된 '티베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29일 오후3시 서울 명동에서 '티베트의 문화와 인권을 위한 캠페인'을 연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놓고 종단협-중국불교협 상호입장 서신교환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달라이 라마 방한문동과 관련 유감을 표해온 중국불교협회에 19일 답신을 보내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불자들과 사회각계의 뜻을 살피고 귀회와 공식협의를 통하여 달라이 라마의 방한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종단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적절한 시기는 남북정상회담과 한-중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는 6월 이후"라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는 14일 종단협의회에 보낸 팩스서신을 통해 "달라이 라마는 일반적인 종교계 인사가 아니며 중국을 분열하려는 정치망명자"라고 규정하고 "만일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조박초 박사가 창도한 황금유대 우호관계(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불자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9090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교계도 적극 활용하자

14일 시행…회원 100명이상 신청가능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14일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이 공포·발효됨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공모했다. 통일부도 지난 3월2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등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결정하는 등 앞으로 정부 추진 사업에 민간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불교단체들의 사회복지, 북한동포돕기, 청소년보호분야 등 정부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대폭 넓어졌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 지원, 조세감면, 소득계산 특례, 우편요금 감액(100분의 25) 등 각종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교계단체의 활발한 참여가 예상된다.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기금을 받게 되면 사회적 공신력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어 불교시민사회운동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민간단체 지원기금=행정자치부는 14일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민통합, 시민참여확대 등 9개 사업분야를 공고했다. 총 사업규모는 150억원으로 전국사업(행자부 주관 75억)과 지역사업(각 시도 주관 75억)으로 나눠 집행한다. 서울시도 17억8200만원의 예산을 확보, 교통분야를 비롯해 10개 유형의 시정참여사업을 공모하고 17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해 46억 4900만원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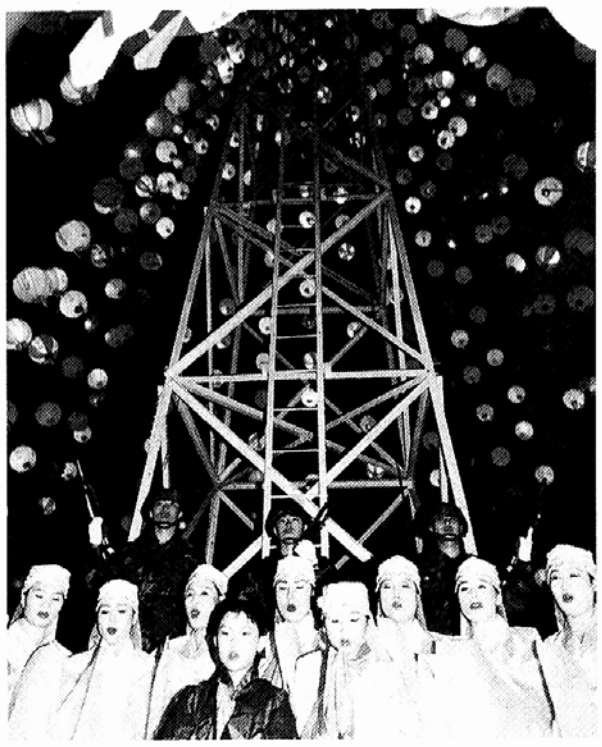
◆불교단체 참여현황=행자부와 서울시가 공모한 사업분야 가운데 국민통합(북한동포돕기), 자원봉사, 시민참여확대 등이 교계단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히고 있다. 이들 분야는 99년에도 이웃을돕는사람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자비의집 등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어 한결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선 JTS가 12일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등으로 정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5억3천9백만원을 지원받았다. 불교환경교육원도 최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서 5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파라미타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관단체로 선정돼 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격 및 참여방법=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원 100명 이상, 공익활동실적 1년 이상, 비법인시 대표자 지정 등의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로 서울시는 29일까지, 행자부는 5월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기준 및 대책=제출한 사업계획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등으로 구성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사업비 지원여부와 사업비 지원금액(3,000만원 이내)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 총무부장은 "사업을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애기봉에 밝힌 '자비의 등' 김포 애기봉에 부처님의 평화와 자비광명이 북녘에도 퍼지기를 기원하는 연등이 환하게 밝혀졌다. 조계종총무원과 해병대 청룡부대는 20일 애기봉 전망대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교계인사, 청룡부대 부대장과 군불자, 지역유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식을 봉행했다. 고영배 기자

불교TV 파산 구경만 할것인가

"살려야" 말뿐 나서는 이 없다

파산 위기에 놓여 있는 불교TV를 그대로 구경만 하고 있는 조계종과 스님들에 대한 불자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주 교계 언론에서 '불교TV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기사가 나가자 교계 안팎에서는 '불교TV를 살리지 못하면 불교계 망신이다' '불교TV 하나 살릴 만한 여력이 불교계에는 없느냐' '종단은 뭐하느냐' 등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영상포교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조계종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계종은 대주주가 통도사라는 이유를 들어 통도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이수덕부사장은 지난달 종단의 실무책임자인 모스님을 찾아가, "지난해 9월 불교TV 회장 태응스님이 반납한 주식 30억원을 12억원 정도로 감자해 줄테니 종단에서 인수하라"는 권유를 했다. 만약 조계종에서 태응스님의 주식을 인수해 통도사를 뺀 기존 조계종 소속 사찰 보유 주식과 합하면 대주주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수덕 부사장의 설명이었다. 또 前 불교TV 특위 간사인 법안스님도 지난 3월 종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종단에서 불교TV 살리기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종단은 별 반응이 없었다.

이를 지켜 본 교계의 일각에서는 "조계종에서 불교TV가 파산한 뒤 부채부담이 없어지면 위성TV와 인터넷 TV를 겸한 새로운 복합 뉴미디어를 만들겠다는 속셈이 아니냐"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불교TV가 파산되면 5년간 제작한 불교 영상 컨텐츠와 채널권까지 채권자들 손에 넘어가므로 결국 부채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침몰 직전에 있는 불교TV의 현 상황에서는 2만여 주주와 스님들이 종단을 중심으로 불교TV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년 전 부도를 낸 기독교TV도 종파간의 갈등을 초래할 정도로 3개 종파가 서로 살리겠다고 나서 현재는 경영 정상화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는 예를 들고 있다.

10일 건물 명도와 경매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을 보류한 금호전기측은 이달말 개최 예정인 이사회까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건물 퇴거 압력을 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직원들도 19일 회의를 열고 이달말에 일괄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종단이 불교TV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지 않는다면 치욕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어서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주일 기자

상설 행자교육원 건립추진

조계종추진위원 8명 인선…본사 4곳에 마련

조계종의 숙원사업인 상설행자교육도량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21일 교육원 회의를 열고 상설행자교육도량 건립추진위원 8명을 인선했다.

건립추진위는 앞으로 교육도량 장소와 형태, 교육기간, 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등 교육도량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행자교육은 종단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본사와 각 사찰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며 "상설행자교육원을 올해내 건립하고 내년부터는 집중교육을 통해 종단의 도제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는 교육원 회의에서 그동안 상설 행자교육도량 설치와 관련하여 논의된 △전국의 4개 본사에 상설도량 설치 △21일에서 3개월 교육기간 확대등의 안을 골자로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행자교육 강화안은 행자들이 출가하여 받는 첫 입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짧고, 교육내용이 형식적이며, 대단위 집체교육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년 조계종에 출가하는 사람은 대략 1,500~1,600명. 이중 행자교육을 수료하는 인원은 500~600명선에 이르고 있다. 행자들은 각 사찰에서 6~11개월 생활한 뒤, 21일간 행자교육을 받고 사미·사미니계를 받고 있다.

한편 상설행자교육원은 94년 개혁종단이 들어서면서 종단의 3대지표인 도제양성을 위한 교육도량 건립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이에따라 98년 통도사 취운암을 행자교육도량으로 지정했지만 조계종사태로 종단과 통도사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해지됐었다.

김원우 기자

비구니 원로 정행스님 입적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주지 보광) 삼선암에 주석해 온 비구니 원로 정행스님이 15일 오후 1시20분 입적했다. 세수 99, 법랍 90세.

1902년 경남 함안군 대산면 동촌에서 태어난 정행스님은 11년 해인사 삼선암에 성학스님을 은사로 출가, 같은 해 해광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23년 해인사 강원을 수학한 후, 화엄경 81권과 법화경 7권을 사경했으며 금강산 마하연과 오대산 상원사에서 만공스님과 한암스님을 각기 모시고 용맹정진하는 등 전국 선원에서 수행했다. 54년 동학사 불교전문강원 주지, 81년 전국 단일계단 비구니 구족계 이부승 별소계단의 단주인 전계대화상을 역임 10년간 수많은 비구니를 배출했다.

영결식은 19일 해인사 삼선암에서 해인총림방장 법전스님을 비롯 성수 지관 정원 보광 무관 원택 원융 광우 명성 묘엄스님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엄수됐다. 이윤호 기자

관문사 성보전시관 개관

국보급 반야경 등 유물 80여점 전시

현대식 도심사찰에 성보전시관이 마련,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귀중한 불교유물을 볼 수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에 소재한 사찰로는 최초로 천태종 관문사(주지 운덕)가 3층에 성보전시관을 마련, 27일 오후 6시 개관식을 갖는다.

관문사 성보전시관은 총면적 40평으로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불교 관련 유물 80여점이 시대, 종류별로 전시된다.

주요 유물로는 통일신라시대 금동여래입상, 유리사리병, 녹유사리호를 비롯 고려시대 금동여래입상, 청동은입사 향합, 금등소탑, 조선시대 목관본 법화경, 고려초조대반야경, 1786년 조성 영산회상도, 아미타삼존도 등. 특히 유리사리병은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것중 가장 큰 것으로 보존상태가 완벽하다.

이밖에도 중국 당나라대와 송나라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여래상과 보살좌상, 불상 주물틀과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 청자발우 1벌, 조선시대 사찰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卍)자문 목침과 붓걸이를 비롯 차생활에 사용된 청자와 백자가 전시돼 당시 사찰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경숙 기자

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책위 구성

위원장에 영담스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의 이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김포학사 이전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승가학원 이사장 정대스님은 20일 승가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포학사 이전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영담스님(부천 석왕사 주지), 간사에 계성(교육부장), 대원(종회의원)스님을 임명했다.

정대스님은 또 총무원 교육원 종회 및 중앙승가대 대표로 구성된 김포학사 이전대책위원회에 이전, 공사진행, 건설회사와 협상, 승가대 인사, 이전후 개운학사 사용방안 마련 및 결정권한을 대책위에 일임했다.〈관련기사 3면〉

이어 열린 김포학사 이전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학사 이전 소위를 구성하고 위원에 원택(총무부장), 계성(교육부장), 대원(종회의원), 자승(종회의원), 원행(승가대동문회장)스님 등 5명을 위촉하고 7명의 실무자를 선임했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삼라만상이 모두 이곳에…

지혜와 자비로! 부산과 함께-

불기254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내사랑 부산! 시민연등축제

첨등식
- 일시 : 4월 28일(음. 3. 24.) 금 오후 6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분수대 옆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
- 일시 : 5월 2일(음. 3. 28.)화 오후 7시
- 장소 : 시민회관 대강당

봉축 연합대법회 및 제등행진
- 일시 : 5월 7일(음. 4월 4일)일 오후 4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부처님오신날 기념 / 시화전시, 꽃꽂이
- 일시 : 4월 28일~5월 2일(음 3. 24~3. 27)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역 문화관
- 주관 : 문수불교문화원, 한마음선원

부처님오신날 기념 / 불교도서전시회
- 일시 : 5월 3일~5월 8일 (음 3. 29~4. 5)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역 문화관
- 주관 : 부산불교신문신도회

부처님오신날 기념 / 전통사진전시회
- 일시 : 5월 9일~5월 12일 (음 4. 4~9)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역 문화관
- 주관 : 대한불교사진가회

부산시민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 찬불가곡과 합창의 밤
- 일시 : 5월 2일(음 3. 28) (화) 오후 7시
- 장소 : 시민회관 대강당
- 내용 : 성악가와 합창단원이 함께하는 찬불가 공연

부처님오신날 기념 / 봉축 시민문화축제
- 일시 : 5월 6일 (음 4. 3) (토) 오후 4~8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 내용 : 가야금 병창, 마당놀이, 그룹사운드 공연, 사물놀이

부산발전 기원 / 3천배 철야 정진
- 일시 : 5월 6일 (음 4. 3) (토)오후 8시~7일 (일)오전 4시
- 장소 : 부산역 광장
- 내용 : 50여 명의 스님과 500명의 불자들이 부산 발전을 기원하는 3천배 철야정진

시민과 함께 / 전시·공연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및 연락처
봉축탑 탑돌이	4/28~5/1	19:00	부산역 광장	삼광사 808-7111
다도 및 차 시음	5/6		부산역 광장	한마음선원 403-7077
연등 만들어주기	5/6	16:00		
사물놀이	5/6			
거리 찬불가 공연	5/6	16:00	부산역 광장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661-9751
가야금병창, 마당놀이	5/6	16:00	부산역 광장	동도사회교육원 816-2241
참선배 참회기도	5/6	20:00	부산역 광장	동도사무실 불교진흥원 816-2241
외국인 불자안내	5/7	15:00	부산역 광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816-2241
시화 전시회	4/28 ~5/2	10:00	부산역 문화관	문수불교문화원 611-3173 한마음선원 403-7077
꽃꽂이 전시회				
불교도서 전시회	5/3~8	10:00	부산역 문화관	부산불교신도회 464-2020
전통사진 전시회	5/9~12	10:00	부산역 문화관	대한불교사진작가회 867-1515
찬불가곡 합창의 밤	5/2	19:00	시민회관 대강당	부산불교합창단창립준비위 867-0501
사안스님 초청 『불교사상 대강의』	4/29	15:00	부경대학교 대회의실	부경대학교 교수 불자회 원로불자회, 불교학생회
4.8봉축기념 축구대회	4/30	10:00	연산동(예정)	(사)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661-9751
연등만들기 대회	4/30	10:00	범어사 템플	조계종부산불교청신도회 867-2648
외국인 연등만들기	4/30	10:00	동도사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816-2241
(재)회 연꽃축제	5/5~13	10:00	동평불원	동평불원 624-7067
사찰안내	5/11	09:00	범어사경내외	부산대불교학생회 867-7799
동서화합 합동대법회				부산의불자 국토정화원정자 403-4300
심각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초청한마당				미륵사 403-4300
거리응급처치	4/28~5/11		부산역 광장 주변	금강대학 818-8659 한마음선원 403-7077 범불회 402-5082 신천 623-9400 불교방송 644-5114 해운정사 866-7772
염주 나누어 주기	5/5		범어사	부산불교 신미회 천년불자 신학회

나눔의 장 / 복지행사1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및 연락처
경로잔치	4/21	11:00	관음사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경로잔치	5/1	12:00	동래문화회관	동래구 불교연합회 552-1281
제6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제8회 경로잔치	5/4	11:00	삼광사	삼광사 808-7111
경로잔치	5/6	12:00	우신근린공원	개금시립복지관 893-5034
경로잔치	5/8	11:00	복지관뒷마당	불문대종합사회복지관 364-9033
경로잔치	5/8	11:00	복지관뒷마당	동호종합사회복지관 326-6737
경로잔치	5/8			부산장애자불교연합회 867-0501
경로잔치	5/12	10:00	복지관 강당	감천종합사회복지관 269-2063
경로관광	5/26	09:00	경주	동호종합사회복지관 326-6737
경로관광	5/25			개금시립복지관 893-5034
경로잔치	5/4			금정불교대학 동동문회 866-7277
노인 알뜰나들이	5/2	10:00	태종대	개금시립복지관 893-5034
재가노인 온천관광	5/19	09:00	연암온천	동호종합사회복지관 326-6737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8		대상자 가정	개금시립복지관 893-5034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8	10:00	대상자 가정	불문대종합사회복지관 364-9033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5/8	10:00	복지관사무실	감천종합사회복지관 269-2063
교도소위문 및 지원	4/19	12:00	부산교도소	부산대불교학생회 867-3168
군부대위문 및 지원	4/30	10:00	전주공군교육사	화랑대연과 대불련 화랑대지부 816-2241
군부대위문 및 지원	5/11	10:00	53사단지구사	(재)불심종합원 818-4769
군부대위문 및 지원	5/14	19:00	53사단비빔고우대	부산경찰 포교사단 867-7799
교도소구치소위문 및 걱려	5/중순	10:00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	삼광사 이동사 외 각 사찰 단체 808-7111, 404-4300
군부대 위문	5/중순		53사단야전부대 해군제해대사령부	삼광사 이동사 외 각 사찰 단체 808-7111, 404-4300
사회복지시설 위문	5/초순	14:00	부산재활원장애 정화원원등	삼광사 외 각 사찰 단체 808-7111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정 돕기성금전달 법회	4/22	14:00	삼광사	삼광사 808-7111
영세가정 청소년 무료수술	4/28~5/10	10:00	부산불교의원	부산불교의원 758-9167
차량 염주걸어주기	4/29	11:00	부산역	부산불교연합가사회 464-2020
경로잔치	4/30	10:00	선암사	선암사 853-7522
경로잔치	5/5	10:00	해운정사	해운정사 746-4812

나눔의 장 / 복지행사2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및 연락처
영정사진 찍어주기	5/7	10:00	부산역 광장	한국호스피스불교연합회부산지회 624-7567
무료 진료(양 한방)	5/7	10:00	부산역 광장	부산불교의원/부산불교한의원 758-8167
북녘동포 돕기모금	4/28~5/3		부산역 광장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804-6322
헌혈행사	5/11		영주암	영주암 754-2230
비상식품지급(생활보호대상자)	5/02~5/3		대상자 가정	개금시립복지관 893-5034
장애아동 나들이	5/27	13:00	어린이대공원	개금종합사회복지관 893-5034
장애인 아유회	5/30	09:00	양산	감천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사랑의 수화교실	5/9(화,목)	18:00	복지관 강당	동호종합사회복지관 326-6737
맨스동아리 봉사활동	5/20	14:00	사동복합센터 복지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526-6777
새싹들의 큰진치	5/4	10:00	복지관 강당	감천종합사회복지관 363-2063
어린이날 맞이 행사	5/4	15:00	어린이대공원	동호종합사회복지관 326-6737
어린이날 맞이 동요대회 및 독서 감상문대회	3.4.	17:00	복지관 강당	불문대종합사회복지관 264-9033
아동 자연현장 체험	5/9(토,목)			개금시립복지관 893-5034
무료 결혼식			복지관 옥상	두성종합사회복지관 265-5421
무료 급식	5/9(화)		초음자유총연맹 앞	통도사부산포교원(현정경선 516-2241
무료 급식	5/9(목)	12:00	구서 전철역	감천불교대학 총동문회 866-7277
무료 급식			부산역 광장(예정)	부산 불교교육대학 818-8659
자비의 쌀모으기 및 전달	4/28~5/6		부산역 광장	삼광사 867-0501

미래의 장 / 청소년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관 및 연락처
길거리농구대회	4/28~4/30	15:00	금정중앙운동장 (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817-2648
지역문화예술활동전시회	5/1~3	10:00	파라미타청소년수련원 817-2648
연꽃문화제	5/5	10:00	파라미타청소년수련원 817-2648
맑은세상을 청소년에게 거리캠페인	5/6	15:00	부산시청-부산역 부산불교청소년수련원 853-5696
삼광백일장 삼광찬불가경연대회 삼광독경대회	5/11	13:00	삼광사 808-7111
대학생도문발표대회 수상자 및 삼광한글학술상시상식	5/17	19:00	삼광사 808-7111

주최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 특별후원 : 부산광역시 ·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 각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은 안전 안내를 주시면 좌석 마련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 867-0501)

목어

열반의 첫째 조건

"21세기 인류의 삶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인자는 문명이다. 미래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문명간 대화가 필수적이며, 문명의 핵심은 종교다." 새뮤얼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의 핵심 내용이다. 그의 '문명충돌론'은 전세계 학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 지구촌에서 종교가 세계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종교에 관한 한, '세계종교백화점'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대화의 길은 아직도 먼 것 같다. 서로에 대한 바른 인식의 결핍 때문에.

"우리나라 종교계는 자기네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야 사람을 뽑지요. 종교계 대학교·기독교계 대학이든, 불교계 대학이든-도 예외는 아니지요." 이것은 국내의 어느 유수한 종교계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50대 중반의 어느 교수가 최근 필자에게 한 말을 요약한 것이다. 그는 국내외의 소위 일류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국내 인문학계에서 탄탄한 학문적 입지를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학자다.

그리고, 이번 학기 필자의 '불교의 이해'란 강의를 듣는 어느 학생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나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특별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에 간다. 그곳에 가면 불교계의 기라성같은 큰 스님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 그때마다 교회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님이든 인류사의 성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남이가" 식의 내 편, 네 편을 가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분들은 모두 자비와 사랑과 포용과 진리의 상대성을 강조하셨다. 더욱이 부처님은 인간의 가치판단 기준을 바른 인식을 통한 행위에 두시지 않았던가? 학자에게는 학식과 도덕성이, 불교인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첫째 덕목일 것이다. 앞에서 든 것과 같은 예들은 어디 종교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들이겠는가? 그리고, 열반이 어디 멀리 있겠는가? 열반의 첫째 조건은 나와 남에 대한 바른 인식일 것이다.

김종명(서강대 계약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초파일 사면 '불가능' 개정안 논의조차 못해

20일 조계종 종헌특위 열렸지만…

다시 여론 수렴하기로

9~10월쯤 판가름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 회의가 20일 열렸지만,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중앙종회에 제출한 종헌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중순 열린 임시종회에서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한달여만에 열린 회의였다. 물론 첫 회의여서 이후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긴 하지만, 총무원장이 종단화합의 큰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정도 잡히지 않은 다음 회의로 넘기고 1시간여만에 회의를 마쳤다.

이로써 조계종의 초파일 전 사면 실시는 불가능해졌다. 총무원장과 종회의원을 상대로 한 정화회의의 소송 진행, 이에 따라 형성된 종회의원들의 사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초파일 전은 물론 이후의 사면 가능성을 낮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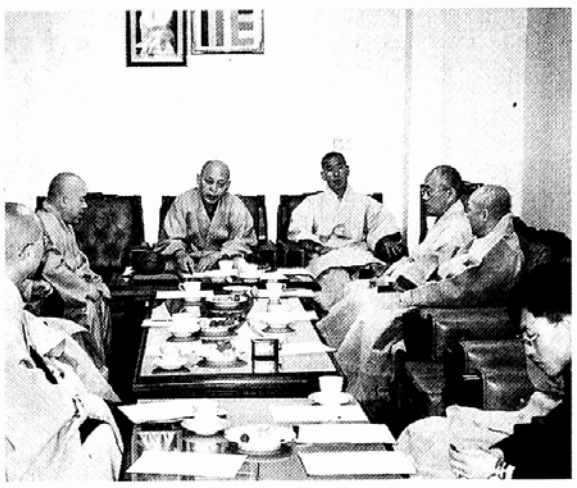
특위는 이날 현응스님(종회의원)과 지원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을 간사로 선임하고, 종헌 개정과 관련한 종도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면 문제를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으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도 부처님오신날 이후부터 2~3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종헌을 개정하기 위해 종회를 열어야 하므로 빨라야 올 9~10월경에나 사면 가능성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대스님이 지난 2월 종정스님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사면 실시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교구본사와 종회의원들이 한발짝씩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교구본사와 종회의원들의 양보없이는 사면 실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얘기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해도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특위위원은 종헌 개정과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리무중일 뿐"이라며 사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종회의원들의 심중을 전했다. 정화회의에서 여전히 총무원장과 종회의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와 자격상실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면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

특위위원장 정휴스님의 사퇴 발언도 사면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휴스님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내 능력과 지혜로는 (종헌 개정안) 단일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자각해 위원장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또 "특위에서 합의해놓고 본회의에서 반대 발언을 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런 종단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과 지혜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종헌 개정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발언으로 들린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종헌특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학사 올내 이전 가능한가

건축비 60억 확보 '관건'

20일 구성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가 올해 안에 김포학사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건축비 미지급금 및 기물구입비 마련 △이전 후 학교운영 방안 △개운학사 활용 등 현안 해결에 나섰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올해 지급해야 하는 건축비 100억원(전체 건축비 미지급금은 244억원)과 기물구입비 40여억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건축비 가운데 불필요하게 계상된 80억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총무원에서 8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 부족분 20여억원과 기물구입비 40억원 등 60억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동문회와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건축비 과다 계상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법인사무처와 학교당국의 능력 부재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법인과 학교의 간여를 일체 배제한 채 앞으로의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책위는 이전 후 학교운영과 관련, 문중의 인맥심기식의 인사가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교원·직원 임용시 공정한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총무원과 교육원은 25명 정도의 교직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교측은 교육부 기준을 이유로 들어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추천된 교직원만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동문회도 동문지분이라며 법인사무처장과 기획실장, 기획국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암동 개운학사는 승가학원 소유로 동문회에서 운영하되, 교육원과 포교원에 입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한 상태다.

대책위는 앞으로 종회 김포학사대책특위의 합동조사보고서와 총무원·교육원 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법인 관리대책 마련 △감독 및 업무소홀 당사자 의법조치 △중앙승가대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가야총림·봉암사 결사 왜색불교 극복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⑬해방 후의 한국선



고명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연구과장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해제는 참담한 신분으로 살아가던 조선의 승려들에게 일종의 서광과도 같은 빛이었지만, 그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이지 못한 탓으로 한국불교는 일본불교의 영향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이 시간이 흐를수록 농도를 더해가는 대처, 육식 등 왜색불교의 색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에 산재된 선승들을 결집하기 위한 중앙기관의 필요성과 함께 한국 전통선의 진흥과 왜색화되어 가는 불교의 폐단을 막으려는 의식이 싹텄다. 그러한 움직임은 1911년에 일어났던 만해스님을 중심으로 한 임제종 운동과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선학원 운동으로 발아하게 된다.

1922년 안국동에 선학원이 창설되는데, 그 창설과 운영의 주역들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선승들인 南泉·石頭·道峰·惺月·龍城·滿空·鶴鳴·石虎·龍吟·古峰·彗月 그리고 1930년대의 寂音, 呑翁스님 등이었다.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1925년 용성스님의 주도하에 도봉산 망월사에서 열린 만일선회결사(萬日禪會結社)이다.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의 계율이 파괴되고 선이 몰락하는 사실을 우려해 결사를 맺게 된 것인데, 그 목적은 활구참선으로 견성성불하여 중생을 널리 제도하자는 데 있다. 기간은 만일(10기)로 정하고 1기를 3년으로 삼았다. 오후 불식을 철저히 지키고 평시 묵언과 동구불출(洞口不出)을 규약으로 정하는 등 엄한 청규 하에 납자들이 수선 정진했다.

당시 조실은 학명스님이었으며 입승은 雲峰스님 그리고 古庵·耕雲·古松·普門·雪峰·東山스님 등 20여 명의 납자가 내호법반으로 참여했다. 이 참선결사는 1926년 4월 도봉산이 산림의 보완림으로 편입되면서 통도사 내원암으로 이전하여 진행되었다.

이렇게 왜색불교에 맞서오던 한국의 선은 해방 이후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야총림의 개설과 봉암사 결사이다.

1946년 11월, 중앙종회에서는 광복 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그리고 조선불교 부흥을 위해 선객들을 중심으로 가야총림 시대를 연다. 가야총림은 우리나라 최초의 총림으로 曉峰스님을 방장으로 모시고 仁谷·淳浩·九山·法弘·石虎스님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운집하였는데, 선원은 물론 강원을 열고 霜月스님에게서 大戒를 받고 50여일 동안 수계산림을 거행했으며, 참선납자들은 특별선원과 보통선원으로 나누어서 정진했다. 비단의 가사장삼을 폐하고 보조장삼 100벌과 괴색의 포면으로 가사불사를 해서 총림 대중들의 의제를 통일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봉암사 결사는 1947년 性徹·靑潭·惹雲·愚峰·普門·香谷·慧菴·法傳스님 등 20여 명이 16개 항목의 공주규약(共住規約)을 맺고,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슬로건을 내걸며 본지풍광의 준열한 선풍을 드날렸다. 가야총림과 더불어 한국선문은 물론이요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굳건히 세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부목과 공양주까지 내보낸 채 대중스님들 스스로 손수 밥하고 하루에 두짐씩 나무를 하는 것이 기본 일과였으며, 양식이 떨어지면 탁발을 나가는 등 백장청규 정신을 되살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철저히 지켰다. 가사·장삼·발우도 새로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때 제정된 가사·발우·장삼 등은 오늘날 조계종 의제의 바탕이 된다.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3배의 예를 갖춘 것도 이때부터요, 3000배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봉암사 결사는 신도들이 스님에게 베푸는 개인적인 공양도 모두 없애고 오로지 대중공양만 받자고 하여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정신을 실천했다.

한편 1947년 12월 만암스님을 중심으로 호남 고불총림을 개원한 사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것은 호남 일대의 20여 사찰·암자·포교당을 규합하여 백양사에 건립한 종합적인 수도도량으로 이곳에서 대중들은 엄격한 계율과 법식을 지키며 불교의 중흥을 위해 수선 정진했다.

안타깝게도 해인총림과 봉암사 결사 그리고 여타의 선원도 6.25의 발발과 공비의 잦은 출몰로 와해되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다행히도 6.25동난 시절 부산 범어사 금어선원과 선암사 소림선원, 충무 용화사 동국제일선원 등에서 東山·香谷·曉峰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선승들이 참선 정진하면서 끊어질 듯한 선맥을 이어나갔다.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불기 2544(200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주 요 행 사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집 행 처	비 고
애기봉점등식	4.20 오후 6시30분	김포애기봉	전방 OP 봉축탑 점등	해병청룡사	
진 감 (음악회)	5.1~2 오후 7시30분	국립극장	5월의 문화인물 진감국사를 기리는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739-1830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시청앞 점등식	5. 5. 오후 7시	시청앞 광장	아기부처님과 구룡	봉축위원회	
전통등 전시회	5.6~11 개막 5. 6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전통등과 생활전통등	전통등 연구회	723-0306
연등축제	5. 7	거리행사 12시~10시 우정국로 연등법회 4시~6시30분 동대문운동장 제등행진 7시~9시 종로 회 향 9시~10시 우정국로		봉축위원회	725-6642
법 요 식	5. 11 10시	조계사 대웅전 앞	관불, 봉축법어 봉축사, 남북공동 발원문	봉축위원회 조 계 사	

■자비의 손길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 행 처	비 고
복지시설 방문	4월중	국립재활원, 재천장애인 복지관,등지청소년의 집	조계종 복지재단	02-723-5101
장애인세상나들이	5월 초 예정	원주 구룡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4월 16일	용인에버랜드	원심회	02-720-4528
수화찬불가 발표회	4. 30 오후 1시	불교방송법당	광림사 연화 복지학원	02-2202-5831
무차연등회 영 산 재 탑 돌 이 자비릴레이봉사	5.8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5. 10 오전10시	탑골 공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02-723-6258
제2회불교인권문화제	5. 7 오후 4시	종각 국세청 앞	실천불교전국승가회	02-725-4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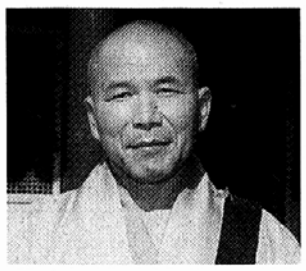
■경축기념행사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집 행 처	비 고
육환장전시회	4.12~19	경인미술관	육환장연구원	0584-653-6788
제9회 한국불교꽃예술제	4.17~18	과학기술총연합회	한국불교꽃예술회	02-2278-3377
봉축 시낭송회	4.29	조계사 문화교육관	현대불교 문인협회	02-308-9530
연꽃노래잔치	예선 4.16 1시 본선 4.30 1시	동국대중강당	서울불교청년회	02-730-9108
붓으로 그린 음악회 "원성스님 풍경"	5. 1~3 오후 7시	연강홀	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	0331-245-7048
신행혁신 세미나 (바람직한 한국불교의 신행론)	5. 4 오후 4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중앙신도회	02-733-7277
불교사진전	5.4~5.11	조계사 경내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	02-335-4982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	5. 5	목아박물관	월간 불광	02-420-3300
봉축창작음악연주회	5. 6 오후 7시	조계사	조계사청년회 보리수합창단	011-9913-8493 한 웅 희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5. 7 12시~7시	우정국로	파라미타 서울지부	02-723-6165 신동길
부처님오신날 기념 웅변대회	5. 7 오후 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대한불교웅변인협회	02-735-1896
청소년 사경공모전시	5. 6~8	조계사	파라미타	02-723-6165
백일장(내가아는불교) 불교이해하기정보 사냥경시대회	5. 14 오후 1시	목동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02-2646-6819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02)725-6641

"재정공개 · 민주적 대중살림"

법주사 새 주지 지명스님



"전국의 본사 가운데서 가장 먼저 현시대 상황에 맞는 대중살림의 모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로 취임한 지명스님은 종단이 세인들로부터 지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을 공개적으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새로 출가하는 심정으로 행정 · 포교 · 수행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명스님은 "법주사를 대중살림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어른 스님네를 잘 모시고, 전 교구의 사부대중이 화합케 하는 일,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네를 적극 받들어 모시는 일, 법주사를 충북도민의 귀의처가 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명스님은 "궁극적으로 전 국민들이 십악(十惡)을 지우고 십선(十善)을 행해서 마침내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를 맞이하도록 발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주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주지 이 · 취임식에는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이원종 충북도지사 등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어르신 다양한 욕구 충족"

일산노인복지관 초대관장 능인스님



"항상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산지역 어른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고양시로부터 수탁해 20일 개관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초대 능인 스님은 이와 같이 취임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복지관이 어른신들에게 가정과 같이 포근한 느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른 노인복지관과 달리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가만, 차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관이면 어디나 시행하고 있는 양 · 한방 무료진료, 주간보호사업, 취업알선사업, 복리후생사업 외에 문화 · 사회교육사업으로 호수노인대학을 설치, 컴퓨터, 레크리에이션, 가요교실 등을 개설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싶습니다."

지역 복지관이기에 종교색을 띠지 못하지만 '스님은 움직이는 법당' 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의 토대 위에 현장경험을 쌓아 불교복지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명 충만한 진리세계 그려요"

롯데월드서 대길상展

지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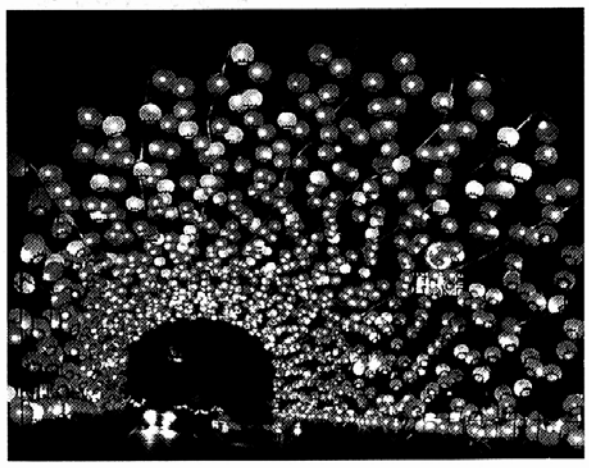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세상 모든 이들이 생명력과 길상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20여년간 길상도(吉祥圖)를 연구하며 수행의 길을 걸어온 지형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5회 대길상도 작품전을 26~30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3층 특설 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1백마리의 용을 10m 화폭에 담아낸 '대용마도'를 비롯 '비룡등천' '대가루라왕' 등 우주적 기운과 선적수행의 경지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림 2백여점이 선보인다.

스님은 "길상을 상징하는 용과 말 등을 소재로 무량한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번 전시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불교문화대강좌와 불교전통문화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02-3443-9871)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통일발원 팔만연등

Focus

가야산에 팔만연등이 만개했다.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제전위원회가 팔만개의 연등을 제작, 팔만연등축제기간인 15일~ 5월 11일까지 해인사IC에서 해인사 신부락까지 왕복40km의 구간에 등불을 밝혀 놓은 것. 특히 해인사IC 입구에는 수천 개의 연등으로 터널을 만들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축제 기간중에는 불교의식공연, 사찰음식체험 등의 행사가 마련된다. (0599)931-1001

합천=이윤호 기자

일주문

무차 경로잔치 열어



진제 해운정사 조실은 5월 5일 만불점안법회 기념 '남북 평화통일 기원법회 및 시 일원 무차 경로잔치'를 연다.

보현불교대학서 법문



우룡 울산 학성선원 조실은 5월4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법문한다.

'붓다의 생애' 주제 법문



자광 김용사 주지 스님은 5월9일 오후 7시 대전 보현불교대학에서 '붓다의 생애'를 주제로 법문한다.

남북통일기원 시민대법회



성덕 대구 동화사 주지는 5월 2일 오후 6시30분 대구 프린스호텔 빌관 2층에서 남북통일기원 대구시민대법회를 봉행한다.

보조국사 종재 · 가사불사



현봉 송광사 주지는 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간 제790회 보조국사 종재와 보살계 및 가사불사 회향식을 거행한다. 29일 오후 7시 보살계 입제식, 30일 오전 10시 가사불사 회향식, 5월1일 오전 9시 법성도 요잡의식 및 보조국사 종재 등을 봉행한다. (0661)755-0107

초파일 감사기도 입재

송암 안성 도피안사 주지는 5월 4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에서 초파일 감사기도를 입재한다. (0334) 676-8700

황룡사 창건 기공식



우향 선학원 황룡사 주지는 24일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용두산에서 황룡사 창건 기공식 및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0661)742-3971

보문사 49일간 용왕대재



인행 강화도 보문사 주지는 28일부터 6월15일까지 49일간 용왕대재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0시 입재식에는 수덕사 회주 설정스님이 법문한다. (032)933-8271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뽑혀



원행 조계종 중앙종회의원(무주 안국사 주지)은 14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제20차 총회에서 제6대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제1회 현대조각 심포지엄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제1회 산청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 조직위원장)은 21일~5월5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중산관광단지에서 제1회 산청 국제 현대조각 심포지엄을 연다.

한평생 사랑 실천 한경직 목사 별세



한국 개신교 원로 한경직 목사가 19일 98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02년 평남 평원에서 태어난 한 목사는 평양 숭실대와 미국 엠포리아대, 프린스턴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1933년 신의주 제2교회 목사를 시작으로 평생 목회활동에 전념했다.

한 목사는 1945년부터 72년까지 영락교회 담임을 지냈고, 기독교선명회 이사장, 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총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복음화 운동에 진력했다.

한국교회 산증인이었던 그는 또 영락 경로원, 다비다 모자원 등을 설립하고 홀트양자회 이사장을 지냈다. 또 대광학원, 보성학원 이사장과 영락중고교, 영락여자신학교 설립자, 숭실대 학장 및 이사장을 거치는 등 육영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

한 목사는 90년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을 펼치는 등 나눔 운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92년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복동 의원 별세



자민련 불자회 고문 김복동 의원이 19일 오전 9시40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김 의원의 장례는 21일 국회장으로 치러졌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복동 의원은 육사 11기로 야전군 작전처장, 사단장, 육사교장을 거쳐 81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뒤 14대 국회에 민자당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운제스님 1주기 추모재 · 부도 봉안

태고종 승정 운제당 이영무 스님의 열반 1주기 추모법회와 부도 봉안식이 16일 파주 범륜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승정 금봉 스님, 총무원장 인곡 스님, 종단협 사무국장 법현 스님, 태고종 총무국장 지상 스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이준 회장, 법련사 조달공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100회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범어사(주지 성오)는 17~19일 보제루에서 제100회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전계 아사리 남곡 덕명 대화상, 갈마 아사리 벽파 동주 대화상, 교수 아사리 지천 무비대화상을 삼사로 정관 선재 흥교 성오 몽산 성현 정견 스님을 칠증사로 4천 6백여 대중이 보살계를 수지했다.



동국대-서울대병원 협력 협약식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9일 서울대병원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 일산에 세워지는 룸교종합병원의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한 '동국대 · 서울대병원 지원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일산병원설립 · 운영에 필요한 자문과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을 비롯 전공의 선발 및 수련 등을 지원 받게 된다.



파라미타 대구지부 전통 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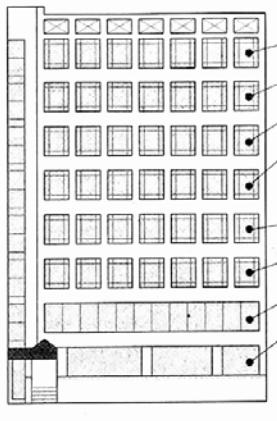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지부장 성덕스님)는 16일 능인고등학교에서 부처님오신날 맞이 청소년전통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손기완 대구교사불자회장, 김주본 개인택시불교정법회장 파라미타 19개 분회 소속 청소년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했다.

불기2544년 5월2일

부산불교회관 그 佛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바른 지혜를 꿈꾸며 태어났습니다. 도심포교의 제일 도량으로 정법을 구현코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불법홍포의 초석을 다지고자 바른 의지를 모았습니다.
불법의 세상을 키워 갑니다. 수행의 여정을 모두 담았습니다.
부산불교회관으로 오십시요. '부산불교의 요람' 이 이곳에 있습니다.

부산불교회관층별 안내



8F 법어사 부산포교원
7F 여여선원 선방
6F 여여선원 종무소 / 부산불교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 어린이 연구실 / 동론불교교사대학 / 교사불자회
5F 부산불교교육대학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
대한불교 청년회 부산지구 /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 / 불심홍법원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 추사체 연구원 / 환희지 문화원 · 환희지 사회복지원
4F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
3F 피부 · 경락 · 발지압 전문점 자비손 / 부산불교 한의원
2F 전통 다원 보성 / 산중음식점 산촌
1F 불교용품전문점 백광 / 승복전문점 여래 / 건강식품매장 여의주
불판매점 수련 / 석불전시 · 판매장 농전석재불교전시관
목불전시 · 판매장 불교문화예술원 / 전통식품매장 우리농산물 / 표구점 금화랑
지하1F 주차장

부산불교회관 오시는 길





직장불자회 연합회보 창간

월간 '직장불교'…법문 · 수기등 '신행길잡이'

조계종 포교원 "희망단체 회보발행 도와요"

직장 직능 불자회 회원들의 신행 길잡이 역할을 할 연합회보 월간 〈직장불교〉가 창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탄생된 〈직장불교〉로 인해 직장 직능단체 불자회들의 회보 제작이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포교원은 자체적으로 제작이 어려워 회보 발간이 중단됐던 단체들을 비롯해서 회보 창간을 희망하는 불자회의 신청을 받아 회보를 발간해 줄 계획이다.

7천여부가 제작된 〈직장불교〉 창간호에는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사찰순례기, 불자 칼럼, 경전이야기, 신행수기, 직장 직능법회를 찾아서, 벽화로 읽는 불교이야기, 건강상식 등 다채로운 소식들이 가득 들어있다. 또 직장 직능 불자회 동정에서부터 법회 일정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는 일정표도 싣고 있다.

〈직장불교〉의 편집진은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 출판사,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병원불자연합회, 철도청 불교신행단체, 한전반야회 등의 편집 실무자로 구성됐다. 이들이 편집회의에서 매월 편집방향 및 필자를 선정하게 된다.

연합회보 발행을 위한 편집진이 구성됨으로써 연합회보의 내용이 좀더 알차게 꾸며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기존 회보들이 필진을 구하지 못해 명맥만 유지하거나 폐간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연합회보의 내용은 편집팀에서 담당하는 공용기사와 각각의 단체에게 할애되는 개별단체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직장단체 불자회들은 권두언과 단체소식만 준비하면 회보를 발행할 수 있다. 제호도 해당 불자회에서 요청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다.

한편 〈직장불교〉는 직장직능 불자회 회원들의 원고를 가능한 많이 소개할 예정이다. 원고의 내용은 신행생활에서 느껴 온 단상이나 직장 생활 에피소드, 유머 또는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행수기 등 다양한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 〈직장불교〉를 단순한 소식지뿐 아니라 직장 불자회 회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인불자연합회는 제호를 〈반야〉, 대한중속초경 석불회는 〈석불회〉로, 철도청 법우회 연합체인 철도청 불교신행단체들은 〈법우회보〉로 제호를 바꾸고 각 회의 소식을 보강해 회보를 제작했다. 대한불자가수회, 병원불자연합회,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등도 제호를 바꿔 회보를 갖게 됐고 전국교정인불자회,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 등 자체적으로 회보 〈밝은소식〉 〈성불〉을 발간해왔으나 이번에 포교원의 지원을 받아 회보를 전폭 새단장했다.

〈직장불교〉는 원하는 불자회의 신청을 받아 다양한 제호로 제작될 방침이어서 발행부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OK BUDDHA' 에는 사이버 동자승 아미타가 살고있다.

불교만화 클릭하세요

'OK BUDDHA' …경전 · 설화등 소재 다양

척박한 불교만화계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불교만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만화가 김선아씨가 만들어가는 'OK BUDDHA' (http://myhome.hananet.net/~y415885/main.html)가 바로 그곳이다. 〈법보시〉에 불교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김씨의 불교만화에 대한 도전이 엿보이는 이 사이트에는 사이버 동자승 아미타가 눈에 들어온다. 아미타는 'OK BUDDHA' 세계에 있는 작은 사찰 관음사에 살게된 아기로 미래의 큰 스승이 되리라는 예언을 받은 몸이다. 사이버 동자승 아미타의 모험, 전시관을 비롯해 사이버 보시하기 등을 통해 아미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사이버 보시 코너의 보시물이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시물을 비롯해 차근차근 채워나갈 예정이다.

'OK BUDDHA' 에는 불교설화를 바탕으로 한 우파사나의 성불상 · 하, 부처님의 가피 등의 만화, 진리의 빛, 연기법 등의 카툰, 만화로 보는 경전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등이 실려있다. 풍자만화 '호호동자의 똥침' 과 불교소재 단편소설 등도 눈에 띈다.



현대自 불자회 철웅스님 초청 대법회

울산 현대자동차 불자회(회장 박오규)는 19일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철웅스님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철웅스님은 '사랑과 자비와의 만남' 을 주제로 설법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동환 울산신행단체연합회장, 노동식 울산지역불교문화원장, 최복근 경불련 회장, 서진태 정토사신도회장, 이진실행 연화합창단장, 강정호 변호사를 비롯 현대자동차 임직원 4백여명이 참석했다. 〈원행생 울산지사장〉

클릭! 새 홈 페이지

■ 예토(http://cafe.daum.net/yeato)-4월13일 개설. 시립인천대학교 불교학생회 예토 회원들의 방.

■ 진아회(http://cafe.daum.net/jeana)-4월12일 개설. 대구대학교 불교학생회 진아회의 홈페이지. 법회공지 등 공지사항 수록, 회원 개인홈 링크.

■ 서울 불교 청년(http://cafe.daum.net/buddhist)-4월9일 개설. 서울불교청년회 홈. 청년회 소식, 불교토론방, 사이트링크 등.

■ 대전지부 산하 선재지회(http://cafe.daum.net/ddusen)-4월11일 개설. 대덕대 대불련 선재지회의 홈페이지.

■ 서원대 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skbf)-4월15일 개설. 서원대 불교학생회 홈페이지. 불교학생회 출신이 아니더라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대불련 충북지부 소식도 전한다.

■ ATMAN21(http://cafe.daum.net/atman21)-4월6일 개설. 경상대 불교학생회 아트만 선후배들이 꾸미는 홈페이지.

■ 익산관음사룸비니불교학생회18기들의 모임(http://cafe.daum.net/lumbini18th/)-4월7일 개설. 익산 관음사 룸비니 불교학생회 18기들만의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정불회 백양사 순례

공정거래위원회 불자들의 모임인 정불회(회장 강평수)가 15~16일 백양사로 춘계수련회를 다녀왔다.

공정산악회, 정불회, 평생불자회 등 37명의 회원이 참가한 이번 춘계수련회에서는 철야정진으로 신심을 다졌다. 16일에는 백양사 경내를 둘러보고 상황봉을 등반하고 산내 암자인 약사암 등도 참배 했다. (02)507-1465

반야 라이온스 성금전달

서울반야라이온스(회장 강학일)는 18일 청진장 3층에서 4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로구 무의탁노인 조영래씨(75)에게 봉사금을 전달했다.

정암스님(법왕사 주지)은 "불교를 진정으로 공부하려 한다면 이론이나 학문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진정한 불교공부는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체험없는 공부는 껍데기일뿐 불교의 진수를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관차법우회 효도관광

청량리 기관차 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회장 장만식)는 28일 노인불자 40여명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겸한 사찰순례를 경기도 대성리 상락향 수도원으로 떠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중계노인복지관 노인불자와의 효도관광은 봄 가을 두차례 사찰순례로 이루어져왔다. 중계노인복지관과는 자매결연을 맺은지 4년 됐다.

한편 22일에는 청량리 기관차 승무사무소 불교법우회의 상임지도법사 허기림 기관사의 무사고 1백만킬로 달성 기념식이 청량리 역에서 거행됐다. (02)965-9221

KBS불교硏 야외법회

KBS 불교연구회는 30일 여주 목아박물관 등지를 돌며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야외법회는 원주 KBS와 연합으로 봉행될 예정이다.

성북 승무사무소 안전캠페인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8일 승만부인회와 함께 석계역에서 안전운행 캠페인을 벌였다.

반야회 상덕스님 초청법회

한전 반야회는 27일 오후 6시30분 한전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상덕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갖는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박 우 재
〈21세기 보리수회 대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선정에 드셨다. 보리수는 불교의 상징인 성스러운 나무이다. 깨달음의 나무인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의 나무가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원(願)이다.

그 원을 이루기 위해 나는 요즘 보리수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세기 보리수회' 라는 모임까지 만들었다. 5년생 이상인 보리수 묘목 10만그루를 경기도 광주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다.

89년 히말라야 원정으로 네팔과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를 느끼고 알게 되었다. 이후 10여년을 매년 5개월이상 네팔에서 '만바하두루' 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 부처님이 태어난 땅 인도에서 불교를 만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 보리수의 중요성도 느꼈다.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접한 후 인도와 네팔을 돌며 성지순례를 하는 한국 스님들에게 보리수를 선물하기 시작했다.

서 내가 선택한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4년제 정규대학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은 모자랐다. 때문에 방송통신 대학을 선택해 2000학번으로 농학과에 편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보리수와 성지에 정각을 이루신 부다가야의 보리수가 다르다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보리수는 사실 진짜 인도 보리수가 아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보리자 혹은 찰피나무가 보리수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보리수가 자랄 수 없어 찰피나무를 심어 이를 보리수라 불렀다. 이것이 불교유입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

사찰마다 보리수 울창했으면…

그렇게 시작한 보리수 선물이 이젠 보급이 되었다. 인도 보리수를 우리나라에 보급하면서 새록새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게 된다. 1500년을 살수 있다는 장생식물 보리수는 난(蘭)처럼 사계절 모두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도 나는 네팔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한해 두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보리수를 보면서 마치 부처님의 법문이 널리 퍼지는 것같은 환희심마저 든다. 네팔과 인도를 수없이 오고 갔건만 올해는 유달리 마음과 몸이 한없이 가볍다.

보리수는 부처님과 수많은 고행자의 금강좌 후 정각을 이룰 수 있게 그늘로가 비를 피하게 한 나무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 보리수를 금수강산 우리나라에 심어지게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리수 보급에 앞장서면서 내가 너무도 보리수에 대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리수에 대한 책도 찾아보며 공부를 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공부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무에 대한 공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와 역시 보리수라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되면서 더욱 인도 보리수 보급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됐다.

인도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자리에 의연하게 서있던 나무 보리수, 반얌이라 불리는 보리수를, 깨달음을 얻는 보리수를 한국으로 들여와 묘목을 분양하면서 희망과 행복을 나눠주는 것 같이 마음이 뿌듯했다.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보리수 묘목 나눠주기를 현대의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싶다. 또 청소년들에게도 보리수 보급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부처님의 땅 네팔을 찾아가 부처님 성지와 보리수를 견학할 수 있도록 트래킹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성지에서 직접 부처님 숨결을 느끼고 보리수를 통해 생명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재정이 어려운 사찰과 포교사업의 목적으로 마하보디사원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수의 5대손쯤 되는 나무를 새천년 불자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보리수 묘목 나눠주기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불꽃이 될 것이다.

원효성사 열반 1314주년 추모대재

5월 3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시며 대승행자로서 화쟁통교의 한국적 불교를 영도하신 원효성사께서 일대사 인연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신 지 131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성사께서 남기신 위대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재조명하고자 고승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추모대재를 봉행코자 하오니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추모의 향을 사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불기 2544년 (2000) 5월 3일 하오 2시

▶ 장 소 : 용산구 효창공원내 원효성사 동상앞

▶ 행사문의 : ☎ 02)732-4885, 735-05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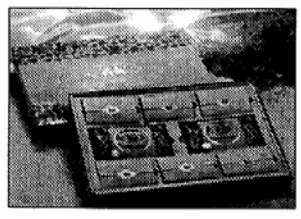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서 정 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 무 진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 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항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괴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신도시 포교의지 있는가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종교시설이 모두 780개로 밝혀졌는데, 이 가운데 교회가 91.6%인 715개, 사찰이 5.1%인 40개, 성당이 1.9%인 15개 등의 순이라고 한다. 양적 팽창이 반드시 바람직한 일이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로미터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현격한 숫적 차이는 불교계의 박약한 포교의지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신도시는 그 엄청난 주민의 숫자만 보더라도 어느 종교에서나 간과할 수 없는 포교대상지로 꼽힌다. 특히 신도시는 기존 사찰이 적고 타종교의 활동이 유난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교세가 열세에 놓이기 십상인 곳이다. 따라서 신도시 포교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당면과제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포교에 원력을 세운 많은 스님이나 법사들이 신도시에 눈을 돌리는 이유는 그곳의 많은 인구와 더불어 도심지보다 땅값이 싸고 임대가 쉽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포교 황무지라는 점 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출발한 포교사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와 고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신도시 사찰은 대부분 신생 개척사찰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입원을 마련하기까지 운영자들에겐 깊은 신심과 끈기, 자금력과 포교방법의 특성화 등이 요구된다. 활동 범위도 불공이나 제사, 설법은 물론 주민포교,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하다. 여기에다 누구나 피곤한 심신을 이끌고 찾아와 의지하고 싶은 휴식처 기능의 이상적인 사찰 모습을 갖추는 일까지 무제한적이다. 그러므로 포교담당자들은 그 원력과 역량이 뛰어나야할 뿐아니라 활동의 범위나 시간에 있어서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며, 지역적 특성이나 문화에도 높은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더구나 종단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에서 이런 초인적인 역할은 한계에 부딪치기 일쑤다. 실제로 임대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건강이 악화돼 어렵게 마련한 포교원을 쓸쓸히 떠나가는 스님이나 법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불교계는 신도시 포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어떤 뾰족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이 앞장서 구체적인 신도시 포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정적 지원이 어려우면 우선 행정편의 제공이나 프로그램 지원,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신도시 포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비의 손길' 지속적으로

늘 한해 한해 부처님 오신날이 지날 적마다 부처님 오신날이 일회성의 경축 행사로 끝나버리고, 진정 부처님이 오심으로써 달라진 세계의 모습을 우리 불자들이 드러내 보이지 못하였다는 미진함이 남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계종 총무원에서 소년소녀가장,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가정들과 사찰들을 자매로 맺어주는 사업을 펼치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불자들의 갈증과 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단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번 조계종의 사업계획은 이러한 결연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함으로써, 우리의 단위 사찰들이 지속적으로 자비의 광명을 펴 나가는 구심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한다는 의의를 지닐 수 있다. 불교인들의 불사가 자기네들끼리의 자위행위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광명을 전하는 참다운 불사로 서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단 차원의 큰 행사보다도 이렇게 종단의 기본조직인 사찰을 통해 새로운 불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침체에 빠진 조계종단의 기풍을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도, 또 일반 신도들의 불사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 나간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비록 종단 차원에서 기획되고 결정된 일이라 하더라도,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불교를 진작시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

부처님 오심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 보이심이라면, 그 열어 보이신 세계를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몫이다. 그러한 세계의 완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의 외연을 넓혀, 모든 중생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함으로써 이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바로 어려운 이웃, 그늘에 있는 이웃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함으로써 이다.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갓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되며, 그러한 이웃들을 무심히 지나치는 불자들의 타성 속에 부처님은 오실 수가 없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우리 불자들의 자비 염원을 키워나가고, 그러한 자비행의 광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날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불국정토를 이루어나가는 여정이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 · 본지 논설고문

남과 북의 자매결연

묘향산 생각이 난다.

남북정상회담은 두 달도 못남은 코 앞에 와 있다. 그 회담의 성과를 남북 양쪽이 다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어떤 남북관계 회담과도 비교할 수 없게 진지할 것이 틀림없다.

분단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다. 그 역사적인 의의는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막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 의의 못지 않게 그 성과 역시 역사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분단 반세기 이상의 고통은 그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게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바로 그러한 분단현상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분단극복의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끊긴 경의선 경원선 그리고 금강산 가는 철도들이 복구되면 남북의 물자가 오고 가고 차츰 사람도 오고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장차 조국이 하나 되는 통일과업으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겠다.

경의선을 타고 평북 안주역에서 내려 청천강을 따라가면 거기에 묘향산이 있다. 나는 2년전 북한방문 15일간 많은 지역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런 중에도 묘향산 일정이 잡혀서 그곳에서 하루를 보냈다. 내 전생이래 처음으로 찾아간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곳에는 16세기 서산 만년의 거처가 산중의 여기 저기에 남아 있었다. 서산은 조선불교의 중흥조사이다. 대 선사이고 대 학승이고 시인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심장속에 새겨진 구국의 의병장이기도 하다.

그는 정여립사건에 공연히 연루되어 한동안 옥고도 겪었고 그 사실을 안 임금 선조가 그에게 대나무를 그린 위로의 시를 보냈다. 그도 여러 산천과 수행의 자취도 노래하고 여러 사람에게 시를 주었다.

또한 그의 산악론은 그의 〈선가구감〉〈도가구감〉

남북 물자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가고
분단 반세기의 고통
이젠 끝나야 한다

〈유가구감〉 등이 세상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함께 유명하다.

"금강은 빼어나되 장하지 않고 지리산은 장하되 빼어나지 않으며 구월은 빼어나지도 장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 그런데 묘향은 빼어남과 장함을 함께 구족했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 솔직한 명산론을 인정하는 대신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묘향산의 하루로 그 산의 절묘한 바를 얼마쯤 체감했다. 과연 그 산은 빼어나기와 장하기를 겸하고 있었다.

임진 정유 왜란 전후 이곳을 임종의 곳으로 정한 서산의 안목은 깊은 것이었다. 그가 이곳에서 80세를 일기로 눈을 감기 전 그가 입었던 대가사 등 의발을 멀리 남쪽 해남 대둔사(대흥사)로 보내어 보관케 한 유언이 있었다.

저 남쪽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인연을 깊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

제자 편양 등은 스승의 뜻대로 의발을 대둔사로 보내어 지금까지 대둔사에 소장되어 왔다. 그 가사는 서산의 풍모를 짐작케 한다. 품이 크고 키도 장대했던가 보다.

물론 그가 젊은 날의 편력을 통해 지리산에도 살았고 해남땅도 한번쯤 지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해남 대둔사와 별다른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곳이 연달아 일어나는 국토의 침략과 재앙 등의 수난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서 자신의 의발이 거기에 남게되기를 바란 것이지도 모른다.

내가 눈여겨 보는 것은 그가 생애의 끝에 이르러 생전 그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곳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이다.

묘향산 보현사는 한국불교가 대체로 남쪽에 치우친 것을 어느 만큼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묘향산은 김주석 부자의 기념관이 있어서 더욱 중요시 하는 곳이다.

하지만 보현사는 고대 사찰이 아니다. 고려 광종 시대 황해도 용흥의 두 젊은이가 이 산중에 들어와 그들의 고행도량을 연 것이다. 그들은 화엄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많은 절이 국찰 왕찰, 그리고 왕실의 원찰인 것과 달리 절을 세운 사람이 나라의 권세와 상관없는 백성이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나는 이 묘향산 보현사 주지 청운 최형민을 기억한다. 아마도 북한에서 가장 수행자다운 사람이 아닌가 한다. 나보다 서 너 살 위인데 6.25 사변때 그는 인민군이었다.

다같이 50년대 전란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시대적 동질성이 새삼스러웠다. 나는 돌아와서 그와 나 사이의 우정을 상상속의 편지로 노래해 보았다. 공교로운 것은 내가 북한에 가기 전에도 묘향산 주지와 해남 대둔사 주지가 서로 전화로 말을 주고 받는 것을 시로 쓴 적이 있다.

바로 그 시 속의 일이 현실로 되어 나와 그곳 주지와의 인연이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은 어떤 것과의 관계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인간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로만 가능한 존재이다.

인간과 세계! 두말할 것없이 이것은 관계이다. 이 사실은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혼자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현대사상의 실존적 인식을 그 사상의 매혹 밖에서 관계의 힘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기 이전이라도 각자가 고립과 단절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과 관계의 절실성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능성이기도 한 것이다. 말하자면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의 실존적 한계를 벗어나 관계의 시대를 연 것이다.

그동안 북쪽은 농성체제였고 '우리식대로 살자!' '자주 자립'의 콧대 높은 고립, 폐쇄노선을 굳게 지켜왔다. 남쪽은 그와 달리 북한에 대한 포위노선을 지향했다.

분단시대 남과 북에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적대관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적대관계로는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세계사적인 각성이 일게 된 것이다.

우리는 더이상의 최악은 한반도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너무 많이 최악의 분단 체험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은 더 이상의 적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관계의 원칙으로 삼고 서로 동질성을 더해야 하고 공생상생의 공간을 열어가야 한다.

이제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 6.25 50주년을 맞는 평화의 현재를 진행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서로 비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서산이 보현사와 대둔사를 연결시킨 것처럼, 내가 최형민 주지와 시속에서 주고 받은 것처럼 어느 기구나 단체, 어느 개인이 남과 북 사이의 형제 자매로서

더이상 적 아니다
상호존중 원칙삼아
서로 동질성 확인
서로 공간 열자

의 결연, 우정의 결연을 맺는 일이 남과 북의 평화와 인간적 사회적 교감에서 아주 큰 역할을 대행할 지 모른다.

이는 남과 북의 경제적 교역과 함께 두 지역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는 요소가 된다.

지금 북한에는 60여 군데에 사찰이 있다. 그곳과 남한의 사찰들이 서로 결연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 뿐이 아니라 새로운 세기의 민족사회를 위한 종교적 일치운동이기도 하다.

서로 피가 도는 결연이야말로 서로 함께이고 서로 하나인 생명체를 만드는 일이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奉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業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시와 칼럼

보덕현오선사 저

마음의 창



값 7,200원

새벽의 향내음 같고
아침이슬 같으며
짙은 안개같은 마음

늘 푸른 자연과 같고
청정수와 같으며
청순한 소녀의 가슴같은 마음

어둠속의 달님과 같고
새벽을 여는 샛볕같으며
밝은 아침 햇살 같은 마음

푸른 하늘과 같고
허공과 같으며
바다와 같은 마음

- 본문 중에서 -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명상시집 1. 정화의 빛 - 값 5,400원
2. 고향의 숨결 - 값 5,300원
3. 해 탈 - 값 7,200원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택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0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BBS 개국 10주년

신행-포교 방송 '자리매김'

'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온 불교방송이 올해로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1990년 5월1일 오전 10시, 교계의 방송 포교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불교방송은 개국초부터 '피안을 향하여' '살며 생각하며'와 같은 포교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불자들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특히 전문 MC 임성훈, 미스코리아 출신 MC 장윤정, 탤런트 손창호 등 당시 스타급 불자연예인들을 대거 진행자로 기용해 방송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또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과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등 불교계 석학들이 강의했던 '기초교리 강좌'와 '경전공부'는 안방에서도 신행공부를 할 수 있는 통신 불교강좌의 원조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명을…' '고승열전' 등 높은 청취율로 불심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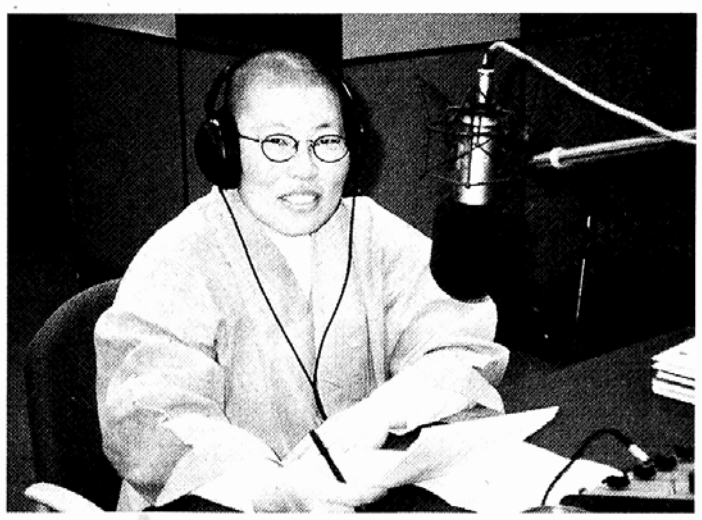
이런 인기프로그램 중에서 '아침예불' '고승열전' '신행365일' '자비의 전화' '차한잔의 선율' '무명을 밝히고' '주간 라디오 법회' 등은 개국초부터 높은 청취율을 자랑하며 아직도 건재한 최장수 프로그램들이다.

특히 91년부터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실천해 온 '거룩한 만남'은 97년에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외에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말 벗이 돼 주었던 '살며생각하며'를 비롯해 새싹불자들의 포교 프로그램인 '룸비니 동산' 등 10여개의 프로그램들이 교계 안팎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포교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또 불자연예인 김병조씨(다시 듣고 싶은 노래)와 김용림씨(신행365일)는 돈독한 불심으로 개국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청취자들과 동고동락하는 등 전파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불교방송의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95년부터는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4개 도시에서 지방국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지역 포교에도 기여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불교방송도 10살을 먹기까지 우여 곡절이 많았다. 우선 초대 장상문 사장의 작고 이후,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후임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조직내의 갈등과 인사 문제 등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불교방송은 많은 부분에서 지체 내지는 퇴행을 했으며, 그 결과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종교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특히 97년 1월14일 회계감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1백억원대의 대형 공금횡령사건은 불교방송의 경영상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설상가상으로 97년 말부터는 경제한파까지 겹쳐 10억원대에 육박하던 광고 수주액이 3억원대로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이에 성낙승 사장이 취임하면서 98년 3월30일에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전무 및 상무 직제와 1실 5국을 폐지하고 14부직제를 7개로 축소하여 팀제로 개편하는 등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불교방송의 아픈 역사로 기억된다.

불교방송 10년 자취

1987년 11월11일	조계종에서 문화공보부에 설립 신청
1988년 11월29일	불교방송설립추진위원회 결성
1989년 3월2일	문화공보부로부터 설립인가 취득
1989년 6월19일	제1차 정기 이사회 개최
1990년 3월2일	시험방송, 개시, 첫 전파 발사
1990년 5월1일	본방송 시작
1991년 12월27일	11개 지역방송국 허가 추천서 제출
1995년 2월1일	부산불교방송국 개국
1995년 3월1일	광주불교방송국 개국
1996년 11월11일	대구불교방송국 개국
1997년 1월14일	공금횡령 사고 발생
1997년 4월25일	청주불교방송국 개국
1998년 3월30일	비상기구체제 출범 및 구조조정
1999년 1월8일	문화관광부 강릉지방국 개설 허가



◇개국초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차 한잔의 선율' 방송현장. 사진은 차분한 음성으로 3년동안 진행을 해온 진명스님.

통합방송법안 곧 시행 광고시장 변화 대비해야

70% 이상을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불교방송은 현재 방송 광고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심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한국방송공사에서 독점 판매하던 방송광고를 공·민영 양대 미디어렙에서 판매하라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안을 공포했다. 이는 방송 광고시장의 자율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청취율이 일반 상업방송에 비해 떨어지는 종교방송은 광고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불교방송은, 후원회 활성화와 청취율 배가 운동 및 다양한 수익 사업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디지털 라디오 방송시대를 맞아 지방망 확장을 통한 가청지역 확대와 장비 교체, 인터넷 방송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공석인 사장 후임에 불심 깊고 경영 능력이 탁월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새로운 방송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일이다.

한편 불교방송은 28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국 1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유승엽 禪음악 CD '노자의 사계'

불자 작곡가 유승엽씨가 오카리나 연주곡 선(禪)음악 2집 '노자의 사계'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음반은 남미와 미국, 일본 등에서 제작된 다른 음역의 4개 오카리나를 사용, 조바꿈이 불가능한 악기의 음역적 한계를 극복했다. 유씨는 "베이스 오카리나가 '음'으로, 테너 오카리나가 '양'으로 표현되어 음과 양이 조화롭게 엉켜 우주가 이뤄졌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를 음과 양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아울러 중간 중간에 우리 악기인 아쟁을 삽입해 오카리나와 아쟁의 만남도 시도해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반의 '봄'에서는 시냇물소리와 새 소리가 오카리나 연주와 어우러져 밝고 경쾌한 봄을 열고, '여름'에서는 대미 소리, '가을'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가 삽입돼 오카리나의 맑고 고운 음색과 조화를 이룬다.



유씨는 "이번 2집에 이어 제3집에는 달마를 테마로 선음악 작곡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작 뮤지컬 '오! 부처님'

돋보인 무대-연출 대구불자들 '감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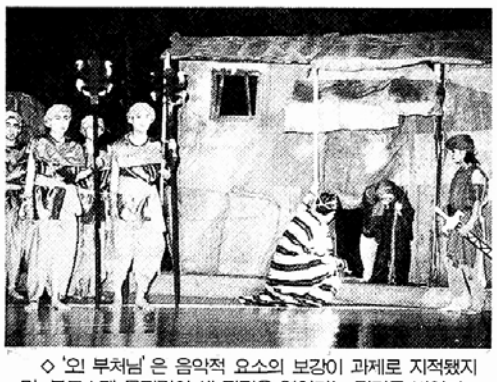
부처님의 출가에서 초전법륜까지의 생애를 그린 창작 뮤지컬 '오! 부처님'이 15일~17일 대구 시민회관에서 공연돼 지역 불자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갖가지 화제를 남긴채 막을 내렸다.

대구불교문화예술원이 제작한 '오! 부처님'은 대구지역의 첫 창작 불교뮤지컬이라는 점에서 화제와 기대를 모은 작품.

장엄한 무대와 화려한 의상, 레이저 빔과 같은 특수조명으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성공한 '오! 부처님'은 탄탄한 구성과 연출이 돋보인 작품이었다. 음악보다 연극에 더 비중을 두고 종교성과 예술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루하거나 경직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탤런트 최성훈씨와 대구불교방송의 시사프로그램 '오늘의 영남불교' 진행자인 태경스님(청송 대전사주지)이 바라문과 출가사문으로 출연했으며, 랩과 테크노등 대중음악을 가미해 지루하기 쉬운 종교적인 소재를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또한 야소다라가 부르는 애절한 아리아와 정반왕과 야소다라의 이중창, 합창곡 '참 나는 누구인가' 등 20여곡의 음악도 손색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부처님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제작과 극작외에 싯다르타 태자역까지 1인3역을 맡은 정광진씨(법성 48)의 원력이 컸다는 점도 빼놓을수 없다.



◇ '오! 부처님'은 음악적 요소의 보강이 과제로 지적됐지만, 불교소재 뮤지컬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극평론가 이상원교수(대구과학대 방송연예과)는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1억원이 훨씬 넘는 창작뮤지컬을 제작한 것은 그 시도만으로도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전제하면서 "초전법륜을 펼치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보완되어야할 부분도 지적됐다. 홍보부족과 교계의 무관심으로 관객이 많이 들지 않았고, 짧은 제작기간으로 인해 연출자의 의도가 100% 반영되지 못했다. 그의 음향시설이 미비한 것이 아쉬움으로 지적됐고, 합창을 녹음으로 대치한 것 등 음악적요소의 보강은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오! 부처님'은 불교소재 뮤지컬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적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 부처님'은 5월 동화사의 요청으로 앵콜공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오는 9월로 예정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도 초청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이윤호 기자

"생명의 나툼 그림에 담았죠"

5월19일부터 스위스 초대전

인터뷰 허허당 스님

"참 생명의 자유, 구속받지 않은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허허당 향운스님이 5월 19일부터 한달간 스위스 쮜리히 갤러리 테스 에미도이스(Tes emidois)에서 초대전을 연다.

생명의 꽃으로 장엄한 세계를 펼쳐보이는 스님의 그림은 한마디로 화엄장(華嚴場)이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선승의 눈'을 주제로 선승이 바라본 생명의 세계를 그림으로 펼쳐보인다. 이미 지난 95년과 97년 국내 전시를 통해 독특한 화풍을 선보여 온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선한 마음' '만행' '오도송' 등 총 32작품을 전시한다.

"동자승을 모자이크적 방식으로 이어 표현한 제 그림은 개개의 생명이 모두 소중하고, 또한 그 생명은 큰 생명덩어리로 이루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동자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자리, 생명의 자리임을 상징하지요."



하루 17시간 이상을 그림그리기에 몰두하며 전시회를 준비해 온 스님은, 그림을 통해 모든 행위들의 본질은 바로 생명의 나툼이며, 생명의 흐름임을 말없이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 현장에서 스님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직접 참선과 포행을 행하고, 관람객과 대화하며 스위스인들에게 동양의 정신과 불교의 문화를 보여 줄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문화 단신

다기문화상품 특별전

우리 다기(茶器)와 차문화의 오늘을 조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한국 다기문화상품 특별전'이 5월 1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기 명품 100인전'을 통해 현대 전통 도예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 다기의 역사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28일 오후 2시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02-734-1341)

현대불교문학상 시상

제5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 및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시낭송회가 29일 오후 3시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현대불교문인협회(회장 수완스님)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최하림시인이 현대불교문학상을 수상한다. (02-308-9502)

박금수씨 '사진전'

불자 사진가 박금수씨가 '제2회 문(門) 자진전'을 5월 2일~8일 마산 대우백화점 갤러리에서 연다. 박씨는 문에 담긴 다양한 문양과 상징, 풍경 등을 보여줄 예정이다. (0551-240-5000)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 지계 · 인욕 · 정진 · 선정 · 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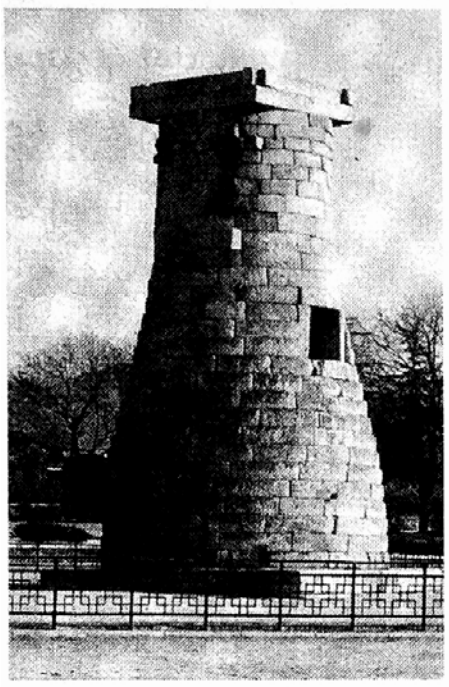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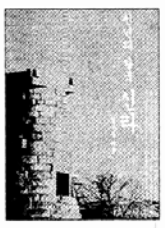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첨성대는 수미산 도리천 상징"

김기홍 교수 '천년의 신라'

땅+31단+하늘=33천



"첨성대는 천문 관측대가 아니라 불교의 수미산(須彌山)을 표현한 종교적 상징물이다."

건국대 김기홍 교수가 신라사를 개관한 〈천년의 왕국 신라〉(창작과비평사)를 통해 첨성대는 인간세상과 하늘세상을 연결하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첨성대의 돌 단층은 31단이지만 이 건물을 둘러싸고 그려지는 단층은 33단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우리가 고정적인 돌 건축물에만 집착할 때는 보이지 않고, 상상력이 풍부한 고대인들의 열린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두 개의 단이 있다는 것. 그 하나는 바로 기단석을 받치고 있는 땅이라는 이 세상의 단이고, 다른 하나는 첨성대 위에 얹혀 있는 하늘의 단이라는 것이다. 즉 첨성대는 인간세상과 하늘세상을 연결시키는 신단수와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또 김 교수는 첨성대가 건립된 선덕여왕 때의 왕실불교 성격은 제석신앙이었기 때문에 첨성대가 상징하는 것은 33천의 도리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또 첨성대가 우물정(井)자 인 것은 신라인들이 우물을 한 세계와 다른 세계를 연결해주는 터널로 여긴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한다. 이런 사상이 도리천의 세계를 꿈꾸던 선덕여왕의 세계관과 만나서 지상으로 우물을 쌓아 올렸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첨성대는 우주목(세계목)인 우주 우물이라는 것이다. 불심이 돈독했던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통해 제석신이 이 땅에 강림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고대했거나, 제석천에 환생할 통로로서 이 우주 우물을 이용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한다.

그 동안 학계 안팎에서 첨성대의 기본 기능과 구조, 상징성을 두고 다양한 주장들이 나왔었다. 끝없는 논란 속에 새롭게 제기된 '첨성대 33 도리천' 주장에 대한 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서구 지식인들 '동양의 지혜' 읽기

'승려와 철학자' '히말라야에서…' 등
미국·유럽 등지서 베스트셀러
번역서 한국 독자에도 상한가







지난해 불교 서점가의 소문나지 않은 베스트 셀러로 〈승려와 철학자〉(창작시대)가 있다. 프랑스에서 6개월 동안 베스트 셀러 1위를 차지했으며, 전세계 16개 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이 책의 성격은 간명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서양 철학자인 아버지(장-프랑스아 르벨)와 유망한 분자 생물학자였다가 티베트 불교의 수행자가 된 아들(마티유 리카르)이 나눈 이야기를 수록한 대담집이다. 이 시대에 서양인들이 불교에 빠져드는 이유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답을 주는 책이기도 하다.

동양의 예지를 조명한 서구의 책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 번역,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것들은 이뿐이 아니다. 1911년 헤르만 헤세가 영혼의 고향인 인도를 여행하고 쓴 〈인도여행〉(푸른숲)에서부터 에드워드 콘즈의 〈한글세대를 위한 불교·Buddhism〉(세계사),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아, 달라이라마 지혜의 큰바다〉(동쪽나라),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솔),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황금가지)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에 이른다. 이런 책들의 공통적 지향점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는 동양의 지혜, 특히 불교사상이다.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계속 번져 가고 있는 '불교 신드롬'은 티베트 불교에서 출발한다.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89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서구 지식인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높이 받들어지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할리우드 스타를 비롯해 1백만명 이상이 불교에 심취해 있고, 유럽에는 지식인 사회에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양의 사상을 담은 책들이 있다.

서양인들이 동양사상에서 구하려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적 풍요로 정신이 황폐화된 서양인들이 그 돌파구를 동양사상에서 찾기 위함이라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념의 퇴조와 전체주의의 해체 그리고 상생과 화해가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에서 개인의 각성이 주된 과제로 떠오른 것이 더 큰 이유가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삶과 죽음 등 존재론적 물음에서부터 윤회, 열반 등 영혼의 세계를 넘나들며 궁극의 경지를 찾아가는 동양의 사유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티베트 수행법을 배워 집단명상중인 유럽인들.

미국뿐 아니라 남미와 유럽 그리고 동양에서도 번역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던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와 〈승려와 철학자〉 등을 통해 동양사상에 빠진 서양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이 역수입되어 그 본거지에서 호평을 받는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양인들이 자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동양을 향하여 황소걸음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값이 성찰해야 할 때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실천 수련 중심 氣체험



고준환 교수 '한 생명 상생법'

새 천년 세계의 화두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준환(경기대 법학부) 교수는 '한 생명 상생법'이라고 주저없이 말한다.

우주는 한 생명이고, 개체 생명들도 그 원리에 따라 상생(相生) 조화를 이루며 생명 상생체를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이 한 생명 상생법의 개념이다. 이러한 상생생활, 수련법 등을 담고 있는 책이 〈우주적 오르가슴-한생명 상생법〉(우리)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지식전달보다는 실천수련에 중점을 두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 마음·기·몸 수련 등 세 부분으로 나눠 단전호흡법을 비롯 기수련 10단계, 기수련 유의점 등을 수록하고 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만화로 읽는 인도철학이야기

조준상씨 '깨달음의 길'



인도철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만화 입문서 〈깨달음의 길〉(서광사)이 나왔다.

우파니샤드 철학에서부터 불교, 자이나교, 브라만의 육파철학 등 인도 철학사상 전 분야 사상가의 생애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 가운데 두타행의 1인자로 알려진 마하카샤파의 전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마하카샤파는 부유한 가문 출신으로 전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부부가 모두 출가하여, 부처님의 수제자가 되어 큰 업적을 남긴 수행자이다.

이 책은 야즈냐발키야, 샹카라, 크리슈나, 싯다르타, 바수반두, 라마크리슈나, 마하트마 간디 등 인도의 주요 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시대순으로 그리고 있어서, 인도의 주요 철학 사조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서광사가 철학 만화 시리즈로 기획한 이 책에 앞서서, 1권 그리스 철학 〈너 자신을 알라〉, 2권 중세 철학 〈믿음으로 구원을〉, 3권 중국 철학 〈음양의 조화〉는 이미 출간됐다.

서광사는 "내용이 평이하면서도 철학적 메시지를 읽기 쉬운 만화 형식으로 담고 있어 자연스럽게 철학적 사유방식을 키워 줄 수 있을 것이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춤추는 물고기**(김익수 지음, 다른 세상)= 우리 나라 하천에 서식하는 민물고기 126종의 생태를 담은 환경과학서. 하천 상류의 물살이 빠르고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종, 중류에 사는 종, 하류에 사는 종, 연못과 저수지에 사는 종 등 서식지와 산란 습성 등에 따라 분류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 나라 고유종과 멸종위기에 놓여 보호해야 할 우리 물고기들을 따로 실었다. 민물고기들의 생김새와 생활습성을 도감이 아닌 이야기체로 서술하고, 서식지를 같이 담아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해 준다. 값 1만3천원.



▲**인터넷의 거품을 걷어라**(김상현 지음, 미래 M&B)= 이 책은 '우리에게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e-'비지니스 열풍을 통해 본 우리의 일상과 삶의 변화,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상상, 인터넷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쟁 아닌 전쟁들, 인터넷 포르노와 관음증, 노출증과 사생활 보호의 문제, 전자책, 사이버대학 등으로 인해 번하고 있는 교육환경 같은 주제를 다양한 자료와 예시를 통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값 9천원.



▲**기회의 땅 인도차이나**(유영호·신수근 지음, 꿈과 비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서 체험한 생생한 경험들을 모아 정리한 인도차이나반도 이해의 길잡이. 특히 관광과 문화교류, 투자 등 인도차이나 지역을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 책은 '가깝고도 먼' 인도차이나 3개국과 미얀마를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용정보와 이야기를 제공해 준다. 기회의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도 소개한다. 값 9천원.



▲**어머니가 하는 상담**(방기연 지음, 정토)= 자녀와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10가지 지혜가 담긴 책. 맑은샘 심리상담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기연 씨가 쓴 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마음을 나누려 할 때 부모 쪽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말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부모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부모 역할 훈련서라 할 수 있다. 값 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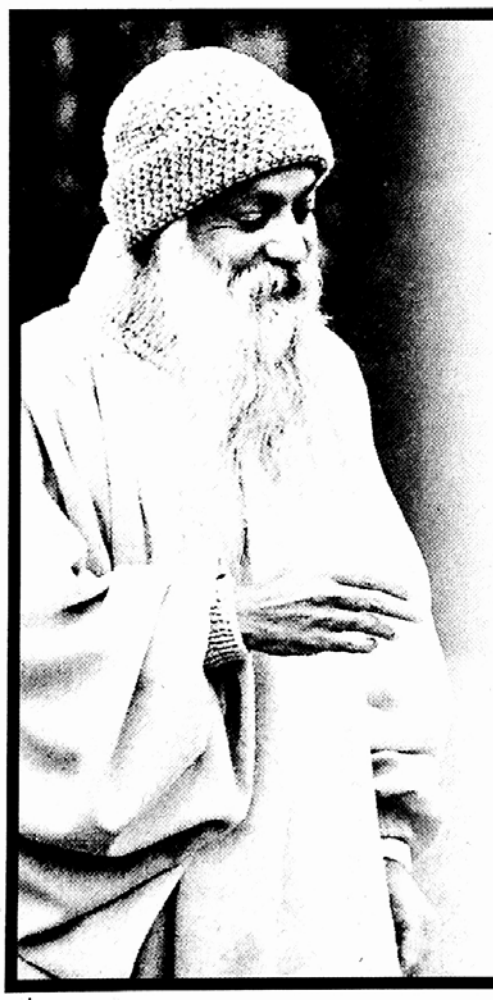
▲**마음의 창**(현호스님 지음, 정화사)= 참다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시와 칼럼집. 1부에서는 '화엄세계' 등 43편의 시를, 2부에는 생각을 주제로 한 칼럼을, 3부에서는 수행제자 명상시가 실려 있다. 값 7천2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5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6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 상 섭	시 공 사
7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8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김사철·황경환	한국불교연구원
9	히말라야에서 만난 성자	프레데릭 린즈	황금가지
1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첼	여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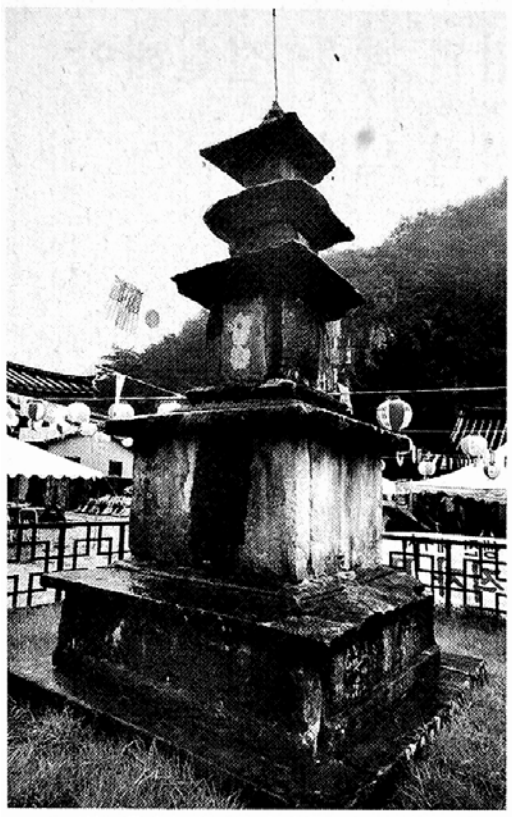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강원도 두타산 삼화사 삼층석탑(보물 제277호). 이 탑은 연일 계속되는 (주)쌍용양회 동해공장의 발파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 '발파금지 가처분신청'

삼화사-쌍용양회 '법정공방'

"삼층석탑 · 노사나불철조좌상 훼손위기"

1천여년 전 조성된 신라시대의 탑과 불상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주지 원행)의 삼층석탑(보물 제1277호)과 노사나불철조좌상(보물 제1292호)이 1.4km 떨어진 (주)쌍용양회(대표 명호근) 동해공장의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 진동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원행 스님은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아대 기술연구소가 삼화사 일대에서 계측된 '발파 진동 및 폭음'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발파 소음은 문화재보호법 허용기준치의 184%를 훨씬 초과할 뿐 아니라 일반 거주지의 허용치도 초과했다 밝혔다.

이에 따라 원행 스님은 "쌍용양회측이 삼화사 인근 지역에서 허용 기준치를 넘는 무리한 발파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발파 중단' 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삼화사 주변 지역은 국내 최대 석회석 매장 지대로, (주)쌍용양회는 60년대 이 곳에 동해공장을 설립하고 석회석을 채취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삼화사는 77년 원래의 사찰 터를 내어주고 지금의 자리로 터를 옮기는 수모를 겪었다. 그러나 97년 사찰 전각에 대한 전면적인 개 · 보수를 실시할 만큼 현 위치 역시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했다. 새로 지은 전각 역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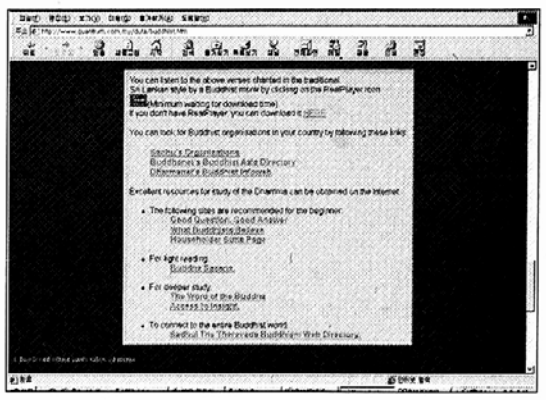
3월말 삼화사의 전각과 문화재를 살핀 김동현(문화재위원) 박사는 "철불좌상을 모신 적광전 대들보와 천장틀 사이가 벌어지고 비로전 후면 벽이 균열 현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진동이 계속될 경우 삼층석탑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측은 "97 · 99년 삼화사에 대한 쌍용엔지니어링과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진단 결과 전각의 훼손은 발파와 무관하며, 지반 다짐 부족과 건조 안된 목재의 사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쌍용양회측에 따르면 97년 삼화사측에 4억여원을 보시하고, 발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현재 삼화사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발파중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재정신청이 진행중이어서 발파와 문화재 보호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이에 대해 불교계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겼어야 했다"고 말하면서도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삼화사 보물과 전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자가 된다는 것

서양인 초발심-귀의-수행 '상세히'

팔리어 배우고 명상음악 들을 수도

동양과 다른 문화와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의 귀의와 수행은 어떤 모습일까. 인터넷에서 중국계 미국인 로버트 유반의 '불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유반은 ▲'스스로 하라'는 메뉴를 개설해 놓고 불자의 첫 길을 '귀의'로 설명하고, 또 〈아함경〉에서 우팔라가 부처님에게 '불자의 의미'에 대해 묻고, 올바른 불자상을 세운다는 내용을 영역한 글을 싣고 있다. 또 서양인의 초발심과 불 · 법 · 승에 귀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성제와 팔정도를 불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다.

또 ▲'공부하기'라는 메뉴도 개설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현명한 질문과 대답'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 등 초심자의 신심을 다지는 글들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 '내면으로' 등 기성 불자들에게 유익한 글도 추천하고 있으며, 명상법을 소개하는 '상좌부 불교 수행'도 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남방의 고승으로 존경받고 있는 스리담마난다 스님의 '불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스님의 법문 가운데 일반 수행자가 꼭 체득해야 할 덕목들을 모아 놓은 글로, 영원한 불법, 인류를 위한 도덕, 삶과 문화, 존재의 한계.. 분별심과 꿈 등 모두 17장으로 구성됐다.

또 ▲'재가불자를 위한 경전 강독'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의 영역본을 읽을 수 있다. 유반은 이 메뉴에서 〈금강경〉이 6조 혜능 이래로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떠오른 배경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데, 육조 혜능 스님이 어느날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는 일화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유반은 또 ▲'십우도'란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십우도는 1953년 미국의 드블스 출판사에서 첫 발간한 이래, 미국인 불자들에게 발심, 귀의 그리고 수행의 전형적인 여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메뉴에서 제공하는 '십우도'는 12세기경 중국의 가관 스님이 화폭에 담고 그 경계를 설명한 것을, 미국의 관화가 P.렙스가 옮긴 것이다.

팔리어를 배우고 불교 및 명상음악을 들 수 있는 메뉴도 개설해 놓았다. ▲'음악' 메뉴에서는 모두 20여곡이 소개되는데, 불교음악에 관심있는 불자 네티즌들이 방문해 볼 만하다. 또 〈법구경〉 원문 강독을 토대로 팔리어의 어휘, 문법, 어구 등을 익힐 수 있다. ▲'화두' 메뉴에는 중국의 14세기 임제종 스님들의 대중적인 화두였던 '황소가 외양간을 등지다'를 비롯 10여개 화두를 불자 네티즌에게 띄워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quantrum.com.my/duta/buddhist.htm

"관촉사 은진미륵 고려미술 걸작"

조각가 최종태 교수 분석

"선과 비례 능숙"

'세련미 없다' 기존평 반론

"고려시대 지방 불교미술은 중앙과 비교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현대 조각가인 최종태 서울대 명예교수가 미술 월간지 〈아트〉 4월호에서 '은진미륵을 다시 보다'를 발표하고, 충남 논산 관촉사에 있는 석조미륵보살입상(보물 제218호 · 일명 은진미륵)에 대해 "규모는 거대하지만 세련미가 없다"는 기존의 평가에 반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 글에서 "은진미륵은 비례와 선의 표현이 능숙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최 교수는 "얼굴이나 손의 표현이 능숙하고 측면 비례가 경쾌하고 유려하다. 특히 손의 조각은 현대 조각 못지 않은 '모던'함을 보여주며, 머리 부분을 표현한 선각(線刻)은 대단히 세련되고 수려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머리에 얹은 관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창공을 날 듯 경쾌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높이가 18.2m에 달하는 초대형 석조불상인 은진미륵은 지금까지 '체구에 비해 어색하게 큰 얼굴은 토속적 느낌을 주고 법의(法衣)에 표현된 음각선 옷주름은 간략화되었다' '대형화된 신체에 비해 조각수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규모는 거대하지만 세련미가 없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보물 제218호 석조미륵보살입상.

최 교수는 또 "고려시대의 대형 석불인 경기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충남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등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오종욱 기자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독립선언'

5월13일 새학회 창립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가 소속 학회에서 독립해 새로운 학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를 비롯해 불교분과 소속 교수 17명은 13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모임을 갖고, 5월 13일 새로운 학회를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종교학회 내에서는 폭넓은 불교학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교분과 소속 교수들의 판단에 따른 것.

불교분과는 98년 5월 당시 학회장이었던 금장태(서울대) 교수의 제안에 따라 결성돼, 방학을 제외한 매달 '월례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그 역량을 키워왔다. 그러나 최근 불교분과 소속 교수 · 학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엮은 〈불교학 연구〉의 발간 · 배포 과정에서 한국종교학회와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불교분과 운영위원들은 8일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학회 창립에 들어갔다. 前 불교분과 위원장 해주(동국대 교수) 스님은 3월 31일 사표를 제출하고, 동료교수들의 학회 창립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준비위원장 정영근 교수는 "동료 교수와 학자들은 새 틀에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길 바라고 있다"며 "새로운 학회는 기존 불교분과의 주제와 연구 내용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계는 불교를 연구하는 학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한국불교학회와의 차별성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 주제와 소속 회원의 중복을 피하는 묘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불교학 연구 방법론 찾기

성철선사상연구원은 29일 오후 2시 새로운 세기에 알맞는 '불교학 연구 방법론'을 찾기 위한 '백련불교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2001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번 첫회에는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가 '미망사와 불교의 비교해석학 연구'를 발표하고,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가 토론에 나선다.

'CD롬 국역 · 원전 고려사'

서울시스템과 동아대학교가 공동으로 고려사를 CD롬에 담은 'CD롬 국역 · 원전 고려사'를 발간했다. 65년부터 73년까지 동아대가 전 11권으로 발간한 〈역주 고려사〉를 저본으로 제작된 'CD롬 국역 · 원전 고려사'는 왕대별 검색 · 색인 검색 · 자연어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02)722-0720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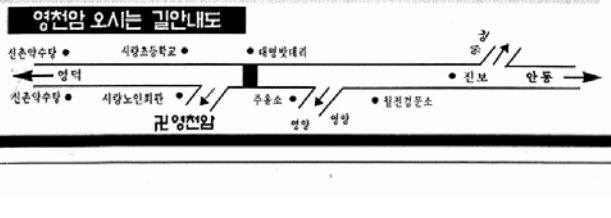
귀의삼보하옵고
소납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설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처 보살님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회시킬수 있도록 등불 한 등이라도 밝혀 주시온다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7일동안 삼천배기도를 지성으로 드려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나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고좌법회를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죽어도 산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겠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서실을 만들고져 하오니 불자님 가정에 다 읽으신 불서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온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의 힘으로 도서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시는 분께는 일년내내 기도 축원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계로 평일 내사시(來寺時) 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 등불공양 올리실분은 가족상황과 전화번호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1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0575)873-2724 휴대폰 : 016)521-2724
주지 곽 승 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 협 : 711089-51-056599
▶ 예금주 : 곽 명 희 우체국 :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일반적으로 쓰는 인진쑥이 아니라 자연산 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겨울에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주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 드리오니 몸과 마음으로 견성 ·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60포 4박스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 · 흉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엇**, 관절 · 골다공증 · 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는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0년 5월 7일까지
◆ 개강일시 : 2000년 5월 29일 오후 5시정각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주술로 살인한 죄 참회 못해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6〉

오계상경-10

흙 파다 지렁이 살상한 합두대사

훗날 양무제에 앙갚음 죽음 당해

지난호에, '잘못하여 죽이게 되면 역시 잘못된 갚음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 〈조야첨〉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국 양나라 무제는 평소에 합두 대사를 믿고 존경하였다.

어느 날 관리를 보내 대사를 모셔 오게 한 뒤 대사를 기다리며 신하와 장기를 두고 있었다. 무제가 한 수를 놓으면서 "죽여라!" 하고 말했는데, 그때 마침 도착한 관리가 무제의 말을 듣고 대사를 베어버렸다. 무제가 장기를 다 두고 대사를 찾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폐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죽여라!' 하시기에 베었습니다."고 하였다. 무제가 듣고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나서 "대사께서 죽임을 당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고 물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대사께서 말씀하시되, '빈도가 전겁에 사미였을 때 삽으로 흙을 파다가 잘못해 지렁이 한 마리를 상하게 하였는데, 그 지렁이가 바로 지금의 무제이다. 그때 지렁이를 죽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죽임을 당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했다. 무제는 비로소 인과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음을 깨닫고 감탄하였다 한다.

이렇게 사람이 직접 살생업을 짓는 동기와 결과에 따른 살죄(殺罪)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고, 비인(非人)이나 축생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둘째, 비인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셋째, 축생을 죽이려 했는데 사람이나 비인이 죽으면 하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다.

넷째, 대상을 정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살죄가 되고, 비인이 죽으면 중급의 죄로 참회할 수 있고, 축생이 죽으면 하급의 살죄로 참회할 수 있다.

▲원문

'비다라(毗陀羅:죽은 시체를 일으켜서 살인하게 하는 주법)'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믐밤에 시체를 구하여 귀신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 시체를 일어나게 하고는 물로 씻고 옷을 입히고 손에 칼을 쥐어 주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이 비다라 주법을 한다'고 하며 주술을 외워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해치고자 하는 사람이 삼매에 들거나, 천신의 보호를 받거나, 대주사(大呪師)가 구원하여 해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급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 참회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비다라로 죽이는 것'이라 한다.

'반비다라(半毗陀羅)'라 하는 것은, 만약 우바새가 그믐밤에 쇠수레를 만든 뒤에 다시 쇠사람을 만들어 귀신을 부르는 주문으로 쇠사람을 일어나게 하여 물로 씻고 옷을 입혀 쇠사람의 손에 칼을 잡게 하고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되, '내가 아무개를 위해 이 주문을 외운다' 하여 이 사람이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앞의 사람이 삼매에 들거나, 천신들에게 보호받거나, 주사(呪師)가 구해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이것이 '반비다라로서 죽이는 것'이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가운데 쌓아 놓고 불로 태운 뒤 곧 물 속에 넣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주술을 외우되, '불이 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이 불이 없어질 때 저 목숨도 따라 사라져라' 하는 것이다.

또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둔 뒤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상을 만들고, 이어서 다시 뽑아 없애버리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술을 외우며 말하되 '이 상이 없어지는 것처럼 저 목숨도 또한 없어지거나, 만약 상이 없어질 때 저 목숨이 따라 없어져라' 하는 것이다. 또 그믐에 소똥을 땅에 바르고 술과 음식을 그 가운데 쌓아 두고, 침이나 바늘로 옷이나 머리를 찔렀다 다시 뽑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술을 외우며 말하되, '이렇게 침을 뽑아낼 때 저 목숨도 따라서 뽑혀버려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숨을 끊는 것'이다. 혹은 갖가지 주문으로 죽이는 이는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강의

이 단락에서는 주술로 명을 끊는 세 가지 방법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런 것을 '염도살(厭禱殺)'이라 하는데 모두 비다라의 종류이지만, 현재에 전해지는 것은 없다.

그믐밤에 작법을 하고 주문을 외우게 하는 것은, 그믐밤에는 달빛이 없어서 더욱 캄캄하고 어두워서 사술 작법을 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말과 행동 진실해야 신뢰 받습니다"

법회중계

4월 대중법회

〈2000년 4월 16일〉



법정스님

〈맑고향기롭게 회주〉

자신 믿지 못하면
남도 믿지 못하니
자신부터 믿도록

오늘의 주제는 신뢰와 믿음입니다. 화엄경에 '신위공덕모(信爲功德母)' 즉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 조건은 신의와 예절입니다. 친구·부부사이도 그렇고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신의와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신의는 말과 행동이 하나될 때 나옵니다.

옛 우리 스승님들께 들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북쪽 추운 지방에는 음력 4월에 얼음이 얼고 10월에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4~5명이 지내는 선방이 있었는데 터가 좋고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 발심 장소로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답니다.

이곳에는 언제부턴가 무언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름에 겨울 한철을 나는 데 필요한 땔나무, 양식, 김장을 미리 해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이 그걸 먹고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인 셈입니다. 이는 먼저 다녀간 사람과 후에 온 사람과의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절에는 아직 이런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아직 존재합니다.

신뢰는 그 사람의 진실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받으려면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믿을만한 사람인가, 자신이 남에게 신뢰받는 사람인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은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구도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선재동자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을 하게 됩니다. 53선지식을 찾아 나선 선재동자는 스님, 부호, 거사, 어린이, 뱃사공, 매춘부 등 여러 계층 사람들을 만나 법을 구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미아리 텍사스촌에 큰스님이 있다고 찾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선재동자는 분별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선지식이고 그 선지식이 멀리 있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지식 아니겠습니까? 선지식은 가정 직장 등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선지식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지만 선지식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스쳐가는 인연에 불과합니다. 특정인을 선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51번째로 선재동자는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미륵보살은 "착하다 선남자여 만약 믿음의 뿌리가 약했다면 이곳에 다시 오지 못했을 것이다"고 선재동자의 그동안 구도행을 칭찬했습니다.

'신뢰가 공덕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지평선 너머〉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에 남는 구절만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입니다.

"만리로 떠나는 날 아침 / 아내와 자식을 마음놓고 맡기고 갈 그 사람을 당신 그대는 가졌는가 /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 그래도 저 사람만은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 탔던 배 가라앉는 순간 구명 배를 서로 사양하며 / 당신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는 그 사람을 당신은 가졌는가 / 불의의 사형장에서 우리를 다 죽여도 / 저 사람만은 부디 살려달라고 일러줄 그 사람을 당신을 가졌는가…"

만일 이 같은 사람을 가졌다면 소중한 보배를 가진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도 믿지 못하니 분명히 새겨두십시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또 다른 신뢰를 낳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법문은 새로 피어나는 꽃한테 들으십시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빈' 대학 불교학 연구 주도

세계의 불교학 〈16〉 '오스트리아 ②' 〈끝〉

타우셔 교수 티베트불교 권위자 명성

불교교양대·명상수련원 설립도 활발

오스트리아의 불교학계를 이끌고 있는 곳은 빈 대학이다. 여기에는 티베트학과 불교학 분야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국내 불교학계에서도 잘 알려진 타우셔(H.Tauscher), 초이치(F.Choich), 미스라(K.N.Mishra)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타우셔 교수는 기존의 유럽 불교학계에서 아비달마에 대한 연구를 고집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저서 〈부처님의 반야사상〉을 통해 유식학과 여래장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 내에서 '티베트 독립' '달라이 라마'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티베트 장경을 토대로 한 티베트 불교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타우셔 교수는 이러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빈 대학 내 '명상반'을 운영하는 등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평소에도 삼매경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감명받았다"며 "간단 명료한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후학들의 말에서, 타우셔 교수가 명상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이치 교수는 오스트리아 불자들의 독서 일순위인 〈붓다〉를 펴낸 학자이다.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문헌 해석과 고증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일종의 '부처님의 전기'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초이치 교수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 기원을 탐욕에서 찾아내는 등 단순 '전기'를 넘어, 불교의 핵심 사상을 통해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는 이 책에서 "태초에 모든 신들은 미추나 빈부, 지위의 고하 따위의 구별이 없는 평등한 존재였는데, '신선한 버터처럼 보이고 최고의 벌꿀 같은 맛이 나는 땅'을 탐내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탐욕은 노여움을 부르고, 그 노여움은 맹목과 무지와 이기주의를 부추겨 끝내는 파당적인 자기 이익 챙기기로 내닫게 되며, 이는 가장 고귀한 통치수단인 '관용'이 아닌 강제와 폭압의 통치방법을 자행토록 만든다는 것이다.

초빙교수인 미스라 교수 역시 마명(1~2세기·인도) 스님의 저서를 번역하고 또한 불교 게송집을 펴내고, 이를 강의 텍스트로 사용하는 등 불교학 연구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스라 교수가 불교학에 입문한 것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에는 요가와 명상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으로 출발했다가, 불교서적을 탐독하면서 불교학에 매료됐다. 빈 대학에서 학생들과 선 수행을 실천해 온 그는 1991년 '불교연구'라는 모임을 조직한 뒤 다양한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빈 대학 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모임은 현재 오스트리아의 불자들의 수행처로 각광받고 있다.

사실 이들 교수들의 연구 및 포교 활동의 뿌리에는 니아나티로카(Nyanatiloka) 스님이 있다. 스님은 오스트리아 학계에서 불교학의 관심을 태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국경 근처에서 태어난 그는 미얀마에서 출가한 후 유럽 전역을 돌며 포교에 열중했다. 스님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오스트리아 수용소에 감금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오스트리아 학자들과 사귀며 그들의 불성을 일깨웠던 것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불교학계는 대학 내의 연구소 설립, 연구 방법론 확립 등 '불교학'의 기초를 다지는 한편 재가불자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설립하고 또 설법 자료와 명상의 장소 등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공동연구 주제를 토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불교학자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개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괘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태일대사 달마작품.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달마심기비전 도법으로 새태양의 運氣로 소원을 이루는 상서로운 달마조사를 모시면 어느곳이든 흉한 터, 묘터, 집터, 사암사찰, 사무실, 수맥차단 및, 사업장, 공부방, 초상, 상문, 이사, 개축, 개업, 사업, 학업 일체 마장소멸 등 흉가라도 길흉화복으로 모든 재앙을 차단하는 신출괴몰한 후천달마 비전도법과 태양의 氣가 담긴 달마도를 소장하시어 건강, 장수, 부귀영화하시고 소원성취하시며 삼제팔란 소멸하소서.

새천년 대운맞이 제57회 眞人道通 庚申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 동참하시어 사명자 도인되소서

후천미륵 달마법도의 경신년 경신법회 새천년의 천지 창조이래 하늘의 순년의 빛 하늘의 음성 영혼의 심연을 하늘의 천문도법인 눈과 귀과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는 天符經 地符經 人符經 원각방에 감추어진 대비밀장인 해인도법을 최초로 만 천하에 공개하노라.

새천년부터 전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하늘 옹조의 대비밀장임을 명심할지어다. 이 기도에 입문하는 자에게는 대인류의 스승이 되는 특별기도를 양력 5월 1일과 2일 (음력 3월 27일, 28일) 자시와 오시에 360세까지의 증상대운을 공개하오니 도통군자 사명자들에게 다시없는 상통천문 하달지리의 도통군자 잣대를 얻어 중운 180세 하운 120세의 천안통 숙명통에 도전하여 지구촌 일그러진 법도와 효충사상과 도덕이 땅에 떨어진 법도와 종교의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을 제도할 수 있는 도통군자 연기법에 도전하시어 12식의 법장보살 즉 염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사명자 되소서.

※ **天符經 地符經 人符經** 예단경 혈단법 만유의 삼나만상이 만법귀일하는 신출귀묘한 대비밀장에 도전하시어 인류종교의 참뜻과 사람으로 태어난 도리를 다하여 중생을 제도하소서.(이 소식을 알아드으십니까?) **心 선성, 자성, 악성**



약사선원에 최초로 모셔진 초조선풍 동토달마 조사불상

●입 제 : 양력 5월 1일 밤10시-2일 亥時시까지 양일
●회 비 : 일금 10만원 (1박 2일 간편한 복장)
●온라인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전 화 : 02)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7번출구, 버스 85,25,95,26,303,26,142 오자원고개 하차)

雄祖院. 진인경신도통회
대한불교 약사선원
天龍眞人 泰日法師

시방세계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시찰 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시찰 안내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목간판
♦ 회재안정 포렉스
사정화재 방지용 포렉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항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cm×11cm)



◇부처님 오신날, 신사는 중생의 간절한 기원을 담은 연등으로 장엄된다. 사진은 서울 도선사.

자비의 등
통일의 등
기아 퇴치의 등
장애인 위한 등
팔각등·만월등 등 다양

무명 밝히는 마음의 등불

'갖가지 등을 공양하여 얻는 공덕은 무량하리라.'〈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

불을 밝히자!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찰마다, 거리마다, 집집마다 어둠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혀보자. 부처님 오신 날이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서원으로 등불을 밝힌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자비 대지혜의 등불로 이 세상에 오셔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었듯이, 등불을 켜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려진 무명을 밝혀 부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다짐하는 것이다.

첨단 테크놀러지가 삶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요즘에도 등을 밝히는 마음은 예나 다름이 없다. 연꽃의 모양을 본떠 만든 연등, 팔정도를 상징하는 팔각등, 원만함을 의미하는 만월등, 부처님의 한없는 복덕과 수명을 찬탄하고 자신과 모든 중생들의 수복을 기원하는 수복등, 불교의 법계를 형상화한 만다라등 등 저마다 모양은 달라도 그것을 밝히는 마음만은 '부처님 마음'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면 많은 불자들이 빈녀일등(貧女一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절에 등을 단다. 그런데 불교에서 등 밝히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불교 역사에서 부처님께 등 공양을 하기 시작한 것은 아사세왕 이후의 일로 본다. 아사세왕은 아버지인 빔비사라왕을 죽여 왕위를 찬탈하는 등 악업을 지은 과보로 중병에 걸렸으나 부처님 앞에서의 참회로 병을 치유했다. 이에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아사세왕은 부처님이 가는 길에 수많은 연등을 달아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우러러 받들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진흥왕 33년 국왕이 직접 총가한 가운데 외사(外寺)란 절에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군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등(看燈, 연등을 보면서 마음을 밝히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7일 동안 연등회가 열렸다고 〈삼국사기〉에 전한다.

연등회는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고려시대에 들어 '춘연등동팔관(春燃燈冬八關)'이라 하여 연등회와 팔관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절정을 이루었다. 국왕과 온 백성이 새봄을 맞이하는 2월 15일(부처님 열반일) 풍년을 기원하는 연등회를 개최하고, 추수를 마친 11월 15일에는 팔관회를 열었던 것이다.

특히 고려의 연등회가 2월에 이루어진 것은 본래의 불교적 의미에 재래의 재천신앙과 농경의례가 부가된 것으로, 연등행사를 통해 재천신앙과 농경축제가 사회적 의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1500년간 종교문화 축제

고려말기 공민왕 이후에 이르러서는 2월보다 4월 8일 연등회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는데, 집집마다 등을 밝히기 위해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이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행하는 호기(呼旗)라는 풍습도 있었다. 연등회가 2월에서 4월로 옮겨지면서 민속놀이로서의 연등회가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는 경축행사로 전환되어 오로지 불교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교행사로서의 연등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시대에도 부처님 오신 날 등 밝히기는 계속되었다.

이처럼 연등회는 신라이래로 1500여년 간 우리 나라의 종교문화축제로서 행해져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연등회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옛날과는 달리 불교인만의 행사로 퇴색한 경향이 있지만, 전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연등밝히기는 신행의 측면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선우'와 같은 신행단체에서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을 밝히고 있으며, 통일을 기원하는 연등, 기아퇴치와 전쟁종식을 기원하는 연등,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연등, 장애인을 위한 연등 등도 선보이고 있다. 또 병원법당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병실의 환자를 찾아 연등을 밝히고 있으며, 지하철법우회에서도 매년 지하철 역사에 연등을 달아오가는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신 뜻을 전하고 있다. 연등축제가 개인적 차원의 연등 밝히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집에서 등을 만들었으니 지금은 절에서 만들고 있는 것도 예전과 다른 점이다. 절에서 등을 만드는 것도 최근에는 상당수 줄어들어 기성품화된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시중에 완제품 등이 선보이면서 전통 우리 등에 대한 바른 식견없이 무분별하게 일본 왜색등을 재작관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돈을 내고 등을 다는 것도 전통 연등회의 의미와는 다른 오늘날의 풍습이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연등이 등장하고, 빈녀일등의 의미가 퇴색하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불자들도 많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통등 재연을 통해 우리 등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되살리고,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다. 97년 전통등 연구모임이 시발이 된 전통등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등을 일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인사동에 전통등 전승공방을 열어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봉축위원회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도 전통등 제작 공모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우리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깨달음의 지혜 닦는일

연등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복을 비는 일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지혜를 닦는 일이다. 등 공양 역시 부처님 오신 날뿐 아니라 매일매일 남을 위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행으로 승화돼야 한다. 내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한 등 달기, 남이 다니까 나도 하는 의례적인 등 달기에서 벗어나 소외된 이웃을 둘러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적극적인 자비 실천행의 등 달기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불자의 연등(燃燈)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지난 1월 봉축위원회가 주최한 '전통등 제작 강습회'에서 불자들이 등을 만들고 있다.



◇봉축 연등축제 현장에서 손에 연등을 들고, 거리에 나선 불자들.



◇등불을 켜며 탐진치 삼독심으로 가려진 마음을 밝혀 부처님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氣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氣 인증서 획득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認證書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해였습니다.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달마도 순금카드

앞면 : 오인법사 달마도
뒷면 : 반야심경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앞게 된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하여 찢어지거나 구겨질 염려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 대형(5×7.5cm)20,000원, 소형(3×5cm)15,000원이며
▶ 2장 1세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 상반신
달마도 전신상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 표구액자 (27×32cm)
▶ 달마도 순금판 크기 (11×16cm)
▶ 일반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 달마도 열쇠고리 뒷면은 반야심경 외에 사업번창부, 차량안전부, 시험합격부도 있습니다
앞면 : 달마도
뒷면 : 반야심경
(주)골드타운은 불사보급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⑫

聖人於生死中 自在出沒
성인어생사중 자재출물
隨願不定 一切業 拘他不得
은현불정 일체업 구타부득
聖人破邪魔 一切衆生
성인파사마 일체중생
但見本性 餘習頓滅
단견본성 여습돈멸
神識不昧 欲眞會道 莫執一法
신식불매 욕진회도 막집일법
息業養神 餘習亦盡 自然明白
식업양신 여습역진 자연명백
不假用功 外道不會佛意 用功最多
불가용공 외도불회불의 용공최다
違背聖意 終日懵懵 念佛轉經
위배성의 종일구구 염불전경
昏於神性 不免輪廻
혼어신성 불면윤회

성인은 생사 가운데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숨고 나타남이 일정치가 않아도 일체의 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하며 성인은 도리어 삿된 마귀를 무찌른다. 중생들이 본성을 보기만 한다면 나머지 습기가 몽땅 없어지고 정신이 어둡지가 않다.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염불하며, 오래 정진하는 법도 배우고, 하루종일 수행하며,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널리 배워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니, 이런 중생은 다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앞의 부처나 뒤의 부처도 단지 견성만을 말씀하셨다. 견성하지 못하고 "나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이 사람은 큰 죄인이다.

十代弟子 阿難 聲聞中得第一
십대제자 아난 성문중득제일
佛責之 只令聲聞外道
불책지 지령성문외도
無識 識數修證 墮在因果中
무식 식수수증 타재인과중
是衆生業報 不免生死
시중생업보 불면생사
違背佛意 卽是謗佛衆生
위배불의 즉시방불중생
殺却無罪過 經云闡提人
살각무죄과 경운천제인
不生信心 殺却無罪過
불생신심 살각무죄과
若有信心 此是佛位人
약유신심 차시불위인

선과 악 뚜렷하고 인과 분명하니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한다면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나머지 습기가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외도는 부처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력을 많이 들이지만 부처님의 뜻에 위배되어 종일 바쁘게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정신이 혼미해서 윤회를 면치 못한다.

若不見性 卽不用取次
약불견성 즉불용취차
謗他良善 自賺無益
방타양선 자잠무익
善惡歷然 因果分明
선악역연 인과분명
天堂地獄 只在眼前
천당지옥 지재안전

佛是閑人 何用驅驅 廣求名利
불시한인 하용구구 광구명리
後時何用 但不見性人 讀經念佛
후시하용 단불견성인 독경념불
長學精進 六時行道 長學坐不臥
장학정진 육시행도 장학좌불와
廣學多聞 以爲佛法 此等衆生
광학다문 이위불법 차등중생
盡是謗佛法人 前佛後佛
진시방불법인 전불후불
只言見性 若不見性
지언견성 약불견성
妄言我得阿耨菩提
망언아득아뇩보리
此是大罪人
차시대죄인

십대 제자 중에 아난이 성문 가운데 제일이나 부처님은 '성문과 외도들로 하여금 무식하게 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글자나 수효를 아는 것으로 닦아서 증득한다면 인과의 법칙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생의 업보라서 생사를 면치 못하며,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중생이라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 경에 말하기를 "천제(闡提: 악을 행하는 사람, 즉 성불할 성품이 없는 사람)는 신심을 내지 않으니 물리쳐도 허물이 없다"고 하였다. 만약 신심만 있다면 그는 이미 부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만약 견성하지 못했다면 다른 선량한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된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아무 이익이 없다. 선과 악이 뚜렷하고 인과가 분명한지라 천당과 지옥이 오직 눈앞에 있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구구할 필요가 있으며, 명리를 널리 구한다 한들 후일 무엇에 쓰겠는가. 단 견성하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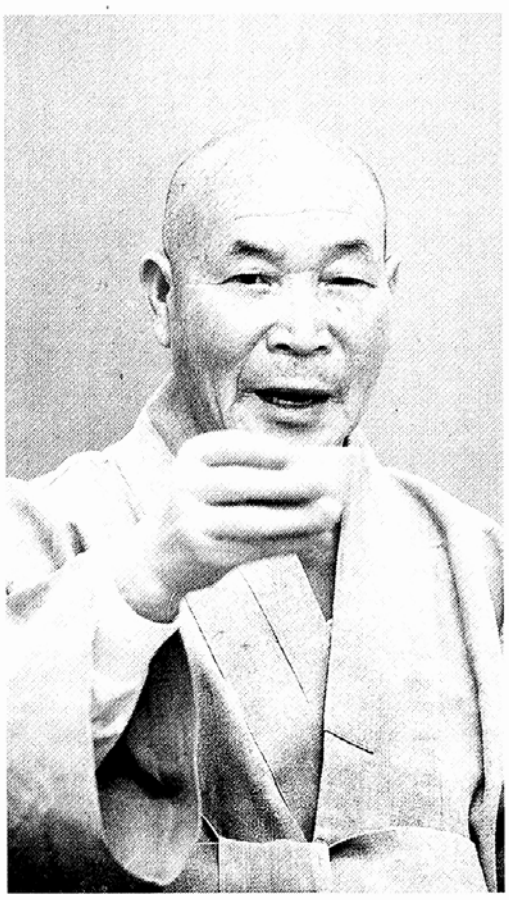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활안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새벽 2시 도량석이 시작돼, 3시 예불, 4시부터 5시30분까지 천도재를 올리는 조계산 천자암. 매일 올리는 천도재로 전 세계 곳곳의 유주 무주 영가까지 천도하고 있는 천자암에서 24년을 하루같이 초심의 빛깔로 수행하며 법을 펴고있는 조계종 원로의원 활안스님은 행복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에게 태어난 마음자리를 다 밝아지게 하라고 사자후를 하신다. 활안스님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면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마음자리 밝아지면 행복"



- 1926년 전남 담양 生
- 53년 월산스님 은사로 득도
- 58년 자운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이후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안거 성만
- 99년~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現 송광사 천자암 주석

—스님,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행복에 닿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행복을 바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부처님이 영원한 행복을 일깨워 주시려고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중생들이 경전을 읽으면서는 직입해 표현해 놓지 않아 쉽게 찾지 못합니다. 간결하게 표현하면, 행복은 타고난 마음자리가 영원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자리가 밝아지게 된다는 것에 담긴 깊은 뜻을 들려주십시오.

나와 상대 둘 아니죠

▲마음이 밝아지면, 나와 상대가 적중하게 됩니다.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밝아지는것, 마음, 지혜는 모두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시간에도 공간에도 속해지지 않아 생도 다스리고 멸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역량으로 대우주를 통솔하고, 그 지혜자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밝아지면 일체 지혜인이라고 합니다. 일체 지혜는 바로 우주를 관리하는 주인공입니다.

—불자들은 생활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다보면 자주 '어떻게'에서 부딪치게 됩니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마음을 밝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지요.

▲애당초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종합적으로 생명체입니다. 어느 생명이든 시작할때 지혜의 역량이 전체 생명의 원리원천이 되고 모체가 됩니다. 각자 생명들의 생사요체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선 타고난 마음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 우주에 영원한 복을 제공하는 태양과 같이, 물과 같이, 바람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한계가 있는지라 마음이 정해지면 영원히 나와 상대가 생도 다스리고 멸도 다스리는 경지로 돌아갑니다.

—결국 사는 방법을 배워야하겠습니다.

▲부모 자식으로서 효심의 도리는 다른 모든 진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효심이 끊기면 도도 못닦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실은 전부 물이고 바람이라, 따라서 그것에 잘하는 것이 효도여, 그 물 불 바람 흙의 작용으로 오곡백과가 열리고 그것이 또한 부모아닙니까. 따라서 세상모시는 마음이 부모를 바라보는 마음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세상을 모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뼈속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 행복의 길이므로 거기에 목표를 딱 세우고 중심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면 향방이 뚜렷해 자기식대로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사건건 명랑하게 됩니다. 밝은 데서 태어나 영원히 환한 데로 가야하고 남이 없는 곳에서 태어나 멸함이 없는 곳으로 가는 노선으로 영원히 밝아지는 것입니다. 법신경계 자성 천지경계로 집목이 되서 죽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조성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자건 남자건 세속이건 출세간이건 상관없어요. 나무를 보세요. 한그루를 심어놓으면 나무 자체의 힘과 땅의 힘이 응합돼 그 힘으로 뿌리가 나고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체는 "타고난 마음자리가 다 밝아지는 것이 목표다" 하고 정해놓고 그 마음의 근본이 여건과 맞으면 자기 역량대로 불이 일어납니다. 이 도리를 세상사람들이 모르니 허덕거리는 거예요. 하나에다 하나 보태면 0이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러나 근본 원리는 나도 박살이 나고 상대도 박살나고 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나는 부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자리가 밝아져야 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결정이 되면, 어두운데 영원한 봇물 역할을 하고 밝은 데서는 기를 더 보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가지 경계에 부딪칩니다. 이겨내는 지혜를 주십시오.

▲재가자들 뿐만 아니라 출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성원리의 근본에 연결이 안되고 뜻을 정해놓고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절름발이입니다. 정각 견성을 바라고 도달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억천만년을 닦아도 드러나지 않아요. 부처님법과 천지자연은 공식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에게 밥을 먹게 갖다주는 것은 인연법이지 실제 먹는 것은 자식의 마음에 합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평생 불교를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화 하는데 거리감을 두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는 재료도 모르고 그냥 사는데 어찌 행복을 알겠습니까. 남녀간 사랑도 확실하면 빛이 나고 그렇지 않으면 고통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불행하다고 합니다. 뚜렷한 목표를 간직하기 바래요.

—스님께서는 출가전에 기독교를 믿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

▲스무살 까지는 신학에 몰입한 기독교신자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거물은 거물인데 기나긴 세월의 과거에 스스로 해결 않고 십자가에 못박히는 방식으로 상대에 의해 마무리를 했거든요. 일 저지르고 뒷처리를 못한 것이며 완성의 생각이 아닙니다. 한때 이데올로기로 맹위를 떨치다 역사속으로 사라진 마르크스, 레닌도 뒤처리를 할줄 몰랐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뒷처리를 강조하십니다. 그 뒷처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나는 공인이다. 목표는 영원히 밝아야겠다"하고 중심을 딱 세웠으면 보림해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간직할 줄 아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친견

주문 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20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현대자동차 매매상사

품질 보증 불자님의 안정운행과 고장없는 차량이 판매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게는 많은 호칭이 있다 그 가운데 어느 이름으로 불릴때가 참나인가"
-대행 큰스님 법어 中에서-

파시는분
전화 한 통화로 전문 딜러의 차량 도/소매 가격 정보제공 및 방문후 정당한 판매가를 보장하며, 계약 당일 이전 등록을 책임지겠습니다.
※ 중고차 전차종 즉시 고가매입

사시는분
품질 최우선의 신념 아래 고객이 원하는 자동차를 전문딜러가 감정선별하여 믿을 수 있는 자동차를 직거래 판매합니다.

※ 신용카드 할부
· 가맹점(6~18개월)
· 기혼자 무보증 할부(300만원/24개월)
· 전차종 매매/위탁/알선함
· 당일 현금 지급

■ 연락처
· 광주 영업소 016)622-9082(김정숙) 011)601-0621(박동헌) Fax. 062)371-7544
· 해남영업소 017)611-6670(박동권) Fax. 0634)536-884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4월은
잔잔한 바람
그림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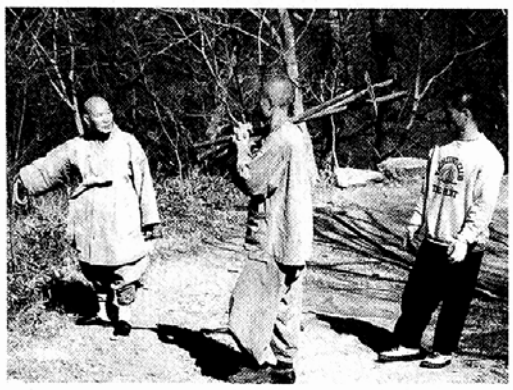
수행 · 기도 · 명상 · 휴양

아름다운 소리산 출세봉,피안봉
반야봉(보궁터), 해탈봉, 나한굴, 바람굴
약수터 행선코스에서
등산, 산림욕, 산책, 휴양, 명상을!

■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선체조도인법, 수행의 테크닉 비법을 배우며
■ 출가 예정자 수행체험
■ 업장은 절로녹고 소원은 성취되는 기도체험
■ 수행, 신행, 명상 기도 카운슬링
■ 상기병, 홧병, 불면증, 우울증, 냉병, 감기 몸살, 피로회복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 일정 : 3, 7, 10, 15, 30, 50, 100일 (한달 교육수행숙식 20만원 기준)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저녁8시~일요일 아침8시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홍천대명스키장,산음자연휴양림5km)
◈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 호박밭에서 행자 사미와 함께 운력하는 활안 스님.

"효도는 사는 방법 배우는 것"

"한 생각 바꾸면 생산자 돼요"

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우주가 그대로입니다.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전 중생이 다 그 혜택을 받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이 선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도 밝습니다. 밝은데 들어가서도 빛을 발하고 어둠에서도 빛을 보충해 줍니다. 즉 밝은 데도 끄달리지 않고 어둔 것도 버리지 않고, 밝고 어두운 것을 다 쓸 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자기 마음이 정해져서 회전된 밝은 지혜가 천지 생명이 태어나는 밑받침이 되고, 갈때 뒷처리가 되고, 살아가는 동안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다 남의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은 그 지배영역을 외면적 자연으로부터 내면적 생명에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및 생명 복제 기술은 '생명'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생명은 처음에 시작할때 일체중생의 영원한 지혜와 행복의 모체로 태어났습니다. 한 생명이 천지 자연생명의 근본이 되고 마음이 몸뚱이의 보장이되는 것입니다. 즉 형체 아닌 것이 형체의 주인인 셈입니다. 마음은 대우주 근본을 창작해 내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첨단과학이 활발하게 연구하는 생명사상의 밑바탕에는 이런 진리를 외면 내지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복제한다고 해도 그 업력까지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나날이 바빠집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기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바빠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밝은 사람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온 세상이 다 보물인줄 아세요. 당장 문밖을 나가면 그 사람들 속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뜯어먹고 살지 않으오. 다만, 나 한테 속지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고 속으면 밝은 사람이요,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은 희망을 안겨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밝아지면 습관이 바뀌어 집니다. 실제에 합류하게 해 본래의 습관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은혜가 발생합니다. 밝아지면 우주만유를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명백만 남습니다. 가는 곳마다 봄과 같아 어느 중생에게도 희망을 안겨주지요. 적지 않은 중생들이 괴롭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할 일 나중에 하고 나중할 일 먼저 해놓고 울고 남을 탓하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천진자성이 밝음 중심에 선 사람이 많으면 불국토요, 극락입니다.

—스님께서는 법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천수다라니'와 '금강경'을 많이 권장하시고 계신데요.

▲마음을 정해 놓으면 생산자가 됩니다. 천지 가운데 살지만, 천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무명대해를 다 퍼내며 천지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천수다라니' '금강경'을 하면 60억 여 세포가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죽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 본질로 또렷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 경지로 바뀌어 집니다.

이것이 불교를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 생각 넓혀 한 마음을 바꾸세요. 세상말로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내 언행이 일체중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생각의 지혜와 법과 역량이 그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인생이 최종에는 다 외로워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외로워요. 마지막에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심청이도 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이 서니 인당수 물에 풍덩 들어갔고 제석천에서 용왕에 지시해 구한것 아닙니까. 한생각 바꾸면 자성청정으로 탈바꿈합니다.



◇활안스님은 예불 천도재 운력 참선의 4박자 일과로, 여느 원로 스님들과 수행상이 다르다.

—스님께서는 다른 원로스님들과는 달리 지금도 출가당시 그대로 법당예불 천도재 운력을 하고 계시는데 쉽지 않은 수행상이라고 봅니다.

남북 통합의 시대 맞아

▲나는 출가한지 50년이 돼가지만, 늘 엊그제 중된 생각으로, 늘 초심으로 삽니다. 당연한 일이니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조스님이 쌍향수를 꼽고 자리잡은 여기 천자암에 온지 25년째입니다. 피사된 사찰이다시피한 이곳에 처음 올 때 공양간에 눌은밥이 다 불어 산을 이룰 정도인데다 방에는 쥐가 나오고, 참 기도 안 찼습니다. 50여년전 출가해 오대산에서 수행하다가 이곳으로 온건데 선대 선인이 살다간 도량을 내가 복원할 수 있다면 뼈가 다하도록 헤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 복원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 천지 제불 성현의 천운이 보강되고 생명마다 화합이 되게 하려 하는데 되긴 될 것입니다.

—선지식을 뵙게되면 우리의 국운에 대해 여쭙고 싶은 중생심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3천년전 고구려 정부가 동아시아에서 최강의 세력을 구가했던 그 당시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고구려는 당시 한마디로 자만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만심은 구석구석 썩어 멍드는 표정이예요. 그러다보니 정치기술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남북통합으로 고구려 영토 환원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 전제조건으로 동아시아 모든 지도자들과 합의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한울타리라는 공동의 업으로 단결을 강조한 명분을 앞세우고 제주도를 살만큼의 물질적 대가를 희사하는 예의를 갖추면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끝으로 불자들에게 한말씀 주십시오.

▲제행이 무상입니다. 나와 상대가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공부만 하면 선지식은 저절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두 탁마 해주게 되고 제 물건은 제가 찾아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담=위영란 부국장 대우
(yryu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무술고수 대오스님 (下)

고조 유방을 도와 한(漢)나라를 창업한 한신(韓信)이라는 장수가 있다. 그는 본래 한(韓)나라의 귀족 출신이었다. 한데 자신의 나라가 진시황에 의해 멸망하자 망국의 한을 품고 저자거리에 몸을 숨기고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때 무사로서 칼을 차고 다니는 그에게 평소 그를 꼴사납게 생각한 거리의 불량한 건달이 시비를 걸어왔다. 칼을 뽑아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한신이 거절하자, 용기없는 비겁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가라고 했다. 한신은 아무말 없이 그 건달의 사타구니 밑을 기어갔다. 그런 그였기에 훗날 초패왕 항우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한신은 뒷날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 건달은 나의 상대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무용심이 앞선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싸워 그를 죽였다면 한낱 저자거리의 건달을 죽인 살인자신세로 일신을 망쳤을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 세상에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은 흔하게 볼 수 있어도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고준한 경지 이르렀지만 그는 더 부드러워졌다

특히 근육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다. 더욱 꼴불견은 힘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힘만 믿고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억압하기를 예사로 하는 사람이다. 평소에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가 하면 상대와 편안하게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공연히 눈에다가 힘을 주고 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어쩐지 불쌍하고 딱해 보인다. 바로 대오스님이 그런 사람이었다. 옆에 있던 나도 그랬고.

그러나 그 패싸움이 있고난 뒤에 주지스님으로부터 질책과 함께 "무(武)를 익히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다."하는 가르침을 받고는 사람이 아주 달라졌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잘못을 깨닫고 나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할 수 없이 훌륭하다.

대오스님은 정말 철저하게 달라졌다.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놀랍 정도로 달라진 것이다.

"나는 주지스님의 가르침을 받기전까지는 진정한 무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진정한 무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더욱 열심히 무도를 연마하고 있을 때였다.

수종사에 한 스님이 찾아왔다. 한눈에 보아도 몸이 크고 힘깨나 쓰게 생겼다. 말을 함부로 했고 행동거지가 거칠었다. 안하무인이었다. 우리를 참을 수 없게 한 것은 연로하신 주지스님에게도 함부로 대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작 주지스님은 그 스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아 했다. 그러자 그 스님의 행동이 점점 도가 심해져 갔다. 한번은 밥당에서 저녁예불을 할 때였다. 내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워 향로에 꽂고 있는데 그 스님이 다가와서는 촛와 향불을 끄더니 자신이 다시 촛불과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주지스님과 대오스님은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였다. 대오스님이 주지스님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갔다. 그때 그 스님이 몇가지 먹을 것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행자가 먹어서는 안되는, 도저히 사다줄 수 없는 것이었다. 대오스님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고 장을 본 짐속에는 당연히 부탁한 것이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술을 한잔 한 그 스님이 대오스님을 보자고 했다. 그리고 시비를 걸었다.

"야! 너 평소 나한테 유감있어? 말도 잘 안하고 말이야. 너 거만하고 아니꼬운 놈이야. 나는 너같은 놈을 제일 싫어해. 오늘 맛



그림 · 문병성

좀 봐야 하겠...." 미처 말도 끝내기 전에 주먹이 날아갔다. 대오스님은 아무 말없이 맞고 있었다. 주먹다짐을 하기로 하자면 그는 대오스님의 적수가 못되었다. 대오스님이 그냥 맞고만 있자, 더욱 그 스님은 화가 났고 다시 주먹이 대오스님의 얼굴위로 날아갔다. 그렇게 저항없이 몇대를 맞자 대오스님의 얼굴은 코피가 터져서 피범벅이 되었다.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몽둥이로 그 스님을 치려고 하자 주지스님이 나와 "그만 되었다" 하지를 않는가.

그 이튿날 사람을 그처럼 때려놓고 그 스님은 새벽같이 떠나갔다. 대오스님은 주지스님의 꾸지람을 듣고 법당에서 참회기도를 해야했다. 주지스님은 "그 스님은 잘못이 없다. 아직도 너에게 자비심이 부족하고 하심(下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 정진하여 아주 멍청한 바보가 되도록 해라. 너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무인이다"하는 훈계를 내렸다. 그렇다. 대오스님과 같이 무술을 익히는 사람에게만 어찌 하심이 해당되겠는가. 도를 닦는 모두에게 하심이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아니던가. 그후 오늘날까지 나는 대오스님이 어디가서 힘자랑을 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여 이제는 남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고준한 경지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럴수록 그는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끝〉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화제의 신간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끌리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뚝!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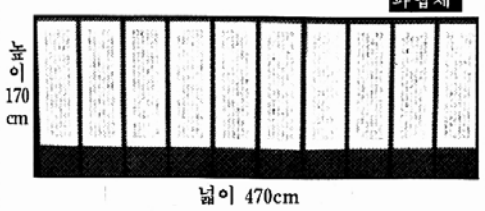
파엽체로 쓴 수량품 병풍

"묘법연화경 여래 수량품 십폭 병풍"



파엽체

이 글씨체는 수십년전 기도정진으로 전수 받은 파엽체로서 글자체가 독특하고 전무후무한 글씨체입니다.
이 연화경 작품은 계속 독경 정진의 원력을 가한 작품이며, 파엽체를 연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묘법연화경 수량품, 병풍 10폭을 두루마리로 전해드립니다.



높이 17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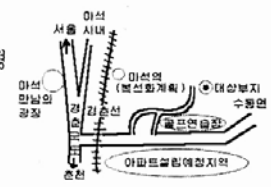
넓이 470cm

※ 파엽체 제작품 10폭 십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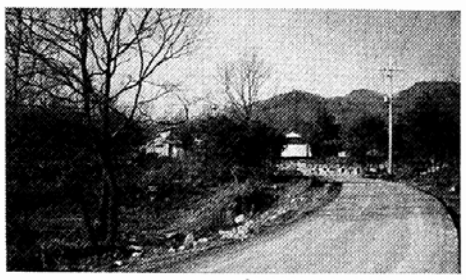
대한불교대승연화회
천 홍 사
전 화 0591)746 - 7350
휴대폰 017) 552 - 7350

남양주시 최고의 대가람터

▶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면 적 : 2,000평 ~10,000평
▶ 가 액 : 상담후 결정
▶ 연락처 :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 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다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훼손시킬수가 없었읍니다.

가람 알려주는 산속 등대

가람의 장면들 26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갑사의 철당간

지금이야 전국의 사찰에 이르는 길이 잘 닦여있고, 안내판도 발달해서 웬만한 사찰을 찾는데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그러나 근대 이전만 해도, 대부분의 산중 가람은 험준한 산악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 사찰에 이르는 갈이라야 숲 속에 난 오솔길 정도였다. 무엇인가 가람의 위치를 나타내어 신도들이 손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기념물(landmark)이 필요했다. 흔히 이름난 고찰 입구에 서 있는 당간지주들이 바로 그런 이정표였다.

당간지주란 당간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를 말한다. 당간이란 당(幢)을 걸기 위한 게양대였다. 삼국시대 고승이었던 자장율사가 선덕여왕의 부름을 받고 당나라에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불교 용구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당과 번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幢)이란 가로로 기다란 깃발을 말하며, 번(幡)이란 세로로 긴 깃발을 말한다. 지금도 다비식에서 볼 수 있는 만장은 바로 당의 일종이며, 태극기와 같은 대부분의 깃발들은 번의 일종이다.

당과 번은 각종 불교행사에 사용되었던 장엄물이었고, 전쟁터에서도 군사용 당과 번이 사용되었다. 당간과 당간지주는 후대 가람에서 등장하는 것 같이 단지 이정표의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 미륵사지와 같이 삼국시대 도시 안에 조성된 광역사찰에서도 절 입구에 당을 달았는데, 이는 사찰의 위치를 표시하기보다 가람의 경계를 표시하며, 성스러운 장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의미가 더욱 강했다. 그러나 산지 가람에서는 절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더 큰 효용이 있었다. 위아래로 긴 당을 걸기 위해서는 깃대, 즉 당간의 높이가 높아야했고, 숲 속에 우뚝 솟은 당간과 거기에 휘날리는 당을 보고 달리서도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신도 길 쉽게 찾도록
절 입구 세운 쇠기둥
당걸고 경계 표시도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당간들은 거의 없다. 당간은 나무나 돌로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사찰에는 주로 철로 만들었던 것 같다. 나무 당간들은 썩거나 부러져서 남아있을 확률이 전혀 없고, 돌 당간은 높이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솟대와 같은 민간신앙용으로 마을 주변에 세워졌는데, 그나마 보존된 것은 나주 정도에 있을 뿐이다. 철당간은 민간에서 녹여서 쓰기도 했고, 특히 일제기 철물 공출시에 대부분 사찰의 철당간들이 공출당하고 말았다. 현존하는 것들은 청주 용두사지, 갑사 대적전 앞의 철당간, 그리고 법주사의 것 정도가 손꼽힌다. 그나마 온전한 형태가 아니라 당간 머리가 잘린 불구의 모습이다.

당간의 온전한 형태는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고려시대 금동당간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실내용으로 제작되어 축소된 모습이지만, 수십개의 원통을 이어 붙여서 몸통을 만들고, 머리 부분에는 용머리를 조각하여 장식한 것으로, 당간의 일반적 형식이라 추측된다. 당간을 세우려면, 든든한 당간지주가 우선 세워져야 한다. 당간지주는 한쌍의 통돌을 높이 세우는데,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십미터에 달하는 당간의 상부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펄럭이는 당은 당간에 일정한 진동을 주게된다. 당간지주가 웬만큼 튼튼하게 땅 속에 박혀 있지 않으면, 이 지속적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통일신라시대 작품인 갑사의 철당간(15m) 지주(3m). 보물 제256호.

땅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한쌍의 당간지주에는 아래 위 두 개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당간지주 사이에 당간을 세우고, 구멍에는 가로대를 질러서 당간을 붙잡아 맨다. 흔히 법당 앞에도 이런 모양의 돌이 서 있는데, 이는 당간지주가 아니라 괘불대 지주다. 사찰의 중요한 재일 때 거대한 괘불을 걸쳐서 달기 위한 시설이다. 당간지주와 괘불대의 차이는 분명하다. 괘불대는 우선 크기가 작고, 한쌍이 아니라 두쌍의 돌이 좌우로 나란히 세워진다. 그래야만 괘불을 양쪽에서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괘불대는 법당 앞 마당에 세워지고 당간은 절의 입구에 세워진다.

계룡산 갑사는 두 개의 가람으로 이루어졌다. 본영역은 대웅전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남쪽으로 개울을 건너면 숲 속에 다소곳이 조성된 대적전 영역이 나타난다. 본영역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대적전 역시 작은 건물이다. 그러나 대적전 앞에는 오래된 석등과 철당간이 서 있어서, 본 영역보다 오히려 먼저 만들어진 곳임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대로 갑사는 신라 때 유명한 화엄십찰의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다지 큰 규모가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 대적전 자리에 기틀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와서야 대웅전이 있는 개울 건너로 확장되어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을 것이다.

기적적으로 남아있는 갑사의 철당간은 깊은 산 속에 작은 가람이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한 표적이었다. 마치 망망 대해에 작은 빛을 발하는 등대와 같이,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숲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는 한줄기 광명이었고 부처님의 은덕이었을 것이다.

불교 NGO 힘, 수행서 나온다

정토회·재가연대 등 명상체조·참선
자신 돌아보는 계기…업무능률 향상도

불교NGO 간사들을 중심으로 수행 바람이 불고 있다. 불교의 대사회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들은 업무 틈틈이 참선, 절하기, 명상 등 '생활 속의 수행'으로 정진력을 향상시켜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월례 수련회, 100일기도, 일꾼 수련회 등을 개최해 타 단체들의 수행 모범이 되고 있다.

실천하는 불교일꾼

'일과 수행의 통일'을 지향하는 정토회를 비롯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근본도량을 중심으로 정기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수행모임'을 꾸려 '생활 속의 수행'을 통해 자신과 일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있다.

정토회 산하의 환경교육전문 NGO인 불교환경교육원을 비롯 국제 기아·질병·문맹퇴치 민간기구인 JTS, 극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인 '좋은벗들' 소속 60여 간사들은 저마다 불교사상에 투철한 '실무형 행자(行者)'임을 자처한다. 특히 88년 창립된 정토회의 성공비결은 '수행자의 생활을 접목한 실무 간사 교육'이라고 알려질 정도다.

신입 실무자들은 100일간 정토회관에서 대중생활을 하며 '일과 수행의 통일', '어떻게 살 것인가' 등을 주제로 한 사상 교육을 거쳐 '정토회 간사단은 붐법(佛法)을 실천하는 수행공동체'임을 자임하게 된다.

매일 오전 5시에 시작되는 간사들의 대중생활은 수습기간 동안 새벽예불과 1000배 정진, 참선 등이 매일 반복되며, 2박 3일간의 집중수련도 실시된다. 30년간의 인생 계획을 새롭게 보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면서 실천할 서원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성지순례·철야정진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 간사들은 매일 점심시간에 '우리 몸 안에 눈뜨기'를 주제로 명상체조를 30분씩 하고 있다. 소화를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춘곤증을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의 향상은 물론 바쁜 일상에서 오는 각종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소멸해 주는 효과가 있단다.

재가연대 교육신행위원회(위원장 류종민)는 5월부터 '명상체조' 등이 좋은 반응을 얻자 김종서 박사(전 교육개혁위원장), 한정섭 법사(한국불교공감선원 이사장), 류종민 교수(중앙대, 금강경독송회 법사), 김열권법사(위빠사나호흡명상원) 등 재가 수행전문가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생활수행 방법, 효과, 교훈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행모임'(예상인원 15~25명)을 갖기로 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는 근본도량인 남원 실상사와 파주 보광사에서 각각 월례 수련회 등을 개최해 신심을 다지고 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지난 5일부터 5월3일까지 매일 아침 조계사에서 간사들의 정진력을 고취하기 위한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또 매달 한 번 1박 2일간 근본도량인 실상사를 비롯한 사찰에서 '일꾼 수련회'를 개최한다.

파주 보광사를 근본도량으로 삼아 출·재가의 상보적인 불교운동의 전형을 보여 온 실천승가회는 실무자들이 매달 수시로 보광사에서 모여 철야정진, 토론회 등으로 불교운동의 좌표와 이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다.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불교이념에 투철한 불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안정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꾸준한 수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난 3월1일 입제식을 가진 21개 단체로 구성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의 출범은 불교단체의 '수행 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정토법당에서 정진하는 통일정진불교연대 회원들.

청년자원봉사 '국제워크캠프' 7월3일~12일 인도서 열려

200여명 참가…위생·시설 보수등 활동

한국 인도 대만 태국 네팔 등의 청년 봉자들이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인 '제2차 국제 워크 캠프'가 JTS(이사장 법륜스님) 주관으로 7월 3~12일 9박10일간 인도 보드가야 둥게스와리 지역에서 열린다.

'노동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한다'는 주제로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스리랑카 사르보다야 운동의 창시자인 아리야라트네 박사의 지도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아시아, 미주 지역의 청년 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각 나라의 청년불자들은 JTS가 수자타아카데미를 운용하고 있는 둥게스와리 인근 지역에서 △우물가 위생시설 확보 및 청소 △집짓기 및 각종 시설 보수공사 △망고나무 심기 △지붕 및 벽 수리 등의 봉사 활동을 펼친다.

한편 JTS는 매년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6개월간 인도 보드가야 둥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에서 활동할 장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또 청년정토회는 7월25일~8월15일 20일간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할 단기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국제 워크캠프 참가 희망자는 5월 31일까지 JTS(www.jungto.org)에 접수해야 한다. (02)587-8995

김재경 기자

연꽃일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과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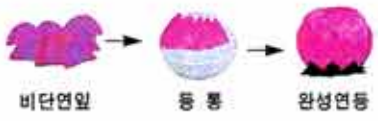
팔모주름등 (핑크)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디자인 대구여래기획
(053)426-3395~6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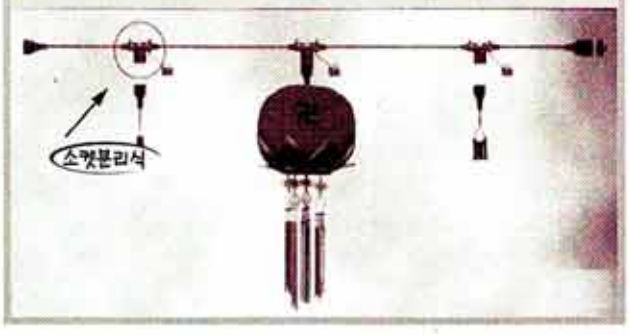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형)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자기 팔자운명 자기가 지어갑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문 불교신자가 아닌 새언니로부터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저도 잘 몰라서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지 스님께 질문 올립니다. 함께 공부했으면 하기에, 새언니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철 나면서 이 도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간다면, 언제 다시 와서 실현할 수 있을는지 도저히 기약할 길이 아득합니다. 우리는 지금 찰나에 살고 있습니다. 한 철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저 들에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 뿌리가 아주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에 있어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몸이 떨어지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뿌리가 죽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몸을 벗는다고 해서 결코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사가 돌이 아닌 것이니라. 본래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느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그 의식이 살아있을 때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니, 내가 살면서 온갖 탐진치에 의식들이 다 물들어 있다면 미혹한 곳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고, 내 의식이 밝고 자유로워 모든 것이 공한 줄을 안다면 더 차원을 높여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을 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여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와서 한 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컴컴하게 살아야 합니까? 컴컴하면 불을 켜서 밝게 살고, 배가 고프면 먹고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이치가 복잡하고 다단하다 할지라도 한 순간의 꿈입니다. 한 순간의 꿈에서 벗어나면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냥 그대로 불바퀴 속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의 삶에서, 윤회의 굴림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 하고도 걱정 안하는 방법

문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어떻게 하면 관을 하고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빠께서는 언제나 관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큰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큰스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관합니다.

답 관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답을 기다리는 것과 같애. 지금 네가 관을 하고도 걱정을 안 할 수 있겠느냐는 편지를 나에게 했지? 그러고 나서는 이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래서 네 안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펴서 편지를 부치고 답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 답장이 오듯이, 무슨 문제가 있든 나의 근본이라고 하는 우체통에 편지를 써서 넣으라는 거야. 그런데 우체통에 정확하게 넣어야 크게 전달이 될 텐데, 우체통에 넣기도 전에 '넣을까, 말까?' 근심 걱정을 하고, 넣고 나서도 '답장이 올까, 안 올까?' 걱정한다면 안 되겠지? 그냥 네 마음의 우체통에 탁 넣고는 돌아서는 거야. 그래야 그게 근본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답장이 오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믿고 맡겨놓아야 그게 자꾸 연결이 되면서 나의 영원한 친구인 주인공과의 길이 넓고 빨라지게 되는 거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무조건 우체통에 넣는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해. 알았지?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 인생에서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명리에서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까?

답 자기의 팔자운명은 자기가 지어가는 것이지 어디서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뭉쳐져 있고 차단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괴로운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란 것은 깊고도 신묘합니다. 한편으로 그렇게 무한광대한 힘을 가졌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업고(業苦)를 다 저장해 있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의 마음은 꼭 카세트 테이프에 수록된 녹음 내용과 같습니다. 즉 잠재의식이라는 녹음 테이프에 우리가 수억년 살아온 과거 전생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었든, 악한 것이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감겨 있던 것이 하나 둘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연방 기록하면서 연방 풀려나오는 것이죠. 기록되는 것은 오늘의 삶이요, 풀려 나오는 것은 지난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윤회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기록했던 대로 오늘 영향을 받으면서 사니까 자유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또 다른 내용을 끊임없이 기록하면서 사니까 다음 생에서도 자유롭기는 어려워집니다. 그것을 모르고서 아이구,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운명은 왜 이다지도 가혹한가 하지마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가혹하다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모르고 지어 놓은 그대로일 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그대로 받는 것이기에 누구도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기 탓인 줄을 뼈아프게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내게서 나온 문제이니 내가 풀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모든 것은 과거에 녹음된 테이프에서 나오는 것이니 나오는 대로 그 자리에다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되돌려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내 나온 것이 무마될 뿐 아니라, 녹음되어져 있는 것도 소멸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팔자 운명은 고정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녹여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에 고등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편이자 그대로 실상이며 진실이니 그대로 자기 주인공을 믿고 한번 실천해보는 노력을 하세요.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경계
지난날 기록된 자기 삶의 모습
나오는대로 되돌려 놓아야 소멸



그림 · 최주현

법공양 페이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문 큰스님께 큰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맡기면 고가 아니라는 큰스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됩니다. 살아있다는 생각도 죽음이 있다는 생각도 다 놔야하며, 후생의 내 생활은 현재의 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 또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다 믿고 맡기는데도 어느 때는 자식들 때문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바람은 자식들이 잘 살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 때문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학교생활에서 그렇지를 못합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단다. 너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해주어도 그것을 듣는 상대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수십번 해도 소용이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심정입니다. 큰스님, 다 믿고 맡기는데 자식 일은 힘이 듭니다.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께 이런 글을 올릴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답 가정에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자식들이 섭섭하게 하고 잘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며, 모든 일들을 주인공에 맡기고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로써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곧 온 가족이 화합하게 되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여 자식들이 공부도 안하고 말썽만 피운다 할지라도 말로써 옥박질러서 고치려 하지 말고, 이것 또한 주인공에 맡겨 놓고 자상하게 대하면 자식과 나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착한 자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해야 잘 산다는 그런 생각도 놓으세요. 사량으로 붙들고 있지 말고 맡겨놓고 지켜본다면 모두가 한 에너지가 되고 한마음이 돼서 그저 전력이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아무리 많은 방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다 불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편안하려면 자식도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편안하게 돼야 나도 편안하죠. 자식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잘되려고 내가 편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냉정하게 관단을 한다면,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잘못되게 나가는 것 같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통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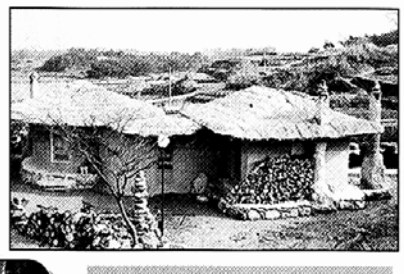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 : 0417) 584-6674~6 FAX : 0417) 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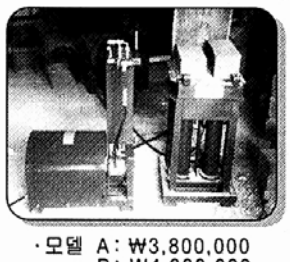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래원 거용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네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둘로 보지않고 무조건 사랑해야 자비

☞ 15면에서 계속

지만 '아, 그것도 순간순간 바뀌는 일이니까 예측 못하는 일이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된 것도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마음에다 합께 넣어 굴려주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주는 겁니다.

뿌리를 돌구어 주어야만 가지도 잎사귀도 푸릇푸릇 싱싱해지며, 꽃이 만발하고 열매 또한 크게 열려서 만가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르익어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의 열쇠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자식만을 탓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 모두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어찌 나에게 나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모든 일이 화합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이 세상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공생·공용·공체·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우리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렇게 돌아간다면 전세계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자식들의 그런 모습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주인공의 나툼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자식들을 위해 관해줄 수 있는 멋진 아버지가 되기 바랍니다.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배워서 알고 있는 삼법인(三法印) 중에 '제법무아(諸法無我)'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제법에는 이름하여 불일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법에 이름하여 불일 것이 없다면 오늘 수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또 '나' 라고 할 것이 없다면 업은 어디에 붙은 것입니까? 진실한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답 이 얘길 항상 합니다만 여러분이 찰나찰나 아버지 노릇 하고 엄마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형제 노릇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찰나찰나 생활하고 돌아가되 찰나찰나 그렇게 많은 모습으로 천차만별 돌아가는데 어떤 노릇할 때 꼬집어 나라고 할 수 없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초월해서 돌아가니까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남편이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자식이 될 때에 나라고 할 건가, 나라고 할 것 없이 사이가 떨어지지 않고 찰나찰나 나투며 화해서 돌아가니까 나라는 걸 이름해서 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했노라, 나는 없노라, 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노라, 나는 한 일이 없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설법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듯 남편 노릇 했다, 자식 노릇 했다, 아버지 노릇 했다 하면서 순간순간 돌아가는데 어떤 거 할 때에 남편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거 할 때에 아들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니 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친구 노릇 하면서 여여하게 돌아가는데 어찌 붙을 게 있겠습니까.

공해서 없다는 거를 알면 붙을 게 없을 것이고, 천차만별로 바깥으로 끄달리고 '내가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줬다' 하면서 나, 나, 나 이러고 돌아가면 그냥 매사에 걸려서 돌아가죠.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서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 그대로 여여한 거고 어떠한 거든지 욕심을 내고 먹으면 체해서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 걸려서 죽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잘 써서 소화가 잘 되면은 걸림없이 돌아가고, 모든 걸 재료로 알고 실천을 해서 체험을 한다면은 마음의 발전이 되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과학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창조력이 생기지마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내 걸려서 무심의 50% 정신세계는 모르고 물질세계만 알아서 절름발이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정신세계가 아니라면 안됩니다. 정신을 뺏기고 정신을 뺏어서 사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육으로 잡혀먹혀야 잡혀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정신을 뺏어 먹고 사니까 정신을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신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당체를 생각해 본다면 수행을 누가 하는지, 내가 없으면서 내가 있는 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그것마저 맡겨 놓아 본인 스스로 체득하기 바랍니다.

진정 사랑해야 결혼하는지요

문 스님, 저는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여자 법우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어서 그런지 주위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지 의심이 생깁니다. 스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자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비를 실천하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애' 즉 이기적 사랑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기적 사랑이든 자기애적 사랑이든 다 사랑이란 말로 통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단을 해야 옳을까요?

답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자식을 위해서 앞뒤 계산없이 물에 뛰어드는 부모의 마음이라야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든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든가....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 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요. '남편이 나를 싫다고 할 때 그 남편을 사랑하거든 놔 줘라.' 또 아내가 싫다 하면 놔줘라, 싫다 하는 걸 붙들고 생전 살아봤자 그 타령이니까 사랑하면은 도리어 놔 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이 꼭 자비인 것만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자비'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라는 것은 아무 경우에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차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조건 없이 차비를 주는 게 자비입니다. 또 셋방을 얻을 돈이 없어 거리로 나앉았을 때 누가 조건 없이 누울 방을 미련해 준다면 그게 자비입니다. 조건 있는 거는 자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 사랑하지,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지간도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착을 가진다면 자비의 사랑이 못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조건 있는 것을 붙이거든요. 무얼 바라고, 무얼 기대고 '저놈이 잘 돼야 남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을 텐데….' 하고 기대하는 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자비가 못되죠.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마음을 돌리질 못해서 오히려 자식들한테 해가 가게끔 하는 수도 많습디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자식을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나, 부처님들이 뭇 중생을 나 아님이 없이 사랑하는 거나 똑같아요. 작고 클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하다못해 기어가는 벌레라 해도 '나 아님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내 자리 아님이 없이, 내가 높다는 생각이 없이, 모두가 내 아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짜 자비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도리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왜냐?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로 들고 나는 그 도리를 알아서, 이걸 세세하게 다 알려면은 복잡하니까 모든 거를 그냥 자동적인 컴퓨터에다 놔라, 거기다 맡겨 놓고 진행되는 걸 지켜봐라, 그렇게 되면 실험이 되고 체험을 하게 된다.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참선의 직속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참 사랑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비가 나올 수도 있고, 내 아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리도 알 수 있게 되니 항상 생활하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관한다면 그 소식도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이 잘 돌려지지 않아요

문 마음공부를 한 지 햇수로는 일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마음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면서도 살다보면 그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을 꼭 돌려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든 것이 귀찮아져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고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마음의 일인데 왜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답 우리에게는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다 마음으로 가는 길인데도 어떤 길은 아주 평화롭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생이 다 가기 전에 놀고 향락으로 사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길은 아주 험난하고 골짜구니가 깊고, 죽은 사람의 뼈, 축생들의 뼈, 사람들의 해골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어 그런 걸 밟고 지나가야 하는 그냥 '험난한' 길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신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겠죠. 험난한 길을 택했고 그런 평평한 대로의 길을 택하지 않은 거죠. 험난한 길이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걷는 길에 해골이든, 축생이든, 죽은 귀신이든 막론하고 그냥 길에 쫙 깔려 있다는데 그 길을 가려면 그걸 일일이 다 치워야 갈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치우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널려 있는 것들을 한 보따리 한 보따리 그냥 닥치는 대로 치우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일초 일초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것이 십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얼만큼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치워야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치우지 않고 딴 길로, 이렇게 지루하고 귀찮게 이렇게 해야만 사나 하고 딴 길로 가보려고 해 봤자야 요다음에 또 와서 그걸 치워야 하거든요. 그 길은 바로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가다가 싫증이 난다 그러고 그냥 나 좋을 대로만 생각하고 내 업식에 입력된 대로만 치달아 나가면 벌써 그건 이 모습이 자기라는 생각을 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치워야 그 마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뛰어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면서 가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서도 어떤 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다 한 곳에다가 섭취를 해서 마다하지 말고, 아무런 이유도 붙이지 말고 그렇게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런 나를 인정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없는 걸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치우고 가라는, 이것을 잘 명심해서 내게 닥쳐있는 마음들을 해결해 간다면, 그렇게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간다면 그냥 그 마음의 길에서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괴로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것도 '아, 내 안의 스승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 알게 해주는구나' 하고 그 괴로움 자체를 맡겨버리세요. 그러다보면 그 괴로움이란 것이 내놓을 바가 없는 공한 것이었다는 것도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괴롭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모두 한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삼천배도 소용없는 일인지요

문 삼천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할 수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원에 처음 가던 날 불상을 보며 혼자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저 불상이 모든 우주만물을 상징하는 거고, 내가 억겁을 통해 윤회해 오며 지은 죄를 참회하며 용서받기 위해 그 앞에서 삼천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과거생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동안 지어온 죄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모두에게 미안해서 용서받고 싶었어요. '주인공' 이라는 것에 대해선 아직 사무칠 정도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 대신 삼천배라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건데요. 스님께서는 삼천배가 단 일배만도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의 생각이 잘못된 건지요.

답 몸으로만 하는 삼천배보다 마음으로 하는 일배가 오히려 더 값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백팔배, 삼천배를 하고 정근을 한다 해도 일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중생이니까 한 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 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삼보에 귀의한다' 는 것도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불·법·승에 귀의할 줄도 알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성부처에, 자성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한 생각, 또는 자기 한 생각의 움쭉거림, 이게 자성삼브입니다. 가만히 있는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쭉거리는 것이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성삼보에 귀의한다는 거죠. 그 자성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불(佛)도 내 생명과 둘이 아니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법당에 와서 절할 때 일정례를 하든지, 삼정례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도 부처님 법과 같고, 저렇게 앉아계시는 형상과 내 모습이 둘이 아니다' 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면서 법당에 들어와서는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저절로, 자신으로 한데 합치라는 말입니다. 항상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관해서 직접 체험하고 또 실험해 보아야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보살들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음이니 지장이니 약사니 하는 명호도 다만 이름일 뿐입니다.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름의 보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낱 이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아니 그 마음에서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재력을 가지고 찰나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되고, 항상 고통을 받고 끌간 데 없이 유전이나 인과, 그 모든 것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 일배를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근본에다 한다면, 또 삼천배를 하더라도 하나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 그렇게 체험을 하게끔 마음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그림 · 최주현

뿌리 돋워줘야 잎사귀 싱싱하고
꽃 만발해서 열매 크게 열리듯
모든 문제 열쇠는 내게 있어요

내가 '空' 함을 알면 붙잡고 끄달릴 게 없어
몸으로 한 삼천배보다 마음의 일배 더 중요

가족 또는 언덕을 넘나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주역8괘비전 명리학 통신강의
■ 과목 : 사주명리학, 수상학, 관상학, 작명학, 주역팔괘비전신점술
■ 한글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한문에 토를 달았음
■ 직강가능, 강의 후도 궁금증, 개업지도, 각종 자료 등 유기적 관계
■ 책 : " 한국인의 작명보감:가격10,000원 (송달료 포함)" 개운비법 등신 김관희 이야기 가격10,000원(송달료 포함)
■ 일반인 : 평생운 사업운 선기운 방세관단 등 감정함 (동양철학 강원) 금호철학관
0563)335-6708
0563)335-6748 / 011)533-7389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 474-8282 / 011)560-5698 (총무스님)
(선착순 100명)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승적번호 : 0170-0298 ◇성 명 : 임 윤이
◇주민번호 :370715-2400518 ◇법 명 : 일 보
◇사 찰 명 :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성리 산28번지 월궁사
본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귀 종단의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4. 24

구인구직

행자(男)모집
본 사찰에서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간간 : 4월 15일~5월 30일
· 연령 : 만19세 ~ 35세
· 학력 : 고(재)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학력이 되지 않는 자는 행자수련 기간 중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음
문의처 0342) 719-0408~9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선원 주지 합장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50대 ~ 60대)
양평군 양동면
정 토 사
0338)
771-8209,8210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보시금 약간)
0417)566-6301
011)9803-6301

55세이상 되시는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43) 954-6238
011)529-3713

토굴에서 정진하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제 · 49제기 · 기도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에서는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경주)
011)562-8640
동로 합장

인연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 가정화목
· 사업성취
· 불치병 치료
· 영가천도
· 친견하는 스님입니다
018) 633-1935

후원자를 찾습니다
본인은 업보 업장이 두터워 병고로 신음하고 있는 40대 비구니 수행자 입니다 간이 굳어지고 뼈와 근육이 굳어지고 방광이 오므라들며 잠만 자는것이 이 병에 특징입니다
몸이 이런데 치료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몸하나 편히 쉴만한 공간이 없어 잡도 절도 없는 고달픈 처지입니다
이런 절을 도와 주신다면 수행정진 열심히 하는것으로 그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이 있다면 저처럼 몸이 야파 늙고 병들어 오갈데 없는 수행자들이 바랑펴고 편히 쉴수있는 장소를(수행자양로원) 마련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서원입니다
보림있는데 돈을 쓰고 싶은 불자님들은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0416) 854-3695

스님이 없는 사찰에 가고 싶습니다
(인연있는 보살님 전화 주십시오)
011)
661-192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외관)
0545)
975-419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99)
932-5706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 달마상
45×70cm
(가로×세로)
※ 금강경10폭병풍
※ 자비등자
35×45cm
(가로×세로)
금모스님 합장 0561) 775-243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자병차 소탁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화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 / 011)737-4657

기타

한국불교예술문화원 부설
korea art gallery [인터넷 화랑방]
대한민국 미술작품전시 화랑방에서는
홈페이지 http://www. korea-art - gallery.org
동양화 서예 서양화 선화 도자기 공예 디자인 작가들의 상설 전시 작품을 공모 접수합니다.
02) 2242-0331 / 2242-0255
자유롭게 사고 파는 인터넷 생활정보 무료 매물 사이트
홈페이지 WWW. MEMULL.com
국제매물 자유시장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페인트 제거제(단청)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제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주직할시 5분거리 포교당
◆ 건평 : 65평,
토굴대지100평,사찰터720평,사찰대지230평 주차장, 암반자연수, 암반150m 지하수
018) 611-39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
◆ 평수 : 25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2동,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정각2개 황토방1개
◆ 가액 : 월세가능 답사후 절충
※ 입주가능, 공양주보살, 스님 구합니다
※ 인연닿는 행자스님(남, 녀) 모십니다.
0356) 582-0635 / 017) 708-06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 평수 : 1층 20평(공양간겸 방1칸), 2층 37평 (방2칸, 법당1)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1억 2천~7천만원 답사후 가격 절충
011)430-3344
※꼭 하실분 연락 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8,500만 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양보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토굴터 안내
◆ 위치 : 여주군 흥천면 하다리
◆ 건물 : 20평, 주방, 거실 욕실, 보일러, 방2개
◆ 가액 : 건물만 750만원
011)9855-0801
019) 225-4277

포교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평수 : 80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 시설완벽 (전통사찰에 버금감)
◆ 신도 및 불사미수금 기도비 인계함
◆ 가액 : 답사후 결정
011)303-6188(스님직접)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2동
◆ 평수 : 130평 산신각, 주방시설완비 법당 70평외 방5개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가격 절충
051)818-0663
011)843-5672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2동
◆ 평수 : 130평 산신각, 주방시설완비 법당 70평외 방5개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가격 절충
051)818-0663
011)843-5672

사 찰 안 내
◆ 위 치 : 당고개 전철역 6분거리 ◆ 대 지 : 400평(국유지:불하가능),
◆ 법 당 : 40평(부속방사3실포함) ◆ 요사채 : 30평(주방및 거실, 방2개)
◆ 가 액 : 2억 7천만원
◆ 특 징 : 주차시설 완비(약 20대분), 노천 나한님 20분 조성석조) 추가 480분 모실 시설 완비, 수락산 기슭에 자연 경관이 수려한 청정기도 도량으로 도심 포교의 최적지임.
◆영업안내 1. 사찰 양도, 매매, 전월세, 포교당,사찰부지, 상담안내 2. 부전스님, 의식 집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알선 3. 청동불조성(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4. 법종 조성 5. 기타 사암관련 정보제공
사찰 전문 용역 금강기획(구 금강실업)
02) 736-3578~9 / 359-9492 / 011) 789-2255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 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평수 : 290평, 법당22평 목조, 요사35평 기와
◆ 특징 : 포교최적지 기도도량
◆ 가액 : 1억 8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천평 법당, 요사, 산신각
◆ 특징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1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평수 : 4천평 법당, 요사, 산신각
◆ 특징 : 산세절경,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2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갓바위 뒷길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26.5평 (법당 +요사채, 98년 12월 신축),
◆ 가액 : 1억
※ 비구니스님 적합
053) 853-4418
011) 551-1998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덕유산 자락
◆ 건물 : 임법당30평,황토방1, 요사채1
◆ 가액 : 전세 1천만원 (건물위치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토굴(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 건물 : 25평 임법당, 큰방2개, 거실, 욕실
◆ 가액 : 건물만 1800만원 (답사후 가격 절충)
0371) 763-6032
011)9792-2078

사찰 안내
◆위 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거리)
◆대 지 : 60평
◆건 물 : 2층법당 40평 1층요사 40평 도심포교당으로 최적이며 모든 내부시설 최고급으로 완비
◆가 액 : 3억 5천 (대출가능)
한국불사 02) 561-7791 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 공원 밑
◆ 대지 : 200평 법당8평, 야외법당 25평,요사채 12평-2동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 572-2462
011) 828-6006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임곡
◆ 대지 : 103평, 임법당18평 요사채18평,시설비 비품대 일체 포함
◆ 가격 : 2700만원(조절가능)
※ 요양, 기도정진, 참선하실 비구니 스님 적합※
스님, 보살, 무속인, 몸만 오시면 됩니다.
0563) 335-7312 (주 · 야)
016) 664-0563

사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내칠2리 산287번지 화엄정사
◆ 부지 : 임야 12점보 법당13평, 요사채2채, 방6칸
◆ 산세좋고 물맑은 기도도량, 여보살의 몸이며 고령이라 이제 그만 수행생활을 정리하고 하산하여 남은 생을 보냄까 합니다 .인수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0561)751-5338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3)942-0700

과수원 하시면서 절 지으실 분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산207-2번지(사명대사 생가근처)
◆ 대지 : 2만평중 약 4천평 개간완료
◆ 길, 전기, 임시귀거할 가건물, 하우스 있음, 계곡깊고, 저수지 바라 보임, 추천 과수목 : 호두, 메실, 단시감
0551)296-7226
017)286-7226

아파트 안내
불사에 뜻이 있는 젊은사람입니다
◆ 위치 : 서울 노원 중계동 현대아파트
◆ 평수 : 33평 18층 건물중 13층
◆ 특징 : 투자전망 최고, 99년 9월 분양, 현금 또는 토굴과 교환요망
◆ 가액 : 전세 8천, 융자 2천 5백 현금가 5천만원
011) 308-5523

화상으로 신음하는 백두대간

동해안 산불 생태계 파괴 '여의도 140배'

농어업 피해 심각…호우·태풍 등 무방비

"태우거나 파괴하거나 물을 대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을 자연계를 지켜 가는 행위라 부른다. 성읍·부락·산림·천택(川澤)·잘 꾸며진 누각과 온갖 길과 모든 다리와 자연의 굴과, 모든 곡식·콩·삼·보리나 꽃과 과일·초목·숲 따위를 응당 태우지 말며, 응당 파괴치 말며, 응당 그것에 물을 대지 말며, 응당 베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여러가지 물건들은 어느 하나도 사람이나 축생에게 있어서 유용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 중생들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 바에는, 그 사용할 물건들을 태워 괴롭히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니건자경〉

연 9일동안 강원 동해안 일대를 불태운 산불은 〈니건자경〉의 가르침대로 자연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새삼 일깨워준다. 울창한 산림이 거대한 숫덩이로 변한 숲은 그 자체만이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라는 커다란 재앙을 초래하고, 농토와 바다를 오염시켜 우리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로 먹이사슬이 끊기고 씨앗의 이동이 차단됨으로써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생태학적 피해면적을 불에 탄 산림면적(1만4200여ha·서울 여의도의 47배)의 3배인 4만여ha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땅속 5cm까지 170~180도의 열기가 전달돼 땅속에 묻혀 있던 휴면상태의 식물종자는 물론 버섯 포자 곰팡이 이끼류 등 모든 생명의 씨앗들이 파괴됐으며, 특히 백두대간이 야생동물과 식물들의 중요 이동경로임을 감안할 때 생태계의 대대적 혼란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불로 인해 생태계의 무기·유기·물리적 환경이 모두 바뀜으로써 화재 이전 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자연을 소홀히 여긴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실감케 한다.

산불이 난 인근 농·어업이 입을 피해도 생태계 파괴 못지 않게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불에 탄 재와 검은 토사가 논밭과 인근 연안어장으로 흘러내려 농토와 바다의 '사막화'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6년 산불로 전북·소라·성게 등의 어획고가 70% 이상 줄어들면서 큰 피해를 본 고성군 어민들은 이번 산불로 아예 어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당장 올 여름 닥칠 집중호우와 태풍을 어떻게 견뎌낼지도 고민거리가 됐다.

'갈대'를 통해 인(因)과 연(緣)의 법칙을 말한 〈상응부경전〉의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하다.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 이 갈대단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갈대단 중에서 어느 하나를 치워버리면 다른 갈대단도 따라서 쓰러지고 만다."

하나의 존재가 홀로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관계지어져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은 자연의 생명력이 곧 인간의 생명력임을 말한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탄 백두대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에너지 아껴씁시다 환경운동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500여명은 1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에서 '에너지절약 실천 범국민대회' 행사를 마친 후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한-미 주둔군 협정 개정 시급"

변호사협 세미나서 강조

최근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SOFA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는 SOFA 개정이 시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불평등 조약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에 치외법권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SOFA가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는 잘 알려져 있다. 일례로 매년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살인·강도 등의 범죄는 92년 이후 연평균 603건에 이르지만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는 연평균 21건에 불과하다. 또 군산 미군기지의 경우 그동안 하루에 3,000t 이상의 오·폐수를 방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불평등이 심하다.

〈대살차니건자소설경〉에 "통치자의 첫째 의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백성의 어버이로서 그 백성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우리 국민의 인권과 환경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고용의무 '기업 나몰라'

10곳중 9곳 안지켜

기업체 10군데 중 9곳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장애인 2% 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수 300인 이상 1919개 사업체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곳은 10.3%인 19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상 사업체들의 전체 근로자 195만여명중 장애인 근로자는 1만여명으로 집계돼 장애인 고용률 역시 의무고용률(2%)의 4분의 1 수준인 0.54에 머물렀다.

〈증일아함경〉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병든 이에게 베푼 복덕은 부처님께 올린 공양에 비할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 있다.

장애인들이 '마음의 장애'마저 느끼지 않도록 기업들부터 앞장서야겠다.

월급중 1% 10년 동안 모아 불우이웃돕기

전경련 사무국 직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국 직원들이 10년동안 월급의 1%씩을 모아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해 온 사실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사무국 직원들은 90년 8월 '전경련 퍼센트 클럽'을 결성한 뒤 각자 월급에서 1%씩을 떼어 기금을 마련, 고아원과 양로원 위로방문, 소년소녀가장돕기, 환자 치료비 지원, 장애인가정 방문 등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결성 당시 42명이었던 회원이 현재는 73명으로 늘었고, 올해엔 4,500여만원의 기금을 모아 독거노인 지원과 장애인 가정 학비 지원, 환자 치료비 지원 등 불우한 이웃을 계속해 도울 방침이라고.

〈잡아함경〉의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로 거창하게 베푼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푸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작은 정성은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

시론

다시 평상심으로

4·13 총선은 끝났다. 선거전쟁에 이긴 자는 자칫 오만해지기 쉽고, 패배한 자는 좌절하기 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승자는 겸허해지고 패자는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총선결과는 국민의 뜻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기대를 받는 부분은 386세대들이 등장하면서 거물 정치인들이 퇴장한 것과 여성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했다는 사실이다. 젊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국회의원의 등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여성에게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국회가 여성에게 좀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해 준 점도 희망적이다.



한복룡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이번 총선은 역대 총선 가운데 국민투표율이 제일 저조했지만 총선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정치참여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난 선거이기도 하다. 한편 야당인 한나라당은 제 1당으로서 의석을 확보했지만 경상도지역에서 지역바람을 타고 싹쓸이를 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또 여당 역시 야당과 다를 바 없으니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는가. 시민들은 21세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책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강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질책을 정치인들이 겸허히 수용하는 것부터 16대 국회는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운 천년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는 선진적인 정치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이미 시작된 시민들의 국민적 저항운동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경실련이나 총선 시민연대 외에도 교수나 변호사단체 등 사회각계 각층의 단체들의 밑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하나의 혁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한다.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은 여당이 올바른 국정을 펴나가도록 견제하고 협력해야 한다. 여야가 서로 협력·존중하지 못하고 파벌과 투쟁을 일삼으면서 어찌 남북과의 화해를 논하고 통일의 염원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겠는가? 여야 영수회담은 우리의 국난을 타개하고 우리 민족의 나아갈 원대한 꿈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논하고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적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IMF 환란도 아직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름으로써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개혁작업이 중단되고 있으며, 민생과 관련된 법률도 처리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오는 6월에 있을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대처 방안을 차분하게 마련해야 한다. 서해안 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이나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 등으로 동요되고 있는 민심을 어루만져 주는 노력이 정치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야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력하고, 시민단체들도 불순세력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정화의 노력을 계속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며 이 나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리라 생각된다.

상생과 정의정치 '갈망'

대화와 협력의 정치만이 상생(相生)의 정치요, 번영의 길이다. 투쟁과 반목·질시가 난무하는 정치는 상극(相剋)의 정치요, 파멸의 길이다. 정치인들부터 평상심으로 돌아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지혜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백성(百姓)들도 평화와 질서를 터득하고 존중하게 된다. 서울의 정의(正義)가 평양의 부정의(不正義)가 되는 역사적 모순을 이번 16대 국회에서 극복해 주기를 바란다.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청정하니 우리의 모든 업장을 참회하여 우리나라의 앞날이 광명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평상심을 회복하자. 이 길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요, 통일의 길이며, 인류공존의 대열에 우리가 앞장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불자정보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봉축행사 동참 연등 만들기
봉사활동 동참하실 보살님 연락바랍니다
※ 유능한 총무보살님을 모십니다. (45세~50세)
논현동 공간속의 작은절
0502)444-8484

귄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극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복,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신성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0345)495-4848, 4845, 4846 FAX491-8548
지점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불자들을 위한 생활한복 염가판매
각종 중국차와 다구도 있습니다
茶侶
서울 구반포 한신종합상가 1층 나열 15-2호
02) 3477-533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2) 254-1929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문정동
◆ 법당 30평 , 삼존불
◆ 특징 : 즉시 법회 가능 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 월세 40만원
011)775-8200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창을 아십니까? 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창 강원도 특유의 빼어난 산세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지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 (명당자리)도 분양 합니다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총평수 : 10,000평
◆평당가 : 5~8만원
◆분양평수 : 300평이상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230-8048
018)462-0709

무엇을 해도 좋은 수도권 남부 노른자위 땅을 사정상 시세 절반값(3,5000원~50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치 및 평수 :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200평부터 15만평까지 평수다양, 분할 가능(필요한 만큼 가능함)
◆용도, 사찰, 납골당, 연수·연구원, 묘지, 토굴, 전원주택지 등
◆교통 : 오산IC 10분, 2002년 개통확정된 하북 전철역 5분거리에 위치
◆특징 : 무봉산, 주산, 주봉포함, 산에 100여평 동굴이 있고 전기, 전화, 수도 완벽
0333)662-6677/011)264-6677 Fax 0333)663-667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정릉)
02) 917-3363

◆ 사람을 찾습니다 ◆
성 명 : 장 선희
(700330-2808311)
화 엄 사
0582)534-8718
011)533-8718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824-3517
청운역리학원

법음 법패 수강생 수시 모집
매주 월·화요일 오전 10시~5시
기간 6개월
■초심반: 각단 예경의식
■발심반: 각단 불공시식 의식
■자경반: 사십구재의식 및 영산재
■연구반: 바라춤 승무작법 사물일절
대한불교 남파종문회 법음 법패 연수원
051)332-0289/018)396-3022

DDR 경연…사경…불상 · 탑 만들기…

청소년 봉축행사 '눈에 띄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준비 저희도 한몫 거들게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한 교계의 청소년단체와 종립학교들의 움직임이 다채롭다. 또 그동안 행사를 위한 행사만을 해 온 것으로 비난 받아 온 일부 단체에서도 올해는 실속과 특색을 두루 갖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파라미타 · 청교련 등 이색프로 준비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가 마련한 행사다. 그동안 사경대회와 제등행렬 정도로만 봉축 행사를 진행해 왔던 파라미타는 봉축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7일 종로거리에서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를 오후 4시부터 개최한다. 또 5월6일에는 '청소년 사경 공모전'에서 뽑힌 167점을 조계사 앞 거리에 전시하며, 관람객들과 함께 찰흙으로 불상 불탑을 만드는 '조형물 만들기'도 펼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가 5월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악연주, 탈춤, 마당극, 고전무용, 판소리 등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 참가접수는 5월6일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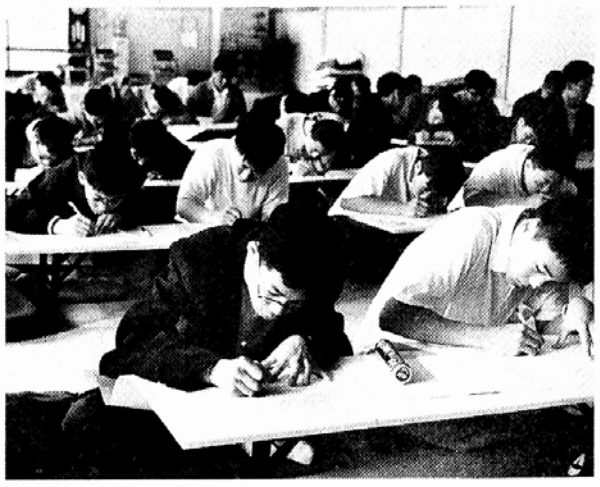
광동중학교는 5월10일 학교 법당에서 '창작등 경연대회'와 '불교문화 창작대회'를 연다. 특히 불교문화 창작대회는 카드 · 캐릭터 · 만화 · 조형물 등을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재치에서 찾아내겠다는 취지로 준비됐다. 또 D.D.R(춤게임) 경연대회와 연꽃 어울마당을 통해 봉축 행사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광동여고는 5월9일 '불교만화 그리기대회'와 '봉축백일장'을, 동대부중은 5월8일 교내 강당에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연등제작 경연대회'와 '전국 청소년 통일 환경 문화예술대회'를 가진다.

또 명성여고도 5월10일 '관음보살 상석 기념비 제막 및 탑돌이' 행사를 개최한다.

청소년파라미타협회 이병두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취향과 관심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봉축 행사도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청소년들의 행사가 풍성하다. 사진은 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 사경 공모전.

◇부처님 오신날 청소년 봉축행사

행 사	장 소	날 짜	연락처
댄스경연대회	조계사 앞 거리	5월7일	(02)723-6165
연꽃노래잔치	조계사 불교문화관	4월30일	(02)730-9108
탑돌이행사	명성여고	5월10일	(02)452-8655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동국대 중강당	5월28일	(02)735-6165
연등제작경연대회	동대부중 강당	5월8일	(02)2217-8423
불교문화 창작대회	광동중학교	5월10일	(0346)572-3046
불교만화그리기대회	광동여고	5월9일	(0351)873-9113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③ 대원군의 통도사 · 화계사 편액



◇통도사 금강계단 편액



◇화계사 요사 편액

석파 이하응(1820-1898)은 영조대왕의 현손으로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아버지이다. 그는 1843년 흥선군(興宣君)에 봉해지고 종친부의 유사당상, 오위도총부의 도총관 등의 벼슬을 지내기도 했으나,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아래에서 늘 움츠린 생활을 하였다. 1863년 철종이 후사없이 세상을 떠나자 익종비 조대비의 후원으로 둘째 아들 명복(命福)을 왕위에 세우고 섭정을 하였지만 서원철폐, 원납전 징수 등의 실정으로 인해 1873년 하야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서울 화계사의 만인(萬印)으로부터 충남 예산 가야사의 터가 "왕손이 나올 곳"이라는 말을 듣고 절을 불태워 그 자리에 부친의 묘를 썼는데, 훗날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왕위에 오르자 그 보답의 뜻으로 가야사와 가까운 곳에 보덕사를 세우기도 하였다.

그는 서울 화계사 〈명부전〉·〈화계사〉, 서울 흥천사 〈흥천사〉(해서, 예서)·〈옥정루〉·〈서선실〉, 남양주 흥국사 〈흥국사〉·〈영산전〉, 양산 통도사 〈통도사〉·〈영축산통사〉·〈금강계단〉·〈대방광전〉·〈원통방〉,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 편액 등 많은 사찰에 글씨를 남겼다.

양산 통도사 대웅전(적멸보궁) 앞쪽에 걸린 〈금강계단〉 편액은 그가 대원군에 봉해진 1863년 이후에 쓴 글씨다. 임금의 아버지가 쓴 글씨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금강과 같이 굳건한 계율이 설해지는 곳이어서 그런지, 글씨를 금색으로 칠하여 전각의 위엄을 더해준다. 편액의 글씨는 반듯한 해서로 강함과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원융(圓融)한 서미(書味)를 지녔다.

서울 화계사 보화루 앞쪽에 걸린 〈화계사〉 편액은 1866년 흥선대원군이 시주하여 대웅전을 중수할 때쯤 쓴 글씨이다. 액판 좌측에 두인과 우측에 "대원군장(大院君章)", "석파(石坡)"라는 방인의 도서 2과가 있으며 예서와 해서를 혼융한 질박한 서미(書味)의 글씨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통도사 '금강계단' **강함 · 부드러움의 원융조화**

화계사 '화계사' **질박함 풍기는 예서체 백미**

학부모 · 주민 불교 수업

동대부중 개설 '연꽃학교'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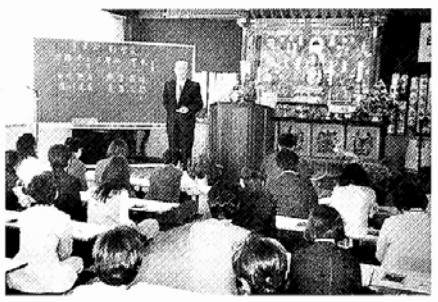
"부처님의 지혜를 잘 활용하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8일 오전 10시 동대부중 큰법당에서 문을 연 '동대부중 연꽃 불교학교'의 강의현장. 특별 강사로 나선 김상숙교장(동대부중)은 칠판에다 경전 내용을 옮겨 적으며 열띤 강의를 펼쳤다.

열평 남짓 되는 법당안에 빼곡히 들어선 50여명의 학부모들도 비좁은 공간에도 불구, 노트를 펴놓고 메모하는 등 열기가 가득했다.

이번에 다섯 번째인 '연꽃 불교학교'는 △부처님의 생애 △사찰예절 △근본교리 △대승불교 △불교문화 △봉축의 의미 등을 우인보 교법사가 두달 동안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 수강한다는 반야행보살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마련한 신행 강좌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간다"며 "아침에 아이와 같이 학교에 다니니 아들과 대화도 많아졌다"고 즐거워했다.



◇동대부중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불교기초 교리 강좌인 '연꽃 불교학교'를 개강했다.

건강백과

해독 요법

해독요법의 목적은 우리 신체의 모든 세포가 최적의 상태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신체로부터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장 기능을 회복하고 소화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곧 해독 요법이다. 신체 고유의 재생과 치유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응세박사(예한의원 원장)의 6단계 해독요법을 소개한다.

첫째, 건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한다.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을 줄이며 유기농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인체에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줄인다.

둘째, 순환을 증진시킨다. 손상된 조직에는 신체의 자정작용으로 영양분, 산소, 질병 방어세포가 전달된다. 이는 신체가 스스로 정화작용을 일으켜 대사산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등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운동과 레이저 치료는 혈류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긍정적 사고로 스트레스 해소

땀 흘리고 인스턴트식품 줄여

셋째, 배출을 강화시킨다. 피부의 땀선, 신장, 장과 같은 배설통로를 열어주고 강화함으로써 배설이 잘되게 한다. 장 해독요법이나 피부 발한요법도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사우나가 좋다.

넷째, 위장계를 회복시킨다. 장관계의 불균형은 해로운 박테리아와 효모균을 조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을 만들어 낸다.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좋다.

다섯째, 간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간은 피를 맑게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한약인 대계(밀크티슬)를 복용하여 담즙의 생성을 자극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섯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마음의 독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또 명상요법, 취미, 독서 등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심신의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탄신

청교련 아산지부 어울마당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아산지부는 23일 뿌란나 애육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열린마음! 한마음' 행사를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불우시설 방문을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풍물놀이,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흥겨운 놀이 마당이 끝난 뒤에는 보육원 청소와 원생 돌보기 등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도 이어졌다.

장애인 나들이 행사

우리는 선우는 5월14일 오전 10시 육군사관학교에서 '제7회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게임을 비롯해 음악공연, 장기자랑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02)2278-8672

파라미타 신입회원 입회식

파라미타대전지회는 15일 보문고 대법당에서 '2000년 신입회원 입회식'을 거행했다.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해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 자리에서 이은정 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 광명의 정신을 항상 가슴에 깊이 새겨 불우한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건강한 청소년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42)623-2461

광동학원 5백명 수계식

광동학원 교법사단은 5월8일 봉선사 청풍루에서 광동학원 3개학교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합동수계식을 봉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계법회에 이어 풍물놀이와 게임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해 봉선사 경내 및 부도밭에서 환경 봉사활동도 펼친다. (0351)873-3972

어린이날 부처님 그리기대회

'불광' - 목아박물관 공동주최

어린이 날을 맞아 부처님을 그리는 그림대회가 열린다.

월간 '불광'과 '여주목아박물관'은 공동으로 5월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목아박물관에서 '제6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를 마련한다.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됩시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 외에 '신나는 서바이벌 따라잡기' 놀이도 함께 펼쳐진다.

이번 대회의 참가대상과 부문은 유치원 · 초등1~2학년은 크레파스화, 초등3~4년은 수채화, 초등 5~6년은 목판화 등.

한편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은 제5회까지의 수상작 39점을 담은 '역대수상작품집'을 발간했다.(www.bulkwang.org/grim.html)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본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 · 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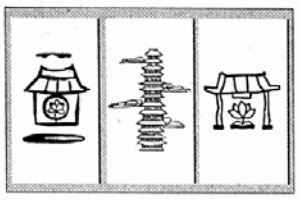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협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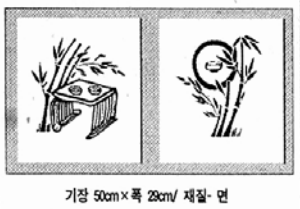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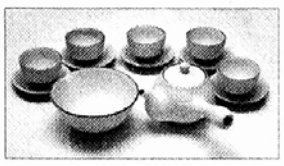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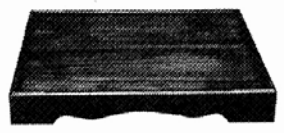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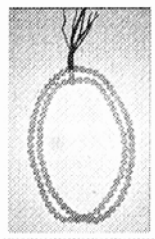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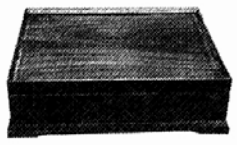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건강 옥염주



청옥 · 백옥(小)
가격:₩30,000
청옥 · 백옥(大)
가격:₩40,000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일 반 ₩27,000
숯기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8-025009
· 의장등록14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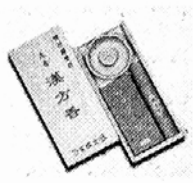


천연향방
악항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항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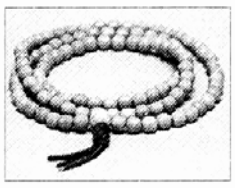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항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6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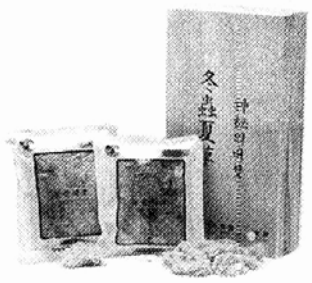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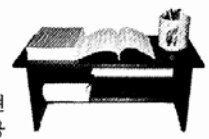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
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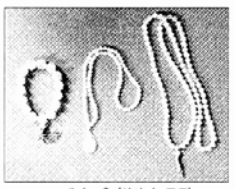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신라의 미 하면 가장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에밀레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현존하는 신라시대의 범종중에서최대의 성덕대왕신종은 당시 종장(鍾匠)의 애절한 전설과 함께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조의 장구한 세월과 만고풍상을 견디어 그 자태는 본래의 모습대로 오늘날까지 국립 경주 박물관에 잘 본존되어 있다.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은 구경2.227mm 전고 3.663mm, 두께203mm, 음통고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동양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나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명종이다.

이 종은 신라 제 35대왕인 경덕왕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덕대왕을 위하여 구리12만근을 들여 만들다가 실패하여 그 아들은 혜공왕 7년(771년)에 완성된것이다. 처음에는 성덕대왕의 원찰인 봉덕사에 걸려있었는데 그 뒤, 경주읍성의 남문, 동부동의 옛 박물관을 거쳐 197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종의 꼭대기에는 우리나라 종만이 갖고 있는 용의 형태로 된 고리가 있다.

몸에는 위로부터 보상당초무늬를 새긴 윗띠와 연꽃으로 장식된 4개의 유곽,무릎을 꿇은 채 날아 내려오는 4개의 공양각으로 되어있다. 우아한 형태임격한 양식, 아름답고 긴 여운이 깃든 소리등은 다른 종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걸작중 하나로 손꼽힌다.



팔각틀 에밀레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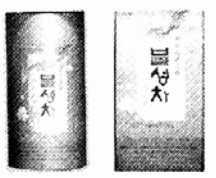


정사각틀 에밀레종



직사각틀 에밀레종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9,5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주목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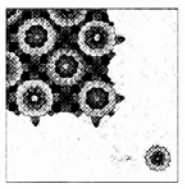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신경미 Flute 소품집(CD)



가격:
₩10,000
메일 ₩5,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허여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길 확인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에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텐 심이 LED램프의 충임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검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현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니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동체대비

최근 삼척, 동해, 강릉, 고성 등 영동지역 4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 1만4272ha, 건축물 614채가 불타고, 가축 1360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를 약속했지만 이재민들의 마음까지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따뜻한 동체대비의 정신이 필요하다.

부처님은 이웃들이 온갖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대비심(大悲心)을 내야 한다고 설했다. 부처님은 "온 세상의 낱낱 이웃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무량겁을 지내면서 그들의 덕을 충만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버려두고 모른체하지 않으리라." 보살은 모든 것이 무아(無我)라고 생각하고 대비심을 일으켜 모든 이웃을 구제하면서도 그 일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한마음으로 힘모아, 쉽게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부처님의 동체·대비 자비정신을 들어보고, 직접 자비의 실천행을 펼쳐보자.

고통받는 중생 보면 구제하라

▨일체중생에의 대자비심은 여래의 실(室), 부드러운 인내는 여래의 의(衣), 일체는 공(空)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래의 좌(座)이다. 〈법화경〉

▨일체 지수(地水)와 일체 화풍(火風)이 모두 내 전생의 몸이니 항상 산 목숨을 살려주어야 한다. 〈범망경〉

▨보살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남만을 사랑한다. 그러기에 중생을 성숙시킴이 저들 세속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다. 〈대승장엄경론〉

▨보살은 한 중생에게도 친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음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없는 자비심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시방의 온갖 중생을 두루 살펴본 끝에 한 중생이라도 괴로움을 지닌 자를 보았을 때는 자식같이 사랑하여 대신해 괴로움을 받음으로써 그 중생이 괴로움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준다. 이런 자비심이 작용하는 까닭에 온갖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고, 대비(大悲)의 뛰어난 보살행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광석보리심론〉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갚음을 따르리니 인색한 마음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잡아함경〉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증일아함경〉

▨설사 신에게 백천번 기도하고 모든 외도에게 공양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베푼 공덕의 1/16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얻은 재물로 거창하게 베푼다 해도 깨끗한 재물로 베푸는 작은 보시의 공덕에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잡아함경〉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그러한 공덕은 내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느니라. 〈분별보시경〉

▨보시하는 마음에 부처님 뵙고 구제받는 인연 맺으리라. 선과 악은 제 갚음을 받는 법, 자신이 닦은 선악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전날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는 지금 받는 과보로서 알 수 있느니라. 〈증일아함경〉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 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함 시하득대령경〉

▨만일 국왕이나 대신 장자 브라흐만이 가장 빈궁한 사람이나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의 가지가지 불구자를 만나 보시할 때에 대자비로 하심하여 웃음을 머금고 친히 손수 보시하거나, 혹은 남을 시켜 보시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 이들이 얻는 복은 많은 부처님께 보시하는 복과 같다. 〈방등경〉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벽지불에서 범부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마음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베풀어야 하느니라. 〈증일아함경〉

신행 캘린더

4월26일 (수)

■봉선사합창단 창단 17주년기념 음악회=봉선사는 오후 7시30분 국립극장에서 '봉선사합창단 창단 17주년 기념연주회 및 창작찬불가 발표회'를 개최한다. 0346)527-1951

■불교문화센터 도법스님 초청 4월 '다보법회'=불교문화센터는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실상사주지 도법스님을 초청해 4월 '다보법회'를 개최한다. 02)703-0108

4월27일 (목)

■천태종 관문사 유물전시관 개관=천태종 관문사는 오전 10시 3층 강당에서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이날 개관하는 유물전시관에는 탱화·불상·도자기 등 1백여점이 상설 전시된다. 02)3460-5300

4월28일 (금)

■길상사 관음보살상 봉안식=성북동 길상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관음보살상 봉안식을 거행한다. 이 관음보살상은 카톨릭 신자인 원로조각가 최종태씨가 제작했다. 02)3672-5945

■금룡사 최수임주지 진산식=은평구 금룡사는 낮 12시 대웅전에서 '최수임주지 진산식 및 영가천도대재'를 봉행한다. 02)383-3346

■좋은벗들 '북한의 식량난' 통일강좌=좋은벗들 정안숙 사무국장은 나서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난민 문제'를 주제로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대강당에서 통일 강좌를 연다. 02)587-8996

4월29일 (토)

■보조사상연구원 '불교의 연기론' 월례발표회=보조사상연구원은 오후 2시부터 불일문화회관에서 '불교의 연기론과 상담'을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실시한다. 1번 발표회에서는 윤호균교수(가톨릭대)가 발제하고, 권성만교수(서울대)와 전재성씨(한국빨리성전협회장) 등이 논평한다. 02)733-5311

■조계종 제1회 사찰생태문화기행=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신문사는 공동으로 '제1차 사찰생태문화기행'을 1박2일간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리산 실상사 및 유기농장, 지리산 댐건설 예정지 등을 기행한다. 02)735-5864

4월30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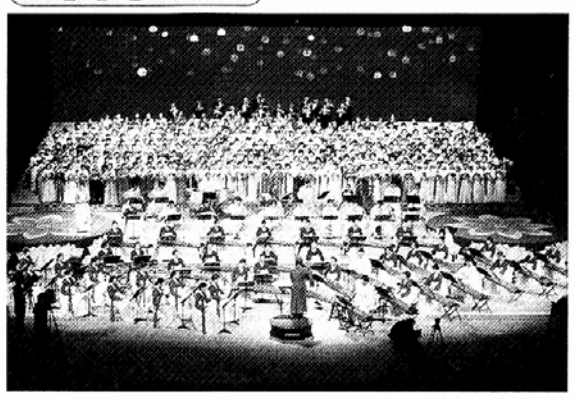
■다보사 혜정스님 초청법회=둔촌동 다보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개원 2주년을 맞아 혜정 법주사 율주스님을 초청,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475-6632

■전북불교대 한마당 체육대회=전북불교대학은 오전 9시30분부터 '2000년 한마당 체육대회'를 전주 중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0652)226-7878

■터사랑 선운사 답사=터사랑답사회는 '선운사 동백꽃과 판소리의 산실' 이란 주제로 답사여행을 떠난다. 선운사에서는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동백꽃을 만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판소리의 중흥조인 신재효 생가를 답사한다. 02)725-1284

■서불청 연꽃노래잔치=서울불교청년회는 오후 1시 조계사 불교문화교육관에서 '제12회 연꽃 노래잔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02)730-9108

5월1일 (월)



◇각 공연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을 기리는 음악 공연들로 풍성하다. 부처님의 주옥같은 감로 법문과 선사들의 행적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든 불교공연장을 찾아가 보자.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깊은 뜻을 가슴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 사진은 중앙대 박범훈교수가 지휘한 국악교성곡 '용성'의 공연 장면.

■창작음악극 '진감' 공연=문화관광부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공동으로 2일까지 '국립극장 개관 50주년 기념 및 국립국악관현악단 제19회 정기공연 진감(박범훈 작곡)'을 오후 7시30분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선보인다. 02)739-1830

■원성스님 음악회=수원포교당 소년소녀합창단과 원성스님이 준비중인 음악회 '그림으로 못다한 동승의 노래-중경'이 3일까지 오후 7시30분 종로 연강홀에서 열린다. 02)582-4131

법회안내

'21세기 선사상' 법문



서옹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스님은 27일 오후 3시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광주불교방송 개국 5주년 기념법회'에 초청돼, '한국의 선사상, 21세기 정신문명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법문한다. 062)520-1114

보문사 용왕재 초청



설정 덕숭총림 수덕사 회주스님은 28일 오전 10시 강화 보문사 대웅전에서 '용왕대재'에 초청돼 법문한다. 032)933-8271

'생활속의 법문' 설법



박완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26일 저녁 7시 청주불교방송 10층 공개홀에서 '생활속의 법문'을 주제로 강의한다. 0431)294-5115

'반야사상 기원' 특강



정병조 동국대교수는 5월4일 저녁 7시 '대승회 창립 10주년 특별법회'에 초청돼 '반야사상의 기원'을 주제로 강의한다. 02)736-4848

게시판

알림

▲경증장애인 여성판촉부=경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안일 가능한 파출부를 모집한다. 연령은 55세이하이며 복지관에 등록하면 1일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기간은 30일까지. 0443)652-0900

▲소쩍새마을 연등밝히기=승가원 소쩍새 마을에서는 5월11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의 연등 1만등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소쩍새마을 재활작업장에서 만든 합죽주, 단주 등을 판매한다. 0371)762-9870

▲부모교육프로그램=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집안에서 자녀들의 열린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을 여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02)421-6077

▲가족등반대회=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30일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아동보호 교실'에 참여하는 아동 가족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금오산 가족 등반 대회를 실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0546)458-0230

모집

▲불교귀농학교 참가자=인드라망생명 공동체에서는 '제6기 불교귀농학교'에 참가할 학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5월4일부터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강의한다. 02)733-1884

▲녹음 봉사자=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은 '맑고향기롭게 소리봉사회'에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자들은 시각장애자들을 위해 향기로운 말이나 글들을 녹음하는 일을 하게 된다. 053)753-8883

▲간병인=인덕노인복지관에서는 30~50세 여성을 대상으로 간병인을 모집한다. 자격은 간병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간병교육수료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02)385-8205

▲법문테이프 제작 봉사자=능인선원에서는 일요법문 및 가정법회의 내용을 테이프로 제작하는데 일손을 거들어 줄 봉사자를 찾고 있다. 02)577-5800(교환 442)

▲대안교육 참여=실상사 '작은학교'에서는 대안교육에 참여할 수학·과학 전공교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안교육 가능한자. 0671)636-3369

▲경로식당 봉사자=군산불교신도연합회에서는 군산역 앞에서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로식당에서 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654)443-1080

▲독거노인 후원품=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무의탁 독거 노인들을 위한 다용도 선반·의료기구·운동기구 및 각종 생활용품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02)365-3677

강좌

▲사경·서예등 문화강좌=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제2기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강좌 내용은 서예, 사군자 그림, 전통 반야심경 사경 등이다. 25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운장 법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02)2242-0331

▲국악강좌=어울림문화원에서는 국악 강좌를 마련한다. 강좌 내용은 단소, 대금, 가야금, 장고, 민요 등이다. 0331)256-6938

▲종교기초교리=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는 5월18일부터 '제1기 열린 종교 시민대학'을 개설한다. 강의 내용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 기초교리.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강의료는 월 1만원. 051)816-2241

▲일어강좌=갈음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에 60세이상 노인을 위한 일어교실을 연다. 수강료(교재는 별도)는 무료다. 02)985-0161

▲불교입문교육=불광사는 '제19기 불교대학' 강좌를 개설한다.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강의하며 교육 내용은 불교의식 및 기초교리다. 02)414-4407

▲성훈따주기=수효사는 성훈따주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소는 수효사 문화원이며,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효사 주지 무구스님이 지도한다. 02)313-3060

화촉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윤승환씨는 29일 오후 3시 동국대 상록원에서 종단협의회 사무국 황은녀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732-488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 전국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편리한 "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를 위하여 전국의 지사를 안내합니다.

지사명	주 소	전화번호
본 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02)737-8881(代)/737-0090
강릉지사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397 서일아파트 A동 503호	(0391)643-5599/019)366-1315
고성지국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옥천사내 청련암	(0556)672-0078/011-836-0078
광주지사	광주시 서구 치평동 210-6번지	(062)375-9986/016-602-7544
대구지사	대구시 동구 용계동 1013-1 새마을금고 2층	(053)983-9222/011-813-3679
목포지국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4-3 목포불교대학 4층내	(0631)279-3788/019-644-0701
밀양지국	경남 밀양시 무안면 마흘리 213 용정사	(0527)353-1196/017-650-1196
부산지사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빌딩 6층	(051)634-5114
안산지국	경기 안산시 원곡동 838 은하연립 108동 202호	(0345)494-8859/011-9912-8859
영주지국	경북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42-17	(0573)674-1199/011-546-3788
울산지사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2동 693-2 3층	(052)257-7737
진주지사	경남 진주시 신안동 현대2차아파트 205동 1202호	(0591)743-5020/016-585-2120
제주지사	제주시 연동 320-44	016)695-6885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변동 254-105 칠풍사내	042)527-0559/011-9846-2115
일본지사	日本國 大阪市 生野區 勉強 2丁目 11-4 現代佛教新聞社 日本國 支社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35-16	0347-766-0242/011-265-5118

3년결사 천일기도 부처님 봉안 및 부처님 오신날 연등모연문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세천년을 맞아 가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소납은 지난 2년간 대한불교조계종 제 22교구본사 해남대흥사 부산포교원을 통해 포교활동을 해오던바 수행에 미흡함을 느껴 조그마한 토굴을 마련해 3년간의 수행 결사 천일기도를 봉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골토굴에서 부처님을 새로이 모시고 기도를 함께 있어 부족함이 너무도 많아 부처님 봉안에 불자제위님들의 동참을 서원하게 되었사오니 3년기도정진에 함께 발원하여 젊은 스님이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다면 더 없는 큰힘이 되어 기도정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여인이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연등 공양을 올리듯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하나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부처님 봉안 보시	일금 원
1년 연등 보시금	일금 원

온라인보시함

- 부산은행 : 031-12-029001-8
- 국민은행 : 129-24-0017-171

예금주 : 정명학

부처님 봉안 3년 결사 천일기도 입재일 : 2000년 4월 17일(월)오전11시 회향일 : 2003년 4월 좋은날

♣ 축원카드(가족사항)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지극정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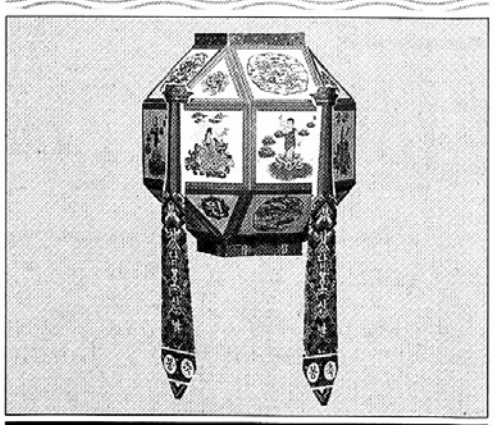
주 소			
띠 생	성 명	띠 생	성 명

주소 : 경남 남해시 진례면 시례리 상촌마을 324번지
전화: (0525)345-3127 팩스 : 0525)345-3128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 대각선원 도학합장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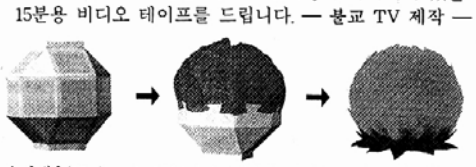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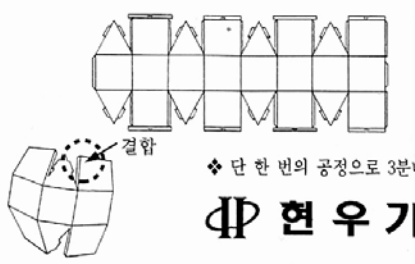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서울 중계동 **도심포교당 법장사**

9년만에 새법당 둥지

출·재가자 재정·행사 공동운영 '눈길'

창건때부터 스님·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사찰재정 공개운영으로 주목 받아온 법장사가 투명한 사찰재정 공개운영에 힘입어 창립 9년만에 자체 법당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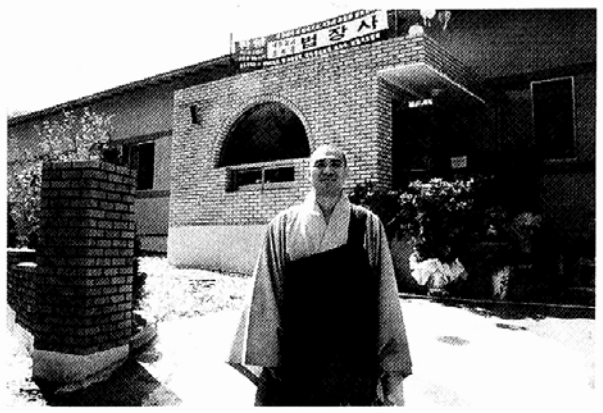
서울 중랑구 묵1동에 소재한 봉화산 법장사(주지 법장·중앙승가대교수)는 23일 조계종 원로 성수스님을 증명법사로 감격적인 사찰 건립 낙성식을 가졌다.

91년 창동역앞의 빌딩 건물(60평)을 임차해 창립, 93년 중계동 빌딩(150평)으로 이전하면서 모범적인 도심 포교당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법장사가 드디어 300평 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대법당, 선방, 교육관, 유아실, 기도실, 환희실, 합동친교실 등을 갖춘 도량으로 거듭난 것이다.

서울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포교당으로서 법장사가 주목을 받아 온 까닭은 출·재가가 함께하는 사찰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을 공평무사하게 진행한다는 것. 상임법사 스님 6명, 거사회·청년회, 각 지역법회 임원, 영산불교대기수별 임원, 사무장, 편집장, 중고등학생 및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등 50명에 이르는 운영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신도들의 기도금 접수에서부터 건축 불사에 이르는 사찰의 재정과 주요행사를 직접 관리해 온 것. 사찰 구성원 모두가 '절의 주인'이기에 주지 법장스님은 '총신도회장'이란 직함을 또 하나 갖고 있다.

하지만 법장사의 성장 배경에는 성공 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97년 11월18일 서울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내동택지개발지구의 종교부지를 10억원에 매입하자마자 IMF 관리체제가 시작돼 사찰 기공식을 하지도 못한 채 1년간 1억원의 이자를 지불하는 등 힘든 난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주지 법장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의 끊임없고 간절한 정진과 기도 덕분이다. 조석 예불은 물론 때를 가리지 않는 사찰 구성원들의 수행력이 다른 포교당 보다 특별한 점이었다. 이는 물론 '수행과 포교'를 둘로 보지 않고 매년 1회이상 전국 선원에서 안거에 드는 법장스님의 '실천궁행'에 기인한 것이었다.



◇서울 중랑구 신내4단지 아파트지역에 자리잡은 법장사 앞에 선 법장스님.

수유동 운가사에서 지도하던 어린이법회 출신 10명의 청년 불자와 함께 시작한 포교당은 처음 불상조차 마련하지 못해 석굴암 본존불 사진을 모시고 개원법회를 봉행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만에 본존불과 관세음보살, 문수보살상을 모시면서 포교당에 신도들이 늘어나기 시작, 영산시민불교대학을 연지 9년만에 21기 2천명의 새 불자를 양성했다. 현재 신도는 1750세대(약 8000명).

"유치원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아직 할 일이 많다"는 법장스님은 "기도하지 않는 포교당은 무너져요. 포교는 머리로 하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해요. 입이 아닌 손과 발로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02)948-311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종단소식

조계종

자비의 집 현판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구지부 동화사소속 노인무료급식소 자비의 집(원장 최동원)이 지난3일 중구 남산동 보현사옆으로 이전한데 이어 20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053)253-1082

한암·탄허스님 추모비제막

제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는 5월1일 오전 10시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암 대종사의 제125주기 탄신재를 겸해 한암·탄허대종사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한다. 추모비는 상원사에 건립된다. (0374)332-6661

태고종

극락사 평화의 탑 점등

포천 극락사(주지 신명)는 남북평화통일 및 조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평화의 탑 점등식을 27일 저녁 8시 월정리 전망대에서 개최한다. 이날 점등 법요식에는 인곡 총무원장을 비롯 종단 스님들과 경기북구 지역 사암 주지, 극락사 신도, 6사단장을 비롯한 군불자 등 5백여명이 동참한다.

천태종

대광사 요사채 상량식

분당 대광사(주지 운덕)는 요사채 상량식을 28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5번지 현지에서 개최한다. 이날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342)712-2269

진각종

심인당 부지매입 의결

종의회(의장 휴명)는 19일 제321회 정기종의회를 열고 진기 53년도 통리원, 교육원 등 각 부 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또 서울 명선심인당, 경주 선혜심인당, 포항시 장성동 부지 매입 등을 의결했다.

18~19일 춘기 스승강공

교육원 주관으로 18~19일 이틀동안 성북구 총인원에서 종단 소속 전스승(정사 대정사 전수 대전수 종사 대종사 등)과 종립학교 정교, 교화시무를 대상으로 한 진기 54년 춘기 스승강공을 가졌다. '대 참회로써 미래를 열자'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공은 일정교육원장이 주제강론, '참회와 불공' '참회와 보리심 등 교법 강의, 정원각 대전수와 염화인 전수의 체험법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법화종

'평화의 종' 종각 기공식

27일 정오 관문점 비무장지대 도라 OP 전망대에서 제1사단과 함께 점등법요식을 갖고 아울러 '평화의 종'을 봉안할 종각의 기공식을 봉행한다. 평화의 종은 평화통일과 국운융창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한 규모 1천여관의 대종으로 오는 8월 15일 광복절날 봉안식을 가질 예정이다. (02)764-2678

조동종

내달 26일 종정 추대식

승정원(원장 춘담)은 18일 청련사 승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제3대 종정 윤지명스님의 추대식을 5월 26일 오전 11시 하림각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승정원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무량종

총무원 은암정사로 이전

총무원(원장 지은)은 20일 부산 은암정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총무원 사무실을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정사로 이전키로 결의했다. 새 총무원 전화 (051)292-4586



◇양산시사암연합회는 16일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위안 잔치 및 효부 효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찰 경로잔치 잇달아

초파일·어버이날 앞두고

초파일과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노인경로잔치가 잇따르고 있다. 사찰에서 개최하는 경로잔치는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효사상 보급을 통해 국민 정서 순화와 윤리의식 제고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지역포교의 큰 방편이 되고 있다

양산시사암연합회(회장 도봉)는 16일 천불사에서 '경로 위안잔치 및 효부 효자, 모범소년·소녀가장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또 울산 정토사(주지 주지 덕진)는 17일 지역노인 500여명을 초청, 경로위안 잔치를 펼쳤으며, 울산 청룡암(주지 종현)도 22일 '제2회 경로 큰 잔치'를 열었다.

또한 부산 삼광사(051-808-7111)가 5월4일 오전 11시 제6회 삼광효행상 및 제9회 경로잔치를, 경기 남양주시 불암사(0346-527-8345)가 26일 오전 11시 제2회 노인잔치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두송복지관(4월21일) △개금복지관(5월 6일, 21일 경로관광) △몰운대복지관(5월8일) △용호복지관(5월 8일, 19일 온천관광, 21일 경로관광) △공창복지관(5월12일) 등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경로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 성북구사암연합회(02-914-5447)=26일 오전 10시30분, 성북구민회관 △대구 관음사(053-474-8228)=29일 오전 10시 노천법당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051-552-1283)=5월1일 정오, 동래문화회관 △부산운불련(051-624-7667)=5월7일 오전 10시, 부산역 광장서 영정사진찍어주기 △금정불교대동창회(051-866-7277)=5월4일, 장소 미정 △안성 도피안사(0334)676-8700=5월11일, 하루 종일 △부산 해운정사(051-746-2256)=5월5일 오후 1시30분 등의 경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산불 이재민 돕기 탁발

석림회·월정사등

'동국대 경주캠퍼스 석림회 법사단'은 28일 오후 3시 '강원 산불 이재민과 불우이웃 돕기 자비의 탁발'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제1회 탁발의 날 선포식'(동국대 녹야원), 유행삭발(경주시내), 점등식 참여(경주역) 등으로 진행된다.

석림회 법사단 법철스님은 "탁발행사가 걸사의 정신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성을 밝히고, 불교가 이웃에게 화해와 원융의 자비행, 이타행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진각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은 17일 삼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성북구청을 통해 350여만원 상당의 쌀을 전달했으며, 승가원(이사장 현성)은 18일 삼척시에 감자 300박스를 내놓았다. 또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도 19일 이불·의류 등을 내놓고 이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영동사암연합회와 월정사, 신흥사 역시 지난 12일 '자비의 탁발행사'등을 벌여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게 성금 700만원과 냄비, 의류 등을 전달했다.

한명우·김재경 기자
(mwhan@buddhapia.com)

20~23일 계룡산 산신제

문화공연·학술회도

계룡산 산신제 보존회(회장·구중희 공주대교수)는 20~23일 국립공원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 및 계룡단 터와 웅진동 금강변 고마나루 웅진단 터에서 계룡산 산신제를 거행했다. 불교·유교·무속 3교의식으로 거행될 계룡산 산신제는 신원사의 불교식 산신대제, 공주향교의 유가식 산신제례와 수신제례 등으로 거행됐다. 또 이 기간에 '동북아시아의 산신신앙'이라는 주제의 계룡산 산신학술제도 열렸다.

김재경 기자

5대총림 방장 친견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스님)는 27일부터 조계종 5대총림의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마련한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28일)을 시작으로 해인총림 해인사 법전스님(5월5일), 조계총림 송광사 보성스님(12일),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스님(19일), 고불총림 백양사 서옹스님(26일)을 차례로 찾아 친견법회와 도량참배 시간을 갖는다. (053)766-3747 김재경 기자

관음사 자인당 낙성

포대화상 점안식도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는 19일 원통보전에서 포대화상 점안식 및 자인당 낙성 법회를 가졌다. 요사채인 지상 3층의 자인당은 총 5억 9천만원의 불사로 종무소, 대중선방, 스님방 등을 갖추고 신도들의 신행과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구별한 현대적 사찰 구조로 설계 되었다.

부산=천미희 기자

금강경 독송회 영령 천도재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6일 신라-백제간의 격전지였던 황산벌에서 650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순국 영령 천도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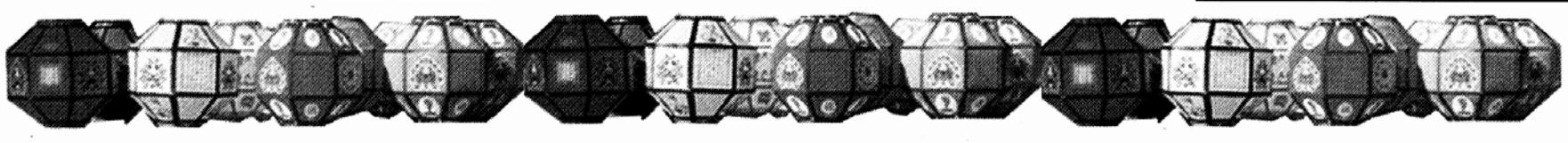
이날 김재웅법사는 "민족사 속의 국난이나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떠도는 한 맺힌 영가들이 천도되어야만 나라의 기운이 안정되고 미래가 밝아진다"면서 "1400여년간 지속되어 온 전라-경상도의 지역감정이 부처님의 법력으로 편안해 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동회는 93년 낙화암 삼천궁녀 천도법회를 시작으로 94년 낙동강 다부동전투지, 95년 공주 우금치고개(동학농민전쟁) 등 역사적인 전적지나 한이 서려있는 곳에서 천도법회를 봉행해 왔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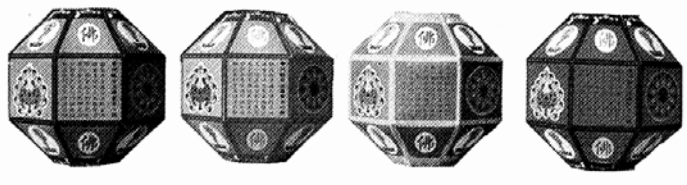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이쓰터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732-1522(직)
02)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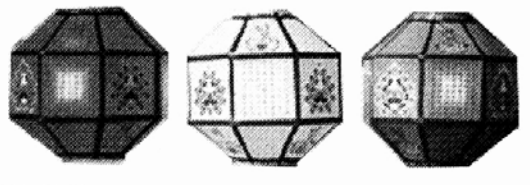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

눈길끄는 봉축행사 3題

불기 2544년 올 봉축행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예술제를 비롯해 신행 및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이중 '불교 이해하기 정보사냥 경시대회' '자비릴레이봉사' '불교인권문화제' 등은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라는 올 초파일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일반의 시선을 끌만한 프로그램이다.

인터넷시대 포교아이디어

불교 정보 경시대회 목동청소년수련관(관장 정륜)이 4월30일과 5월14일 두 차례 실시하는 '불교 이해하기 정보사냥 경시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시대에 어울리는 봉축행사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이 갖가지 정보를 통해 불교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기획된 것. 그런만큼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교관련 사이트들을 청소년들이 직접 방문해 보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대회진행은 중·고등부 각각 18명이 문제가 수록된 디스켓 1장을 받아 문제를 확인, 정답과 정답이 있는 사이트 주소를 디스켓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 물론 출제문제는 모두 불교관련정보를 탐색하는 것이고, 입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주어진다. (02)2646-6819

불우노인에 부처님 자비를

자비릴레이 봉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가 5월10일 오전 10시부터 탑골공원에서 벌이는 '자비릴레이봉사'는 불우노인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이색행사다. 이곳 탑골공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줄잡아 300여명. 평소엔 소일거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루하지만 이날만은 몸과 마음의 주름을 활짝 펴게 된다.

이날 진행되는 봉사활동은 이·미용, 수지침, 영정사진 찍어드리기 세 가지 분야. 모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자원봉사자들이 나선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학생들, 그리고 불교자원봉사연합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시민대학에서 이·미용 단기과정을 거친 수료생들과 수지침 봉사단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영은사, 신흥사, 방생선원, 사천왕사, 원각사 등 서울지역 사찰 신도들도 행사 참가 노인들의 편의를 돕는다. (02)723-6258

인간존엄 되새기는 초파일

불교 인권문화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가 5월7일 오후 4시 종각 국세청 앞에서 개최하는 '불교인권문화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과 함께 통일의 의미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되새긴다는 의미있는 행사다.

'장기수 그 못다한 이야기들'이라는 행사제목이 말해주듯 비전향장기수들의 고통스런 삶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귀향을 촉구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 이미 출소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참석하며, 법요식에 이어 안치환, 유진박, 권진원, 이정렬 등 인기연예인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공연 티켓 판매 수익금을 비전향장기수들의 후원과 송환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불교장기수후원회와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원회 등 인권단체에 전액 지원함으로써 부처님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자비행도 실천하게 된다. (02)725-4277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불교문화상품 개발 '붐'

경남도 가야문화유산 관광코스 마련

충북도 '법주사 탑돌이 보존회' 구성

영광군 백제불교 도래지 기념사업

가야 남방불교 유적, 백제불교 초전지인 영광 법성포, 법주사 탑돌이 등이 불교관광상품으로 본격 개발된다.

경남도는 15일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 온 허황옥의 흔적을 더듬어 볼수 있는 관광루트(진해 용원에서 김해까지)를 개발하고 신어사, 장유암, 칠불암 등을 연결하는 남방불교와 장유화상을 주제로 한 가야문화유산 관광코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5월 하순까지 개발되는 가야불교문화 상품은 합천 해인사와 양산 통도사 등 기존의 사찰 중심의 불교탐방 상품과 연계,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곳으로 전하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 진내리 일대를 성역화하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성역화사업추진위(공동위원장 다정 백양사주지·종걸 화엄사주지·김봉렬 영광군수)는 21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한국전력문화회관에서 창립법회를 개최했다.

영광군이 2001년까지 91억원을 투입하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사업'은 2001년까지 마라난타상, 부용루, 배 등의 기념조형물과 관리동, 기념품판매점, 전통찻집, 야외공연장, 야생초화원, 테마파크, 만다라광장, 관망대 등 시설물을 갖추게 된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속리축전을 통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법주사 탑(팔상전)돌이'를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충북도는 12일 법주사 탑돌이 보존회'를 구성, 2002년까지 탑돌이를 매월 1회 시연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이를 위해 보은문화원에 고전무용 강좌를 개설, 탑돌이와 관련된 무용교육을 실시하는 등 탑돌이 보존·전승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일산에 국내 최대 노인복지관 연꽃마을이 고양시로부터 수탁한 국내 최대 노인복지관인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20일 개관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상담사업, 기능회복사업, 평생사회교육사업, 주간보호사업, 고령자취업알선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스님과 관장 능인스님, 보각(소쩍새마을 원장) 영담(부천 석왕사 주지) 성운(은평노인복지관장) 스님과 정범구·김덕배·곽치영·이근진(이상 일산·고양지구 국회의원 당선자), 함교선(고양시장)씨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용궁사는 태고종 소유"

서울고법, 조계종측 항소 기각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9일 인천영종도 용궁사를 놓고 조계종 용궁사가 태고종 용궁사와 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태고종의 소유를 인정, 조계종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계종 소속 승려가 용궁사에 재직한 적이 없는 등 조계종 용궁사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고종측 주지가 절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지난 70년 관할관청에 태고종 소속으로 등록까지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뉴스 & 뉴스

5월8일 '통일 대토론회'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불교연대'와 새시대불교포럼은 5월8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강만길 고려대 교수가 '통일운동의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통일관련 비디오를 상영한다.

제2부 '화합,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주제의 토론에는 조성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한민족 네트워크화와 민족통일'을, 권혁범 대전대 교수가 '냉전문화에서 평화문화로'를 주제로 발제한다.(02)725-4282 김재경 기자

전자 봉축카드 무료배달

진각종 밀교신문이 초파일을 맞아 봉축 전자카드 무료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봉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실시하는 무료배달 서비스는 밀교신문에서 제작한 봉축 전자카드(3종)중 하나를 선택해 카드를 받을 사람의 전자우편주소를 전화(02-913-0136) 팩스(02-913-0137)또는 홈페이지(http://www.milgyonews.net 또는 http://news.jingak.or.kr)로 신청하면 카드를 받을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직접 배달이 된다. 이경숙 기자

귀농학교 수강생 모집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제6회 불교귀농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조화로운 삶, 더불어 사는 사회,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5월4일부터 6월17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며,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상사 농장에서 현장교육이 실시된다. (02)733-1884

김재경 기자

부인사서 선덕여왕 숭모제

제14회 선덕여왕 숭모제가 19일 팔공산 부인사(주지 성타)에서 봉행됐다.

이날 숭모제에는 동화사주지 성덕스님,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최정숙 선덕여왕 숭모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부인사는 선덕여왕의 모후인 마야부인의 원당으로 건립된 사찰로 경내에 있는 선덕여왕 숭모전에서 매년 선덕여왕의 기일(忌日)에 숭모제가 봉행되고 있다. 이윤호 기자

진관스님 항소심 2차공판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은 진관스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9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윤기원 변호사는 변호인 변론을 통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하고 북한측과 팩스를 주고받았다는 검찰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막연한 법적용"이라며 1심 판결이 과다함을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재경 기자

군법당 석림사 전기누전 '전소'



제 28 보병사단 82연대 군법당인 석림사(주지법사 양영모)가 16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됐다.

16일 오후 11시 경 석림사 천장 끝부분에서 화재로 보이는 불꽃을 발견해 10여분 만에 소방차 3대와 연대 병력 100여명이 동원돼 소화작업에 나서 11시 40분경 완전 진화됐다.

소실물은 목조스레트건물 1동(75평), 피아노 1대, 노트북 1대, 컴퓨터 1대, 선풍기 5대, 냉장고 1대, TV 1대, 불단(불화, 불구용품, 법상, 법요집, 집기류), 인등 2개, 종, 앰프, 책장 3개, 도서 500권, 냉온수기 1기, 싱크대, 보온통, 상, 거울, 청소기, 그릇, 전화기 등 총 22개 품목, 1천만원 상당이다.

석림사는 87년 3월 기무부대 감청반 건물에서 신축 운영되다가 93년 3월 법당을 건립했다. 98년 4월에는 개보수 공사를 거쳐 법당과 요사채를 증축해 올해까지 운영되어 왔다.

강지연 기자

춘천 노인복지관 개관

천태종 복지재단 운영

천태종 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춘천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월도스님)이 27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위치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74평규모로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이·미용실, 경노식당 등 노인 건강과 편의를 위한 각종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3일 노인대학 개강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춘천노인복지관은 한글과 한문, 영어 등 어학교실과 서예, 노래, 레크리에이션, 영화감상, 사물놀이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건강체조, 택견, 농장가꾸기, 자원봉사대 활동 등도 꾸려나가고 있다.

이경숙 기자

목탁소리

한 명 우 〈취재1부 기자〉

산불 이재민 돕자

강원도 영동지역 산불이 15일 완전 진화되면서 이재민을 위한 각계의 온정이 줄을 잇고 있다.

불교계도 이미 진각종 복지재단과 승가원, 자원봉사연합회 등과 신흥사, 월정사 등 해당 지역 사찰 등에서 정성을 보탰다. 그러나 이런 사찰과 단체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여기에 조계종을 비롯한 그 많은 불교종단들도 아직까지(20일 현재) 아무런 반응이 없다.

14일 "어떤 방법으로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던 조계종 총무원은 6일 후인 20일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쌀 모으기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총무원 차원에서 성금 정도는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만 밝혔다.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4월초부터 발생했다. 산불이 완전 진화되고 이재민 현황이 파악된 것은 16일이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늦어도 20일 이전에는 명쾌한 구호계획이 나와야 했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일어난 피해지만 다른 지역의 큰 사찰에서도 구호에 나서야 했다.

이웃 개신교와 천주교, 원불교는 일찌감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개신교는 16일 '삼척·동해시 산불피해대책 기독교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국교회에 도움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고 천주교는 12일부터 교구별로 모은 성금을 이재민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원불교도 종단 복지법인 단체인 '봉공회'가 전국 지회망을 가동해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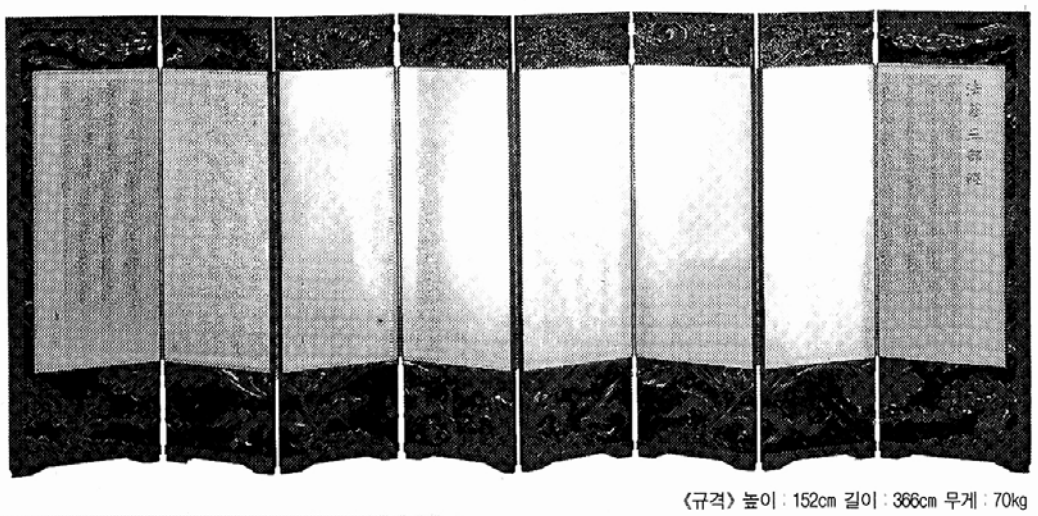
눈만 뜨면 '자비'를 외쳐왔던 불교계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년전 '삼풍백화점 참사'때 대대적으로 자비의 손길을 펼쳤던 불교계가 이번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안타깝다.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물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낳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청정원의 믿음 그대로 – 이제, 대상 헬스라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청정원

건강상담 및 상품주문
080-996-5000, 02-2235-5000
http://www.healthline.co.kr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건강식품!!!

마음만 있고 비싸서 엄두가 안나서 드시질 못했죠.
이제 미원,청정원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대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합니다.



글로벌라는 세계적인 장수국가인 일본건강식품시장에서 오랫동안 판매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주) 클로렐라 원말이 일본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유 형 건강보조식품, 클로렐라 식품
- 대 상 균형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의 자녀,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이버지, 체력이 저하되어 건강증진을 필요로 하시는 분, 몸이 허약해진 노년기의 어르신, 다이어트시 영양불균형이 염려되시는 분
- 섭취방법 1일3회, 1회 3~10정씩 섭취
- 종류 및 구성 200mg× 450정(1개월분) 200mg× 900정(2개월분) 200mg×1200정(3개월분)
- 판로 공급 및 판매원 대상(주)
- 제조원 서울캡셀

W42,000/1개월분(900정)
W65,000/2개월분(900정)
W85,000/3개월분(1,200정)

몸이 허약하신 어르신께 클로렐라



간은 해독기관, 면역기관으로서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기 이전에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글루타치온, 엔여 정자의 RNA, DNA 등 항산화 기능성 성분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 특 징 : 간 영양소 및 간기능 활성화 영양소 보급
- 주요성분 : 글루타치온, 엔여, 구기자, 소간장, 결명자, 복분자, 비타민 E, 알기닌
- 구 성 : 180캡셀/1병(1개월분)
- 섭취방법 : 1일 3회, 1회 2캡셀
- 제 조 원 : 엘바이오텍
- 판 매 원 : 대상(주)

W49,000

피로한 간을 위한 영양 리버케어



골드케어에는 두뇌영양공급에 도움을 주고 두뇌·망막의 구성성분인 DHA와 콜레스테롤 개선 및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EPA가 들어 있는 DHA함유식품(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 주 성 분 : 정제어유(DHA 27%/EPA 9%),액주효모,레시틴, 월계리추출물분말,비타민E혼합제,비타민B1염산염
- 섭취방법 : 1일3회, 1회2캡셀
- 유 형 : 건강보조식품/정제어유가공식품
- 구 성 : 500mg×180캡셀(90g)
- 제 조 원 : 일진제약(주)
- 판 매 원 : 대상(주)

W105,000

원활한 두뇌 영양공급 골드케어



가스관에서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언젠가 그 가스관은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몸도 마찬가지 입니다. 써클케어에는 마늘유, 은행잎추출물,신사자추출물 등이 들어있어 혈행에 도움을 드립니다.

- 주 성 분 : 소맥배아유, 정제어유(EPA19%, DHA12%), 신사자 추출분말, 은행추출물분말, 비타키로탄 마늘유, 포도씨유
- 섭취방법 : 1일3회, 1회2캡셀
- 구 성 : 500mg×180캡셀(90g)
- 유 형 : 특수영양식품
- 제 조 원 : 일진제약(주)
- 판 매 원 : 대상(주)

W55,000

혈행을 원활히 도와주는 써클케어



파워케어는 자라분말, 누에, 오미자 등 민간원료를 농축한 영양공급원으로 누적된 피로에 지친 남자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 주 성 분 : 자라분말, 백봉선,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하수오, 복분자분말, 비타민E
- 섭취방법 : 1일3회, 1회2캡셀
- 구 성 : 500mg×180캡셀(90g)
- 유 형 : 특수영양식품
- 제 조 원 : 엘바이오텍
- 판 매 원 : 대상(주)

W73,000

남성을 위한 영양공급원 파워케어

아직도 일기예보 역할을 하세요? – 조인케어



**건강한 무릎,
힘찬 발걸음
조인케어가 도와 드립니다.**

W99,000

연골의 조직에 함유된 글루코사민, 황산콘드로이친,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영양소를 배합한 특수 영양식품입니다.

- 구 성 : 500mg×270캡셀(90g)
- 섭 취 : 1일 3회, 1회 3캡셀
- 판매원 : 대상㈜

※충무병원 이도영박사서울대 의대 외래교수팀과 퇴행성 관절염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튼튼한 장, 쾌변은 건강의 기본

글루코나이스 포르테

글루코나이스 포르테는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하여 주는 특수 영양식품으로 초고분자 수용성식이섬유 글루코만난을 다량 함유하였으며, 파인애플 맛을 첨가하여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W35,000/1Box

- 주요성분 : 글루코만난 43.4%,HCA,키토산
- 구 성 : 8.3g×60포/1개월분
- 특수 영양식품 허가번호 : 대전 대덕 제102호
- 섭취방법 1일 2~3회조식전,오후,취침전) 1회 1포를 냉수150ml에 넣어 완분히 저은 후 음용
- 제 조 원 : 미원㈜ 판 매 원 : 대상㈜

※인체의 의해 위장관구성세포 임상실험을 거쳐 그 탁월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뇨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철저한 식이요법입니다.

뉴케어 당뇨식

식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사대용식 뉴케어 일반식



W 36,000



W 48,000

- 특 징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이 20:30:50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정백당이 아닌 결정과당을 사용하여 혈당상승 및 인슐린 반응이 낮습니다.
  -동점성으로 설사, 구토의 부작용이 적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첨가하였습니다.
  -Olive Oil을 사용하여 MUFA인 oleic acid의 함량이 높습니다.
  -MCT oil을 사용하여 fat tolerance를 증연습니다.
- 섭취대상 : 당뇨병 환자, 췌장환자 및 탄수화물 제한이 필요한 환자
- 섭취방법 : 1일 섭취량 5~12캔(1,600~2,400ml)를 경구 및 경관 투여하며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투여량, 농도, 속도를 조절하여 섭취합니다.
- 구 성 : 30캔/Box
- 특수 영양식품 허가번호 : 경기 이천 14호

건강한 식생활은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말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균형있게 제공하는 뉴케어 일반식은 한국인의 5대 영양소는 물론 12종의 비타민과 7가지 무기질이 함유된 균형영양식으로 한국인의 체질과 입맛에 맞도록 커피맛, 바닐라맛, 딸기맛, 구수한 맛으로 제조되어 병원 환자는 물론 병약자, 일반인들의 영양보충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섭취대상
- 수술 전후 영양상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
- 치통·치주염·발치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분
- 영양보충이 필요한 노인 및 성장기 아동
-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시는 직장인, 수험생, 노약자분

섭취방법
하루 2~3캔(400ml~600ml)을 섭취하여 영양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종류 및 구성 : 30캔 /box (뉴케어/바닐라맛, 커피맛, 딸기맛, 구수한 맛)
특수영양식품 허가번호 : 경기이천 14호

상품배달
- 3만원이상 주문시 전국무료배송 • 전국2~5일 이내 도착
- 반품,교환 택배시 전액무료
  -3만원 미만 주문시 배달비 3,500원 별도 (주문상품 배달처가 2군이상일때는 별도상담요망)

반품,교환 및 A/S
- 반 품
  • 주문후 30일 이내 100%가능합니다.
  사용시에는 A/S기간 동안 철저히 A/S에 응해 드립니다.
  • 환불은 반품상품이 물류창고에 도착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 교 환
  • 주문후 30일이내 100%가능합니다. • 반품,교환 전화번호 080-996-5000

대금결제
신용카드 결제
- 결제가능카드 : 외환,삼성,LG,BC,국민,아멕스, 다이너스클럽 카드 (300,000원 이상 구매시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 무통장입금
  - 농 협 : 031-01-423424
  - 국민은행 : 093- 25- 0016-741
  - 서울은행 : 15308-1941337
  - 한빛은행 : 114-04-114217
- 예금주 : 대상(주)영업본부
- 입금자성명이 동일해야 함
- 주문후 7일이내 입금하지 않으시면 주문은 자동취소됩니다.

DAESANG 大象(주)

사은품 전화주신 모든고객께 쿠포텍라 샘플 5이정 및 건강관련책자를 드립니다.